

# MAXIM

KOREA

## HORROR MANIAC

귀신 들린 여친 다루는 법  
허를 찌르는 이토 준지의 공포 법칙  
저주받은 영화 <악마의 씨>  
그 30년 후 이야기 <로즈메리의 아들>



남량 특집 3부작  
공포의 10가지 법칙

영화 <꼭두각시>의 호러퀸

구지성

## SENSUAL VACANCE

필수 아이템 7+7+7

## SEX&GO PRISON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간통죄의 허와 실

## SEXUAL TENSION

브라 팬티 깔맞춤하고 나왔음 얘기 끝난 거지

## SAY Ah~ Oh~

여성 독자 코너: 85%의 남자에게 먹히는 스킬  
오럴 섹스, 이럴 때 시전하고 이럴 때 거절하라

COMING SOON!

MAXIM'S  
SEXY MARINE  
PARTY  
13TH JULY



2013년 7월호  
정가 5,900원

## Goddess of Baseball

아나운서 공서영

BASEBALL SPECIAL  
Limited Edition

'김석류, 최희, 김민아 아나운서'  
프로 야구는 매년 한 명의 여신을  
탄생시켰다. 800만 관객 시대를 열  
2013년의 야구 여신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지금 야구팬들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단 한 명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그녀다

## STRIKEOUT MONSTER

진격의 류현진

대전벌에 뿌러지던 광속구가 LA다저스의  
미트에 꽂힌다. 동산고 4번의 불방망이가  
MLB의 외야를 유린한다. 게다가 좌투우타?  
야, 대체 한국에서 뭘 데리고 온 거야?

## EAGLE'S BAT GIRL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화의 귀요미  
배트걸이 미스맥심 콘테스트 16강의  
막차를 탔다. 얼굴은 귀요민데 몸은...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the

MAXIM

Party★

2013.07.13

SEXY  
MARINE  
PARTY

@Puffins Bay  
with J.K Corporation



**PLACE** 청평 마리나 클럽&리조트 퍼핀스베이(자세한 위치는 QR 코드 스캔!)

**RESERVATION** 010 4040 0865, 010 6429 7101

**MORE INFO** www.maximkorea.net || facebook.com/editors.maxim

**DJ LINE-UP**

THE KILLAHZ

S2

MOON5150

ROEM

JIEUN

INSERT COIN

ERIC

FUKKEUL

T.SCOTT

그녀의 정체는?



# Contents

JULY / 2013



## 100 공서영 아나운서

XTM <베이스볼 워너비>를  
연일 화제로 만드는 공서영 아나운서가  
시원한 야구 유니폼을 입었다.  
촬영 내내 야구의 매력을 설파하고  
다니던 그녀는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진정한 야구 여신이었던!  
성씨 부터가 남다르잖아. 공. 서영.

# Contents

## 132 구지성

19금 공포 영화 <꼭두각시>의  
호러퀸으로 돌아온 그녀.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사람을  
홀리는 이 마성의 여인에게  
당신도 꿈 빠져치게 될 거다.

### Circus Maximus

- 18 MAXIM이 추천하는 이색 보양식: 수소 교환 요리
- 20 칠월 칠석! 건우&지녀의 영원한 뺑서를 까마귀와 까치 간의 자존심을 건 스펙 대결!
- 22 결혼이 미친 짓이라는 결정적 증거
- 24 MAXIM 선정! 이달의 가장 X된 인물
- 26 비인기 라면들, 누들러가 대신 먹어드립니다.
- 28 <스타트렉>의 스코티, 이제 그를 신에게 텔레포트할 차례다.
- 30 굽시나스트 카툰: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캐릭 장영자

### How To

- 32 화장실에서 마주친 상사에게는 어떻게 인사하는 게 예의일까? 인사 잘 하는 법
- 34 구지성이 알려주는 스타로 시는 법
- 36 귀신 들린 여친 다루는 법
- 38 우주에서 파티 잘하는 법

### Smoke&Drink

- 40 멕시코의 미첼라다 맥주 칵테일 만들기
- 42 MAXIM판 허안 거담! 캡슐 담배 해부 실습기

### Sex

- 43 그녀도 지금 당신과 하고 싶다
- 47 남자가 원하는 오렐 섹스 판타지

### Comment

- 50 슈퍼맨은 왜 빨간 팬티를 벗었나?
- 52 뻥하지만 중독성 있는 이토 준지 호러의 법칙
- 54 <악마의 씨> 30년 후 이야기 <로즈메리의 아들>

### Style

- 57 딱 하나만 있으면 멋쟁이 되는 필살 아이템
- 58 서머 킹카로 거듭나기 위한 변신 아이템 6종 세트

# SHAK KING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 추천시켜주다니  
이름이 무서워요?



# Contents



72

## Stu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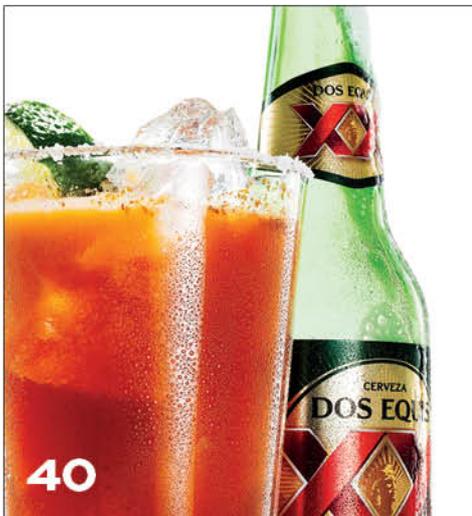
- 61 바캉스 섹스를 위한 21가지 제품
- 68 이달에 MAXIM이 지른 물건: 쉐보레 트랙스, 레노버 노트북, 자이언트 픽서, 바이닐 크루저 보드

## Motor

- 71 람보르기니의 슈퍼 럭셔리 SUV 우루스
- 72 THIS IS MY CAR #2 독자의 레이스 머신에 미스맥심 우승자가 올라탔다.
- 76 MAXIM 사승기: 바람난 마누라가 낳은 옆집 남자의 자식, 포드 이스케이프
- 78 지프 랭글러 시하라, 여성 집나, 못 집나?
- 82 똥줄 활활! 스릴 만점! 모터크로스 경기 레드볼 X 파이티스

## Miss Maxim

- 88 극강의 섹시함으로 무장한 미녀 독자 모델 4명과 벌인 맥주 파티 난장



40



88

## Icon

- 96 Again 2010! 2년 만에 대전 괴물에서 LA 몬스터로 성장한 슬러거(?) 류현진

## Doggy Style

- 108 힙합 슈퍼스타 스눕 독과 MAXIM 에디터가 대마초 사러 간 이야기

## Fight

- 120 '좀비' 정찬성의 타이틀 도전, 승산은?
- 122 강한 남자 #1. 탐탐 전찬열 관장

## Horror Special 10

- 123 납량특집 1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무서운 이야기의 10가지 법칙

## Military

- 140 전세를 뒤집어 놓은 세기의 정보전 BEST 3

## Party

- 152 뉴욕에서 실컷 파티만 하던 김희성 에디터의 밀러 뮤직 투어 후기
- 156 REMY SODA ONE NIGHT TOUR
- 158 DJ 릴레이 #3: 클럽 엘루이의 위풍당당 DJ 마제스틱&시온즈
- 160 물 좋고 분위기 좋은 2013 UMF

## Law&Order

- 161 형법이 섹스 상대까지 간섭해야겠어?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간통죄 하버튼 없어지기 전까진 잘 알고 피해가라.

## Unpicked

- 175 이 화보, 이 기사 왜 못 실었나?



96



108



SWISS + MADE



# ESSENTIAL GEAR.

Navy SEAL Steel Colormark Chronograph Series No. 3181: 44mm, stainless steel case, screw down crown & case back, carbon reinforced polycarbonate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water resistant to 200 meters, signature PU strap, and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www.facebook.com/luminox](http://www.facebook.com/luminox)

[www.luminox.com](http://www.luminox.com)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 루미노스 판매처

공식수입업 및 서비스 센터 밀리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limwatch.co.kr](http://www.milli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모멘트) 02-772-3181 / 잠실점 1층(모멘트) 02-2143-1920 / 청량리점 1층(모멘트) 02-3707-1179 / 평촌점 2층(모멘트) 031-8086-9232 / 대전점 1층(모멘트) 042-601-2109 / 대구점 1층(모멘트) 053-660-3122 / 부산 광복점 1층(모멘트) 051-678-4039 / 울산점 1층(모멘트) 052-960-4533 / 아울렛 서울역점 2층(모멘트) 02-6965-2637 [현대백화점] 일산 킨텍스점 1층(모멘트) 031-822-2929 / 충청점 1층(모멘트) 043-909-4148 [AK백화점] 원주점 1층(모멘트) 033-811-5525

특약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층(TM 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1) 02-3424-7073 / 강변 테크노마트 1층(타임21) 02-3424-1210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패션존) 02-3398-7527 / 동대문 두산타워 3층(타임갤러리) 02-3398-5528 / 성내동(다이비스북) 02-565-9897 / 상계동 하이델빙상 A동(도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왕치(명동점) 02-771-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러스 1층(정신사) 02-741-9678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샤모) 02-2118-8075 / 잠실 롯데월드 팰링스 1층(제네바) 02-419-5622 / 남창동 단암빌딩1층(프로워치) 02-779-6964 / 은평 이마트 7층(스포츠빅텐) 02-389-8718 / 광신리 민자역사3층(원타임) 02-2200-1355 / 안양 안양동(시계상자)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자) 031-466-1014 / 부천 심곡동(북북)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빅텐) 031-710-1260 / 안산 고잔동(타임루트) 031-487-9057 / 팽택 팽택동(유빈) 031-658-6883 /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 1층(GG클래식) 031-221-4997 / 인천 흥플러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인천 구월동(워치보이) 070-8632-5300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터치) 042-482-2328 /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4층(스포츠빅텐) 042-615-1265 / 대전 가오동(에진시계) 042-280-9117 / 대구 심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와치) 043-235-1510 / 청주 남문로2가(복와치) 043-223-1333 / 청주 메가박스1층(메가와치) 043-857-9125 / 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당) 063-289-3592 / 익산 롯데마트(원남상사) 063-833-8536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원남상사) 062-675-8521 / 포항 백류플러스(조이필)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빅텐) 054-480-1260 / 구미 원평동(엘가시계) 054-451-6940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 부산 서면(엘가) 070-7569-5766

# LAYERED UP&DOWN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크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료타임 www.eurotime.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4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하이힐 (02-2136-9743)  
[면세점] 제주중앙면세점 (064-780-7671)  
[판매처] 롯데백화점 영등포 (02-2630-6883) / 대전 (042-601-2253) 신세제백화점 광주 (062-360-1291) 현대백화점 부산 (051-667-1159) AK-PLAZA 평택 (031-646-6139) NC백화점 순천 (061-720-5124) / 뉴코아백화점 안산 (031-8085-1708) / 올신 (052-210-4010) / 아담 (031-701-6841) 2001아울렛 분당 (031-786-1808)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이마트 자양 (02-455-6841) / 포항 (054-278-6848)

# MAXIM

www.maximkorea.net

편집장 이영비

## Editorial / 편집부

### 편집 1팀

에디터 김희성 대리/ 팀장  
조종재 주임  
김세형 인턴  
김소윤 인턴  
영상 에디터 김상수 인턴

### 편집 2팀

에디터 손안나 주임  
박정욱 인턴  
이호선 인턴

### 편집 3팀

디자이너 서윤정 주임/ 팀장  
최송아 인턴  
일러스트레이터 장재혁 인턴

### 편집 4팀

수석 에디터 유승민  
에디터 김진욱  
뷰티 에디터 장혜민

### 객원 에디터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엑스포즈> 기자 김덕중  
<엑스포즈> 기자 강산  
<디펜스 타임즈 코리아> 편집위원 김대영  
라면 리뷰어 '누들러' 김광희  
라면 리뷰어 '누들러' 박종현  
카툰 작가 급시니스트  
게임 칼럼니스트 덕사마  
변호사 Devil's Advocate

## Finance & General Affair / 경영지원팀

재무 회계 최인영 대리/ 팀장  
인사 장선영 주임  
유통 안재만 인턴  
비서 정석영 인턴

## Marketing / 마케팅팀

광고마케팅 김진욱 팀장  
정재식 인턴

## Web & Mobile Service / 웹 모바일

토렌 서정민 팀장, 남원규 팀장

## Photography / 사진 교열 신선경

포토그래퍼 정기수 실장  
박 울 실장  
이진호 실장  
오준섭

##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이용관 대표

##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인 이재수

## MAXIM Korea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 원혜진

## MAXIM Contact

독자Q&A / 일반 문의 www.maximkorea.net 접속  
상단 BOARD 메뉴 ▶ Q&A 게시판 이용  
광고 문의, 사업 제휴 partner@maximkorea.net  
☎ 070-4010-8994  
정기 구독, 대량 구매 joy@maximkorea.net  
☎ 02-323-1182  
취재, 화보, 협찬, 편집부 press@maximkorea.net  
영화사, 공연 홍보 movie@maximkorea.net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3년 7월호 통권 제39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ler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mcox  
SENIOR ADVISER: David J. Fishman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INTERNATIONAL PUBLISHING MANAGER: Stephanie Marino  
INTERNATIONAL EDITORIAL DIRECTOR: Simon Clays  
SR. INTERNATIONAL OPERATIONS MANAGER: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b>ARGENTINA</b> German Pittelli	<b>CZECH REPUBLIC</b> Pavel Vondracek	<b>ITALY</b> Paolo Gelmi	<b>RUSSIA</b> Sasha Malenkov	<b>THAILAND</b> Surawong Krauefan
<b>AUSTRALIA</b> Santi Pintado	<b>GERMANY</b> Mike Bleibtreu	<b>MEXICO/LATIN AMERICA</b> André Félix Díaz Rojo	<b>SERBIA</b> Dragan Otašević	<b>UKRAINE</b> Sasha Malenkov
<b>BULGARIA</b> Hristo Zapryanov	<b>INDIA</b> Vivek Pareek	<b>POLAND</b> Krzysztof Papliński	<b>SOUTH KOREA</b> Young-Bee Lee	<b>UNITED KINGDOM</b> Alpha Media Group
	<b>INDONESIA</b> Ronald Adrian Hutagalung	<b>PORTUGAL</b>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b>SWITZERLAND</b> Boris Etter	<b>UNITED STATES</b>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3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mworld@maxim.com



Swiss made  
Guilloché pattern dial  
Sapphire glass with Anti-reflective coating

# DUO

Estremo Collezione 101

공식수입원 : (주)자스페로 코리아 1688-8907

- 직영점(여의도) 02)783-8910
- 롯데백화점(건대점) 02)2218-3191
- 롯데백화점(부평점) 032)452-2146
-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 신세계백화점(인천점) 032)430-1486
- AK백화점(수원점) 031)240-2199
- 디큐브시티(신도림) 02)2211-0149
- 정우상사(홍로점) 02)2272-2688
- 타임머신(동대문) 02)6388-2927
- 타임 24(일산점) 031)931-5555
- 행끼름(부천점) 032)662-0686
- 개이불럭션(천안점) 041)564-5465
- 엘가(구미점) 054)451-6940
- 조이빌(포항점) 054)613-1170
- 중문면세점(세주점) 064)780-7665
- 롯데백화점(미아점) 02)944-2130
- 롯데백화점(충동점) 032)320-7559
- 롯데백화점(전주점) 063)289-3191
- 신세계백화점(의정부) 031)8082-0344
- NC백화점(강서점) 02)2667-9514
- 대동백화점(창원점) 055)212-8383
- 와와치(강남점) 02)537-8977
- 위치북(노원점) 070)4136-5090
- 샤론(안양점) 031)463-9788
- 타임런(인천점) 070)7516-4545
- 타임타치(대전점) 042)482-2328
- 엘가(대구점) 053)255-6940
- 인터블로그(양산점) 055)911-7111
- 롯데백화점(본점) 02)772-3908
- 롯데백화점(관악점) 02)842-7706
- 롯데백화점(청주점) 043)219-9108
- 롯데백화점(서면점) 051)810-4087
- 신세계백화점(천안점) 041)640-5496
- NC백화점(물방점) 02)350-8979
- 대구백화점(대구점) 053)422-3191
-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 TM시계백화점(신도림) 02)2111-1120
- 시계상자(안양점) 031)441-0158
-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 메가와치(충주점) 043)867-8125
-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 타임블(부산점) 051)919-4704
-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22
- 롯데백화점(김포점) 02)6116-3176
- 롯데백화점(광주점) 062)221-1573
- 롯데백화점(광복점) 051)678-4191
- 신세계백화점(광주점) 062)360-1934
- NC백화점(분당점) 031)780-3114
- 대백프라자(대구점) 053)253-7133
- 해피타임(홍산점) 02)2012-0625
- 타임타임(산도림) 02)2111-1171
- 타임 24(일산점) 031)413-7656
- 보보스와치(청주점) 043)235-1510
- 플드캐니언(광주점) 062)714-1121
- 해피타임(대구점) 053)428-3086
- 엘가(부산점) 070)7569-5766
-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164
- 롯데백화점(분당점) 031)739-2140
- 롯데백화점(울산점) 052)256-3191
- 롯데백화점(센텀점) 051)730-3198
- 신세계백화점(센텀점) 051)745-2297
- NC백화점(광주점) 062)510-7171
- 동아백화점(대구점) 053)780-1701
- 패션존(동대문) 02)3398-7527
- W MALL(구로점) 02)2081-0921
- 뉴코아아울렛(부천점) 032)624-8337
- 타임 21(광진점) 02)3424-0793
- 독독(부천점) 032)662-2026
- 타임 21(청주점) 043)224-8851
- 월드룩(광주점) 062)410-0137
- 교보문고(대구점) 053)425-9961
- 티파니(세주점) 064)722-3623
- 롯데백화점(영등포) 02)2164-6191
- 롯데백화점(안양점) 031)463-2185
- 롯데백화점(창원점) 055)279-3192
- 신세계백화점(경기점) 031)695-1277
- AK백화점(분당점) 031)781-8194
- NC백화점(해운대) 051)709-5741
- e-watch(명동점) 02)771-7033
- 타임갤러리(동대문) 02)3398-5528
- 타임 21(광진점) 02)3424-0793
- 독독(부천점) 032)662-2026
- 타임 21(청주점) 043)223-1333
- 진보석(순천점) 061)725-3849
- 타임피아(포항점) 054)253-8855

## MAXIM 에디터와 페친 맺자!

나 미스 맥심이라  
페친이지롱.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화보 촬영장 뒷 모습, 인터뷰 현장, 에디터들의 다이나믹한 일상과 역학관계, 유치뽕 바보짓거리, 이들이 구강에서 뿜어대는 생생한 육두문자, MISS MAXIM들을 향한 교태스런 추파... MAXIM 에디터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오픈했다! 페이스북 친구 검색 창에서 'MAXIM EDITORS' 를 검색하고 친구로 등록하면 MAXIM 편집부의 일상을 속속들이 구경할 수 있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친구 맺어줘, 우리가 잘할게.

[www.facebook.com/editors.maxim](http://www.facebook.com/editors.maxim)



### This Month's Hot Scan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담스러운 록 페스티벌 스타일로 완전무장하고 흥대 길거리에 나선 조용재 에디터의 굶욕 영상이 지난 달 가장 많은 독자의 스캔을 당했다. 이번 호 속 QR 코드도 놓치지 말고 스캔하시라! 독자들을 위해 이 한 몸 거침없이 불사르는 에디터들의 재롱 잔치가 펼쳐진다.

[표지모델 겸의요청] CJ E&M XTM 아나운서 공서영



### This Month's Hottest Request



당신이 추천하면 MAXIM 이 섭외한다! 독자들의 강력한 추천에 이번 호 표지를 장식하게 된 여신은 스포츠 아나운서 공서영이다. 그녀의 아름다운 화보는 100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XIM에서 보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지금 당장 홈페이지의 섭외 요청 게시판으로 달려와!

### MAXIM ONLINE SURVEY

#### 소개팅 때 이런 여자 맘에 안 들어!



**1위** 얘기하는 내내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599표, 45.6%)



**2위** 뽀얗게 화장한 여자(294표, 24%)

내가 언제?



**3위** 약속 시간에 한참 늦고도 뻔뻔하게 태연한 여자(240표, 19.3%)

총 투표자: 1,250명(6월 17일 기준) | 투표 기간: 2013년 5월 7일~진행 중

제이무리 김태희 급 외모라도 이켓도리를 호물거리게 만드는 '소개팅 최악의 매너'는 위와 같다. 반면 '과한 노출로 시선 두기가 어려운 여자'는 3.3%로 가장 낮은 표를 받았다. 아유, 그저 감사합쇼. 해해. (누가 이런 병신 같은 보기를 여기에 넣었담?)

#### 현재 진행 중인 설문

- 뽀얗고 싶은 히어로의 여자는?
- 귀신은 있다? 없다?
- 유력 인사 성집대 스캔들 뉴스, 부러워? 뻔쳐?

이 외에도 MAXIM 홈페이지에서는 온갖 다양한 주제로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킴은 킴은!

당신 생각엔?



# THE NEW ERA® MTV COLLECTION

2013 HOT SUMMER



9FIFTY MTV HAMBURGER



9FIFTY MTV SUNDAE



59FIFTY MTV YO!RAPS



## NEWERA STORE

- 서울매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B1F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71-26
- 인천매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SQUARE 2F
- 수원매장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번지 AK PLAZA 2F

## ONLINE STORE

• [WWW.NEWERACAPKOREA.COM](http://WWW.NEWERACAPKOREA.COM)

FLY YOUR OWN FLAG™



# Letters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7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당신의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 주마.

독자 사연  
투척하기!



아 허허하 호허허,  
(아 햇바닥 뜨거워)

## 우리는 더 강한 것을 위해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리다가 맥심을 처음 접했죠. 이거 참 미용실에서 아한 부분에 손가락 걸어놓고 물래물래 보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걸고 보려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을까. 이제는 갠소하고 싶어 큰 맘 먹고 6월호를 구매하였어요. 다 보고 남자친구에게 선물했는데 그가 하는 말. "이번 호 왜 이렇게 약해? 원래 더 야했었는데" 헐... 저도 더 강하고 더 야한 맥심을 접하고 싶군요. 갠소를 넘어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그 날까지! 처음 마음, 처음 각오, 처음 수위! 부탁드립니다.  
<안녕자두야, 이메일 사연>



**편집장** ● 마침 이번 호에 MAXIM 남자 에디터가 여성 독자를 위한 섹스 칼럼을 썼어요. 여직원들 모아놓고 경험담도 수집하더군요. 맘에 드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응재씨, 좋은 말로 할 때 녹음된 음성 파일은 지워라.)

좋은 말 할 때  
머리를 내놔



### 머리가 시급합니다

학력, 경제력, 가문, 외모,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30대 총각이요. 하지만 지난 내게도 빠지는 것이 있으니, 정말로 빠지는 내 머리카락이요.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도 하였지만, 내 머리카락은 매정하게 두피를 떠날 생각만 하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광구 형님처럼 머리카락을 수호할지, 브루스 윌리스용처럼 시원하게 밀어버릴지 고민이구려. <2사만루, 이메일 사연>



**에디터 유승민** ● 난 그대에게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학력, 가문, 외모 그딴 건 그대에게 머리카락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제력' 그것은 머리를 줍니다. 이제 선배 탈모인들이 반복해왔던 온갖 병신 개삽질의 답습을 멈추고 모발이식센터로 가세요. 효과를 보면 눈깔이 튀집해서 온몸의 털을 다 머리로 이식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자기야아아아아아!  
지금 가아아아!



### 장거리 연애는 힘들어

저는 해외에서 한국인 여자친구를 1년 정도 만나 귀국해서도 교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각자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멀어서 계속 만나야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여자친구네 집에서 본인의 집까지 거리는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무통장입금, 모바일 사연>



**에디터 조웅재** ● 집이 너무 멀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려 한다는 독자분의 여유있는 모습이 부럽기만 하군요. 저도 여친이 조금 가까운 곳에 산다면 좋으려만, 어찌 보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제 여친 어디 사냐구요? 하하. 저도 제 여친이 어디 살게 될지 궁금하네요. 가까운 데 사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아아 눈물이...

## 이달의 스페셜 사연

맥심 보고 크는 딸



으리?

제 딸은 생후 10개월 된 이슬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MISS MAXIM 만나들보다 더 이쁘게 커야 된다~!  
<이중훈, 이메일 사연>

독자분께서 유부남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훈남이시군요. 귀여운 따님은 아버지를 어쩔 저렇게 속 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랑 사든 맺으시는건 어떨까요? 제 아들이요? 아직 없습니다. 예정일이 안됐거든요.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전에 여자친구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겠죠? 흑흑...

## 편집부로 도착한 수상한 팬티



이담 고추 가리는 나뭇잎보다 작은 이 천 조각의 정체는 팬티 라인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여성용 미니 팬티. 얼마 전 MAXIM 편집부로 선물아랍시고 도착한 몹시 수상한 물건이다. 여성 에디터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으나, 몇몇 남자 에디터들은 테이를 위해 아무렇게나 널부러진 이 물건을 계속해서 힐끔거렸고 결국 어느 날 아침 김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어떤 새끼야?

GIORGIO FEDON  
1919



**HAWK EYE**

조르지오 페돈 | (주)가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http://www.konocorp.com) | [www.giorgiofedon.co.kr](http://www.giorgiofedon.co.kr) | 02.3397.7100

[직영점] 롯데백화점 분당 (031-738-2140) 롯데백화점 미아 (02-944-2130) 대구백화점 프라자 (053-253-7133) 하이힐 (02-2136-9743)  
[판매처]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908) / 잠실 (02-2143-1908) / 부산서면 (051-810-4087)





## 인기가 너무 많아

간혹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며 친하게 지내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모가 하나같이 평균 이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질생긴 외모는 아니지만, 그런 여자들에게는 인기 있는 외모인가 봅니다... 번호를 안 주자니 싸가지 없다고 할 것 같고, 주자니 아무한테나 준다고 소문날 것 같아 이래저래 곤란하네요. 휴... <바나나의 귀환, 모바일 사연>



**에디터 손안나** ❗ 무슨 소문을 생각하시는 건지... "어머 저 선배 너무 멋있지 않아? 내가 얼마전에 번호도 댔어", "어머머, 나도 번호 물어 봤는데! 수줍게 알려주더라. 귀여워! 깽"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남이 되면 아뭏따 호감도 상승이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그물을 펼쳐주세요. 파닥파닥거리며 낚인 고기를 중에는 시가 2,500만 원 짜리 참다랑어가 있을 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 글썄 탈퇴했더라니깐요?

### 여친 탈퇴 책임져라

지난 호에서 김희성 에디터가 페이스북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친구신청을 걸어서 사진이 올라오는 족족 좋아요를 눌렀소. 근데 이것을 본 본인의 여친이 뻑쳐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요? 다행히 아직 만나고는 있지만, 여친이 폐북을 탈퇴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소. 이를 어떻게 해야 하오... <김모씨, 이메일 사연>



날 안 좋아할거야...

### 소심남의 비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앞섭니다. '사귀다가 헤어지면 더 이상 연락도 못 할텐데... 친구 잃는 게 두려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 연애를 하고 싶고, 헤어지는 건 두렵고, 제가 남자 만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모씨, 이메일 사연>



**에디터 김희성** ❗ 페이스북에 '좋아요'만 있고 '싫어요'를 아예 만들지도 않은 마크 주버버그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독자들의 여친으로부터 무수한 '싫어요' 세례를 받았겠지요. 그래서 (경사경사) 만들었습니다. MAXIM 에디터들의 일상이 담긴 페이스북 계정을요. 여친이 제 폐북을 보고 '저 여자 누구냐며 당신을 추궁해서 귀찮다면 바로 이 계정으로 친추를 하십시오(www.facebook.com/editors.maxim), MAXIM의 시그니처인 악마탈이 프사이니 여친의 질투를 살 걱정따윈 마세요.



**에디터 조웅재** ❗ 원래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잘 되는 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한민국의 길 가던 도인과 스캔들 터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면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지만, 연인이 되기에는 재미가 없죠. 이참에 화끈한 변신을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어버린 척, 사고로 기억을 잃은 비운의 주인공 코스프레라도 해 보세요. '육봉으로 모든 걸 기억하는 사이코메트리'는 어떨까요? "이것을 통(通)해 널 기억하고 싶어."라는 훌륭한 작업 멘트도 칠 수 있습니다.

## 독자 사연 응모

영양탕이 땡기는 7월의 독자 사연 접수!

### 응모 방법

####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빌딩 4~6층 편집부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방문 접수

가격부터 얘기했어야지...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겨땀이 제주 용천수마냥 솟아오르는 무더운 계절이다. 이럴 땐 은행, 마트, 서점과 함께 4대 쿨(Cool) 플레이스로 꼽히는 MAXIM 사무실로 피서를 떠나 보자. 에디터들과 일대일로 상담이 가능하다. 명쾌한 해답을 받고 집에 도착하면 쿵 서비스로 고민 상담 비용 12년 강제 정기구독권이 청구되어 있을 거다. 싸지?

## 사연이 실리는 독자 전원 증정! 이달의 독자 선물



### FOR MEN

엠도씨 안티링클트리트먼트 에센스

고농도의 천연유래효모 발효추출수를 80% 함유해 피부탄력과 케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돼지 귀처럼 쭈글쭈글한 피부를 순대 간처럼 팽팽하게 펴 주자는 얘기다.



### FOR LADIES

MAXIM 시그니처 T팬티

HOT한 여름을 보내고 싶은 당신과 당신 여친을 위한 아이템!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이열치열 아닌가?



### MAXIM U-라인도 스판 티셔츠

당신의 여친을 원자현 못지 않은 몸매로 포장해 줄 마법의 스판 티셔츠. 여름 페스티벌에 가져가 흠뻑 적시고(?) 놀아 보자!



**Stile di Matto**

신세계강남점 신관 3층 스타일레 디 마또 매장 (02-3479-1572)



## *Sneakers are in!*

*Premium sneakers multishop, **Stile di Matto.***

*The first of its kind.*

*To accent your styling, go with the flow, wear sneakers.*

*Meet affordable and trendy sneakers.*

# Dear. Readers

## 아나운서 공서영의 만루 홈런 독자 고민 해결소!

**Q.** 3년 연애 중 권태기가 오던 찰나에  
저를 쫓아다니던 2살 연하의 처자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좋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m자탈모, 모바일 사연〉

**A.** 지금 여자친구를 정리하면  
후회할거예요. 3년을 만났다는 건 어쨌든  
인연이라는 얘기니까요. 지금 그 연하의  
여성은 독자님에게 단지 스릴의 대상이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연하의  
여성이 혹시 독자님 여친이 있는 걸 알고  
그려는 거면 조금 더 아님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Q.** 여친과 헤어진 지 1년차인 서른 둘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요즘따라 돌싱 아니면  
유부녀로부터 대쉬가 자주 들어오네요.  
이런 거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산송장, 모바일 사연〉

**A.**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인데,  
유부녀를 만나다니... 인연이라는 게  
지금 당장 없다고 위험하고 잘못된  
만남을 한다면 혹시라도 다가 올 인연을  
막아버리는 셈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저도 없는데!

**Q.** 요즘 아무것도 없이 일 아니면 집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자는커녕  
소주 한잔 할 여유도 없네요. 이런 생활에  
화끈한 변화를 찾을 순 없을까요?

〈윤, 모바일 사연〉

**A.** 무료하기 때문에 삶이 무기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아  
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가야 할 일터가 있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나중엔 분명 쉬는 시간도 있을  
테고 말이지. 사고방식을 바꾸기만 한다면  
굳이 변화를 찾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 될  
거예요.



안경 비제이클래식  
유니폼 네포스  
운동화 나이키



HELLDIVER



# HELL DIVER

## 1942 SB2C

공식수입원 에이맨 인터네셔널 1644-3885 | 공식 홈페이지 <http://www.helldiverwatches.com>

롯데백화점(잠실점) 02-2143-1909    롯데백화점(노원점) 02-950-2490    롯데백화점(대구점) 053-660-3126

굿모닝시티2F(동대문) 02-2118-8075  
헬로APM6F(동대문) 02-6388-2927  
두산타워3F(동대문) 02-3398-5528  
두산타워5F(동대문) 02-3398-7527  
원타임(왕십리) 02-2200-1355  
프로워치(남대문) 02-779-6964  
이와치(명동점) 02-771-7033

이타임월드(신촌점) 02-313-4108  
타임랜드(은평점) 02-350-8471  
이츠와치(홍대점) 02-323-0980  
와와치(반포점) 02-537-8977  
TIME 21(강변점) 02-3424-7073  
TIME 21(강변점) 02-3424-1210

테크노마트B1(신도림) 02-2111-1120  
타임타임(신도림) 02-2111-1171  
샤론주얼리(안양점) 031-463-9788  
보석상자(안양점) 031-466-1014  
타임타임(안산점) 031-413-7656  
타임루트(안산점) 031-487-9057

티파니(일산점) 031-931-5300  
워치보이(인천점) 070-8632-5300  
타임런(부평점) 070-7516-4545  
백개통(부천점) 032-662-0686  
백와치(청주점) 043-223-1333  
타임봄(부산점) 070-7530-1219

덕천시계(부산점) 051-333-8849  
M B K TIME(부산점) 070-8200-2234  
교보문고(대구점) 053-256-1575  
삼성사(대구점) 053-422-3002  
엘가시계(대구점) 053-255-6940  
엘가시계(구미점) 054-451-6940

# Circus M

A MAXIM VIEW OF  
THE WORLD

세상에... 이만한 걸  
달고 대셨어?

## MAXIM이 추천하는 최강 여름 보양식 수소 교환 요리

원기도 회복하고, 정력도 보충하고!

BY 손안나

날붙잡은  
이런  
맛이라우



# aximus



## 소아그라를 아시나요

물풍선같이 생긴 이  
낮익은 물건(?)의 정체는  
수소의 고환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광받는 영양 만점 보양 재료로,  
즐거하게 씹히는 육질이 특징이다.  
미국 텍사스 주에선 여기에 레몬과  
울나무로 양념해 먹고, 캐나다에서는  
작게 썰어 튀겨 먹는데, 그 맛이 '굴'  
과 비슷하다. 과거 중국 황실에서  
내려오는 소 고환 불도장 요리 '단왕예'  
도 전통 보양식으로 잘 알려진 음식.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해  
정력에도 그만이다. 18남 4녀를 둔  
정력왕 세종대왕도 '우랑탕'을 즐겨  
먹었다는 걸 보면, 왜 이걸 '소아그라'  
라고 부르지도 알 것 같다. 입 안에서  
말캉말캉 씹히는 맛이 일품인 우랑탕은  
지금도 시골 장터나 소 시장에 가면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폭폭 찌는 더위에 기력은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 우랑탕으로 원기  
보충하고 10분만에 여친한테 힘 자랑 좀  
해보라구요 

### 집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는

#### 소 고환 요리 - 편육

- 1 소 생식기와 소 고환을 소금으로  
비벼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소 생식기는 세 토막으로 잘라놓는다.  
참참참
- 2 솥에 넣고 물을 부어 푹 삶는다.  
너무 오래 삶으면 다 녹아버리고,  
덜 삶으면 딱딱해지니(응?) 주의하자.
- 3 완전히 삶아졌으면 건져내서  
식히고, 어슷하게 썰어 접시에 예쁘게  
담는다.
- 4 간장에 다진 파와 마늘, 깨소금,  
설탕, 식초, 후추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 5 시원한 얼음 막걸리를 곁들이면,  
더욱 깊은 소 고환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 전격 오작 배틀!

건우와 직녀의 전용 셔틀  
 까치와 까마귀의 전격 스펙 대결! BY 조종재

새 우습게  
 보지 마라



까마귀 노는 곳에  
 까치가 가지 마라.  
 X된다.

X까치 굴면  
 X까치 발라버린다.

#### 까마귀(CROW)

최고 비행 속도 96km/h  
 몸길이 50cm 날개길이 32~38cm  
 번식력 연간 알 4~5개 산란  
 생활 양식 대규모 무리생활  
 흥조로 알려진 것과 달리 성격이 소심하고 운순하다. 일반적인 새대거리와는 달리 지능이 우수하며 도구 사용에도 능숙해 높은 곳에서 돌을 투척할 수도 있다. 특히 조직적인 무리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대규모 무리 안에서 뺨서를 급 막내부터 지휘관까지 두루 체계가 잡혀 있다. 몸을 사리는 편이라 원거리에서 똥을 싸지르는 맞춤형 저격용 주로 구사한다.

#### SPECIAL MOVES

- 적의 얼굴을 평생 기억하는 기억력
- 자신과 관계없는 동족도 싸움에 동원하는 섭외 능력
- 무리 속 정보 교환을 통해 처음 본 적도 인식하는 학습 능력

🔴 IN FICTION <영리한 까마귀>라는 이름 우화에서는 호리병에 든 물을 마시기 위해 조약돌을 넣는 천재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요즘 도시에 사는 까마귀들은 자동차 바퀴 아래에 단단한 먹이를 끼워 두었다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이용해 부수 먹을 정도로 똑똑하다고.

#### 까치(MAGPIE)

최고 비행 속도 50km/h  
 몸길이 45cm 날개길이 19~22cm  
 번식력 연간 알 5~6개 산란  
 생활 양식 소규모 무리생활  
 빈가운 손님을 부르는 정갈한 삐리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성질이 더럽다. 화끈한 몸통 박치기가 주특기로, 한 번 적으로 돌리면 거침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운무부 박사라도 소용없다. 하지만 기동성이 낮아 강력한 기습성 선빵을 날려야 승산이 있다. 패싸움에 강해 한 번 뭉치면 조류계의 김창렬이라 불리는 황조롱이마저 허를 내두를 정도라고.

#### SPECIAL MOVES

-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변별력
- 육탄전에 특화,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돌격 능력
- 거울이나 유리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자가 인식력

🔴 IN FICTION 우리 선조들은 이미 철저한 생물학적 고증을 통해 까치가 대거리로 종을 처 꽃뱀에게 먹힐 뻔한 선비를 구해주었다는 전래동화 <은혜깊은 까치>를 만들었다. 근데 박치기로 종을 울릴 수 있을 정도면 꽃뱀 정도는 그냥 발라버릴 수 있었겠는데?

### 오작교 형제들의 활약상



국조(國鳥)라면 모름지기  
 까치는 1964년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나라 새 뽑기' 경연대회에서 총 22,780 표 중 9,373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콘도르는? 알바트로스는?



소원을 들어주는 까치털  
 까치의 깃털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설이 있다. 올 여름 한철 장사 어때? 한 마리만 잡아도 깃털이 몇 칸데...



그저 돌연변이  
 2012년 7월, 강원도 정선에서 천 년에 한 번 나온다는 전설의 흰 까마귀가 발견됐다. 백의 민족, 흰 쌀밥, 흰 까마귀 등등... 우리 나라 사람들 하얀 거 참 좋아해. 아, 백마도...



하늘에서 똥이 내린다면  
 2012년 2월, 캘리포니아에서 수천 마리의 까마귀들이 갑자기 나타나 도시를 똥으로 뒤덮었다. 김태촌의 피바다, 김정운의 불바다에 맞먹는 공포의 똥바다 그 자체였다고.

# SUPERSTARI<sup>★</sup>

슈퍼스타아이



**365 on SALE**

하루 하루 바뀌는  
유행과 스타일에  
지친 남자들 에게  
언제나 파격적인 가격과  
퀄리티 높은 옷을 위한 공간

[www.superstari.co.kr](http://www.superstari.co.kr)

맥심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10% 할인혜택  
**49C2-A799-EFBD-A338**

슈퍼스타아이 홈페이지 방문 후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전상품 이용가능합니다





## 세기의 미친 결혼식

호적에서 자기 이름 파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 1 돌고래와 결혼한 여자

2006년 이스라엘에서 41세의 샤론 텐들러라는 여인이 열다섯 살 된 돌고래 신디와 결혼식을 올렸다. 샤론은 자신이 신디와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고 주장하며, 둘의 관계는 절대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부싸움이라도 한다면 강력한 초음파 배틀이 펼쳐지지 않을까.

### 3 에펠탑과 사랑에 빠진 여자

에리카라는 여인은 2007년 파리를 여행하다 에펠탑과 결혼했다. 그녀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법에 따라 개명해 현재는 '에펠 여사'라 불린다고, 심지어 전 남친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활약하던 '양궁' 군이었다고 한다. 아마 그녀도 얇고 긴 녀석은 원치 않았나 보다. 확실히 에펠탑이 굵고 길지 암.

### 2 베개와 결혼한 남자

대한민국의 28세 청년 이진규군은 미소녀 캐릭터가 그려진 일본식 전신 베개와 결혼해 화제가 되었다. '오덕 페이트'로 유명세를 탄 그 남자 맞다. 신혼 여행 내내 베개를 끌어안고 있었다고, 나를 일본 여자와 국제결혼을 했으니 정준하, 김정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군. 같이 목욕할 땐 커버 벗겨서 빨래라도 하나요?

### 4 자기 자신과 결혼한 남자

중국에 거주하는 39세의 류예라는 남자는 2007년에 자신을 찍은 실물 사이즈의 전신 사진과 결혼했다. 왜 그만 짓을 했냐고 묻자, "나 자신과 결혼함으로써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기 때문에"라 대답했다고, 첫날 밤부터 사진과 오른손과 격렬한 쓰러성을 펼쳤을 그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게 뭐야 대체...

### 아들 낳을 확률 올리기

아들 키워 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지?



분유나 한 잔  
말아와.

의학 박사 탄버르 후세인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 시술의 일종인 '착상 전 유전적 진단'이 지금으로선 가장 확실한 기술"이다. 방법은 이렇다. "우선 의사한테 정자를 '예금'해 둔다. 그러면 의사가 이것을 아기 엄마에게서 채취한 난자와 수정시킨다. 수정란 중 Y염색체를 가진 것만 선별한 후 엄마 자궁내로 다시 넣어 착상시킨다." 비용은 2천만 원 정도다. "축하합니다, 빛덩어리가 태어났어요!"



## 도전! 나도 야설 작가!

현실을 능가하는 사랑이 여기 있다. 이 야설 플롯 제조기만 있음 당신은 이미 야설계의 이문열.

(1) (2) 가(이) (3) 을(를) 숨기고 (4) 을(를) 만나 (5) 을(를) 마친 후, (6) 할 수 있게 되었다.

1	2	3	4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으로 억압된</li> <li>- 3번의 이혼을 경험한</li> <li>- 약물 중독의</li> <li>- 무정부주의자</li> <li>- 섹스에 굶주린 뜨거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거진 에디터</li> <li>- '도'를 찾는 광신도</li> <li>- 욕구불만 여 사감</li> <li>- 낙타 농장 여주인</li> <li>- 국정원 비밀 요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두운 비밀</li> <li>- 폐북 아이디</li> <li>- 야토피</li> <li>- 강원도 스투리</li> <li>- 실은 남자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낯선 여성</li> <li>- '춘봉'이라는 이름의 남자</li> <li>- 한물간 왕년의 축구 스타</li> <li>- 귀찮은 텔레마케터</li> <li>- 기괴하게 움직이는 섹스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끝도 없는 섹스</li> <li>- 30일간의 국토대장정</li> <li>- 알 날기</li> <li>- 알랑 쇼핑물 운영</li> <li>- 사라지는 마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시 사랑</li> <li>- 능숙하게 69를</li> <li>- 애널 섹스를</li> <li>- 애널 섹스를 좋아</li> <li>- 애널 섹스를 사랑</li> </ul>



그가 그녀를  
잡을 수 없는 이유는...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한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AXIM AWARD

### 이달의 추락자

인간만사 새옹지마.



1

#### 1위: 마르코

미녀 골퍼 안시현이 남편 마르코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딸이 방바닥에 소변을 보자 안시현이 마르코에게 휴지를 달라고 한 게 폭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이 사건 이후로 예전 부부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결혼 후 아내가 너무 달라졌다", "아내의 과거가 의심스럽다", "절대 운동 선수와 결혼하지 마라"고 한 그의 발언들이 다시 화제가 됐다. 신고 당시 안시현은 처벌을 원했으나 언론 보도 이후 불처벌 의사를 밝혔다. 마르코의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 번 일 이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집 근처 물놀이장을 찾았다고, 골프채로 머리통을 날려버리지 그랬어.



2

#### 2위: 송대관

송대관 부부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대관 부부의 권유로 부동산 사업에 3억 7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돈을 떼인 캐나다 교포 A씨가 이들을 고소한 것. 언제 갚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송대관은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보니 그덕 사모님은 10억짜리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도 낸 적 있는데, 치료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나?

3

#### 3위: 가비앤제이 노시현

가비앤제이 노시현이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남 신사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30만 원 상당의 옷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혐의다. 소속사 측은 그녀가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며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5

#### 5위: 배우 김사랑

웬지 쓸쓸해 보여.



4

#### 4위: 박근영 심판

KBO 박근영 심판은 15일 잠실구장에서 있었던 LG와 넥센의 경기가 무척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다. 명백한 아웃상황을 화끈하게 세이프로 외쳐서 경기의 승부를 바꿔버렸으니 말이다. 야구팬을 호구로 아나...



미 들 급 세 계 챔 피 언 전

UFC<sup>®</sup> 162

앤더슨 실바

SILVA vs

크리스 와이드먼

WEIDMAN

7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수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수퍼액션  
공식블로그



# Circus Maximus Noodle



## 라면 먹여주는 남자

파스타만 외쳐대는 여자 친구도 냉면을 사달라고 조르는 여름, 하지만 당신은 팔도 비빔면 외에 아는 것이 없다고? 그런 당신을 위해 누들러가 라면 마루타가 되어주겠다. 네, 저희 점수는요...

BY 라면 전문 리뷰어 누들러(blog.naver.com/noodler)

### 풀무원 골뱅이 소면 1,700원



바르샤에 푸울이 있는 것처럼, 라면 업계에는 풀무원이 존재한다. 푸울과 풀무원의 공통점이 있다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푸울의 머리와 풀무원의 면발 또한 튀기지 않았다. 골뱅이 소면은 일단 튀기지 않은 탱탱한 면발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혀를 공략한다.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달지도 않은 담백한 소스는 팔이 부러진 환자도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게 한다. 상식을 뛰어넘는 미세한 사이즈의 골뱅이와, 다소 비싼 가격이 아쉽지만 분명 매력적인 여름 라면이다.

### 오뚜기 옛날 잡채 1,300원



잡채의 맛은 훌륭하게 재현하였으나, 여자 친구가 당신의 죄를 추궁할 때만큼 면발이 질긴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움큼 먹고 있노라면 할머니가 잡채에 미친 듯이 넣어주시던 건더기가 그리워진다. 최초로 오뚜기에서 이 제품을 출시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복잡한 잡채를 간편하게 라면처럼 끓일 수 있게 해주면, 분명 엄청나게 잘 팔릴 거야 하하하!"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 하하하! 잡채를 먹고 싶으면 돈을 조금 더 얹어 동네 반찬가게를 찾는 게 낫다.

### 농심 동지냉면 비빔냉면 1,200원



매년 여름이면 TV에서 연신 광고를 틀어대는데도 누들러 주변에 이 라면을 먹어본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농심의 노하우가 가미된 면발은 탄력 넘치나, 조미료를 덕지덕지 넣은 동치미(를 가장한) 육수는 식상하기 짝이 없다. 거기에 육수를 차게 해주지 않으면 자칫 냉면이 뜨뜻미지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고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냉면처럼 보이지만... 이놈의 세상이 사실 그렇고 그런거 알지 않나? 제목만 보고 덜컥 다운 받았다가 화면 속 그녀의 얼굴에 실망해 내렸던 바지를 주섬주섬 올린 지난밤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

### 샘표 바로 먹는 비빔국수 1,450원



식용유 만드는 회사 샘표에서 만들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끝 맛이 개운치 않다. 덕분에 텁텁해진 양념장은 먹는 이로 하여금 슬픔에 잠기게 한다. (김면발은 오래 전 초등학교 6학년 형들한테 뺨 든 기억이 떠올랐다. 죽빵은 죽빵대로 맛고, 돈은 돈대로 뺏겼었지...) 면발의 경우, 끓이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훌륭한 맛을 낼 수 있지만, 역으로 따지면 그만큼 일반 양면이 맛을 내기 어렵게 만들어졌다. 제야무리 공 잘 친다는 호날두도 위닝에서 골키퍼로 설정해두면 능력이 50이 안 된다. 샘표는 그냥 간장이나 식용유에 주력하자.

## 비빔냉면 양념장 만드는 법

MMNM(Morning Masturbation, Night Masturbation)를 매일 할 정도의 근성이 있는 녀석이라면 아래에 있는 재료들을 신나게 비벼보라.



- 고춧가루 1/2
- 고추장 4큰술
- 작은술
- 사이다 2큰술
- 식초 3작은술
- 식초 2큰술
- 설탕 3큰술
- 물엿 1/4큰술
- 소금 1작은술
- 다진마늘 1작은술

학현..  
결론: 미안, 그냥 사 먹자.

레전드 라면 조리법 3



# 비키니보다 아찔한 피부 만들기!

기다리던 휴가, 탁 트인 바다, 그리고 여자. 그런데 난 여드름 난 군인?

## 휴가 나온 병장의 슬픔

친구들과 바닷가에 누워 비키니 입은 여자들을 훑어보며 온몸으로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어. 삼질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과 햇볕에 그을린 섹시한 피부는 해변의 섹시한 여자들에게 어필할 강력한 나의 매력 포인트. 갑장의 힘을 빌려 기력까지 준비 완료.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어나처럼 해변에서 여자들을 한창 사냥 중이었는데... 숨 막히는 위태를 뿔내던 그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난 지나가던 짬 타이가 됐지 뭐야. “어머~ 이 오후 아직 군인인가 봐, 여드름 봐~” 그녀의 말 한마디에 나도 울고 하늘도 울었어. 아, 슬프다!

## 군인인 것도 서러운데!

지난번 휴가 때 친구 녀석에게 조르고 즐라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의 표정이 퐁 씹은 표정이었어. 친구 녀석이 그러더라고, 그녀가 딱 한 마디 했는데, 군인인 건 둘째 문제고 피부에 생긴 여드름

를 흉터 때문에 더러워 보인다는 거야. 대한민국 국군의 패기로 뜨거운 사랑을 꿈꾸던 내게 그녀는 모욕감을 줬어! 군인인 것도 서러운데, 피부까지 말썹이라니. 남자도 피부가 잘나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아... 이 지긋지긋한 여드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

여드름에도 계급이 있다. 사제의 피부를 되찾고 싶은 상처 받은 영혼을 위해 MAXIM이 준비했다. 군대 휴가를 맞이해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필살 비법, SL흉터재생술! 더 이상 여드름 피부를 방치하지 말고 휴가 기간 동안 비키니보다 아찔한 피부를 만들어보자!

제 피부 구멍은  
머털로 메꾸니까?



## 도움말 주신 분

손철훈 원장  
한의원 전문의  
진료 분야:  
여드름, 여드름 흉터



- 한의원 원장
- 한의학 박사
- (피부카리스마) 저자
- 前 대한스포츠 한의학회 회장
- 경희대 한의과 대학원 겸임 교수
- 예스킨아카데미 공동 대표

##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님이 말하는 아찔한 병장 피부 비법 대공개!

Q. 아찔한 피부를 위해 SL흉터재생술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A. 피부 트러블의 90% 이상은 여드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여드름 흉터는 깊이나 모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흉터 하나하나 치료를 달리 진행해야 합니다. 여드름 흉터 맞춤형 치료를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SL흉터재생술입니다.

Q. SL흉터재생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A. SL흉터재생술은 흉터마다 방향과 깊이를 달리해 새살이 차오르게 하는 시술법입니다. 프락셀이나 기존 MTS 시술처럼 흉터 전체에 자극을 주는 시술과는 전혀 다른 시술법입니다. 또 SL흉터재생술은 생약 재생물질 SLI09를 사용해 체내 콜라겐 성분을 자극하여 기존 치료법보다 2~3배 많은 새살을 만들어 냅니다.

Q. 휴가 때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A. 일주일 정도의 휴가라면 SL흉터재생술 시술과 피부 재생 관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SET 수술만으로 피부의 새살이 50% 이상 차오르기 때문에 휴가를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시술을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Q. 군인들이 쉽게 참고할 만한 관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A. 아무래도 군인이라면 부족한 수면 시간과 훈련,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피부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위장크림 또한 피부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는 한 요인입니다. 위장크림을 바르기 전에 저의 한의원에 있는 예피고와 같은 여드름용 크림을 사용하면 피부를 좀 더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식습관, 충분한 수면과 같이 사소한 피부 관리 하나부터 꾸준히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before & after

오른쪽 얼굴



왼쪽 얼굴



# Circus Maximus

## 24 Hours to Live

Uurrrghhh



# Simon Pegg

〈새벽의 황당한 저주〉의 주연이자 영화 〈스타트렉 다크니스〉의 '스코티' 사이먼 페그. 이젠 전능하신 신께 그를 텔레포트 할 차례다.

세상 하직할 계획은 세워됐나?  
빠르게 획 죽고 싶다. 별풍별에 맞아 죽는 것도 괜찮겠군.

그렇게 갑자기 죽으면 좀 억울하지 않겠나?  
여하튼 그런 급작스러운 죽음을 원한다. 이 코너에 어울리는 답변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누군가 나한테 '24시간 세람'을 주사해줬으면 좋겠다. 주사를 맞으면 오늘이 세상 마지막 날인 것처럼 24시간 질펀하게 노는 거다. 그 후엔 주사가 내 생명 스위치를 꺼주는 걸로 마무리.

자, 임종의 시간이 왔다.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백할 말이 있나?  
"나는 그놈 섹스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

그것 참 슬픈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에 흥행 대작 〈스타트렉 다크니스〉에서 스코티 역할을 또 다시 맡는 기쁨도 누렸다. 영화 속 캐릭터 스코티처럼 스스로를 우주 어디에선 전승할 수 있다면 어디에 가고 싶나?  
사실 난 지구라는 행성 바깥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감도 안 오는데, 간단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좀?

아니, 기껏 간다는 곳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란 말인가?  
그래도 아마 정말로 거기에 가면 눈일이고 내장이고 다 터져 나올 거다.

그럼 지구상에서 어느 한 곳에 마지막으로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딜 갈 텐가?  
그냥 내 지리적 지식의 한계 내에서 대답하자면 호주다. 고향 영국에서 호주까지 짜증나게 멀긴 하지만, 나는 호주를 사랑한다.

친구와 함께 동네에서 준비를 신나게 해치우는 코믹 호러 영화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정말 수작이었다! 만약 당신이 준비가 된다면 누구를 찾아갈 텐가?  
전에 한 번 NRA(전미 총기 협회) 회의장에서 좀비로 눈뜨고 싶다고 말 한 적이 있다. 오래 살아남지는 못하겠지만, 회의장 안에 있는 모두가 법석을 떨면서 자기 손에 쥔 권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장면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

또 다른 코믹 액션 영화 〈뜨거운 녀석들〉에서는 검거율 400%의

열혈 경찰 역을 맡았다. 살면서 체포당해본 적이 있나?  
몇 번 있긴 하다. 근데, 아... 좀 복잡하다. 이 자리에서 말할 내용은 아니다.

소심하긴. 그렇다면 죽기 전에 아구창을 한 방 날리고 싶은 인간이 있다면 말해보라.  
많다. 하지만 폭력은 폭력을 부를 뿐이다. 누군가 자기 아구창을 때리면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가는게 당연하잖아?

글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이진 않을텐데... 당신 보기보다 거친 남자였구만?  
아니라고? ㅎㅎ. 물론 나도 열 받을 때마다 사람 치고 그런 인간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는 어떤 걸로 하고 싶나?  
뉴욕의 피자가 먹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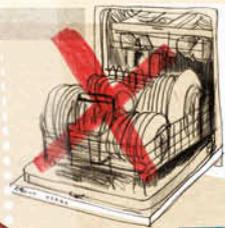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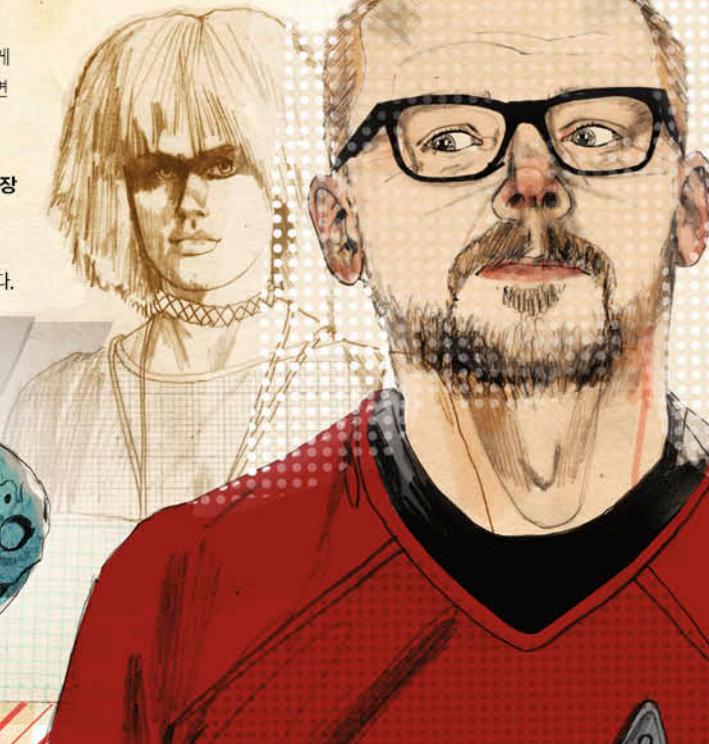
살아있는 동안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탕진했나?  
나 자신.

오늘 죽으면 다시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속이 후련한 일이 있다면?  
식기 세척기 비우기.

어떤 여자랑 자는 게 꿈이었나?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대릴 한나. 같이 자연 재밌을 것 같다. 그녀가 나를 허벅지로 옥죄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아니다, 그것도 재밌긴 하겠다.

사람들이 당신의 관을 보고 뭐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나?  
"멋진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마디를 남긴다면? 〈스타트렉〉의 명대사인 "전승해줘, 스코티(Beam me up, Scotty)!"를 외칠 텐가?  
스코티가 난데 왜 그런 소릴 하나. "전승해줘, 나!"라니 상상만 해도 오그라든다. 마지막 말은 아마 이거겠지. "별풍별에 맞아 죽다니, 이게 웬 X같은 일이야?!"



전승해줘, 스코티!



# 잘 먹어야 남자다임



배달의 습관을 바꾸는 앱

**배달의민족**

### 麥心

BY 카투니스트 굽시니스트

##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범 장영자

아오!! 돈 좀 억 단위로 만져 보려면 사기라도 거하게 쳐야 되나?!

사기로 돈 모으기라면, 단군 이래 최대 스케일의 사기가 있지요.

카드명세서

공익이- 공익이- 플스쿨~

장영자는 유복한 집안 태생으로 언니가 손통의 처숙모, 외사촌언니가 DT의 전처.

언니들 먹 좀 보려나.

대학시절 메이퀸으로 뽐힐 정도로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각앓음.

하지만 결혼적 남자운이 없었지-

2번의 결혼 실패후-

중앙정보부 차장출신 국회의원 이철희와 결혼.

21살 연하야? ㅋㅋ

이들 부부가 사업을 하면서- 일단 은행에서 언니 백과 거액에치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저리로 대출.

아휴, 청와대 친목질 좀 갈 부락 드려염

그리고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거액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빌려준 액수의 2~9배의 어음을 받음.

그냥 담보일 뿐이니까 맘 편히~

그리고 그 어음을 사채시장에 헐값에 팔아치움.

이거 나중에 현금화하면 엄청 남는 장사라니까?

200억 대출 은행

200억 대출 기업

300억 원에 어음 매입 사채시장

그 돈 은행에 예치

그 담보 어음값

담보로 400억 어음

레드와인 샤또마포 Chateau Mapo 1982년산 ₩390,000

저런 식으로 돈 꺾주고 어음 팔기를 반복 하면서 모은 돈이 82년 당시 6천억 원!! (지금 가치로 약 6~10조)

부동산, 고미술품 등을 어마무지하게 사들이고 남은 돈은 주식으로 다 날림.

대기업 월급이 30만 원 시절.

축의금은 기본이 1억이거지!!

결국 2개월만에 다수의 기업이 도산하고 장영자 부부와 은행장, 기업가 등 32명 구속.

당시 정권을 뒤흔든 스캔들로 대통령 처갓집이 작살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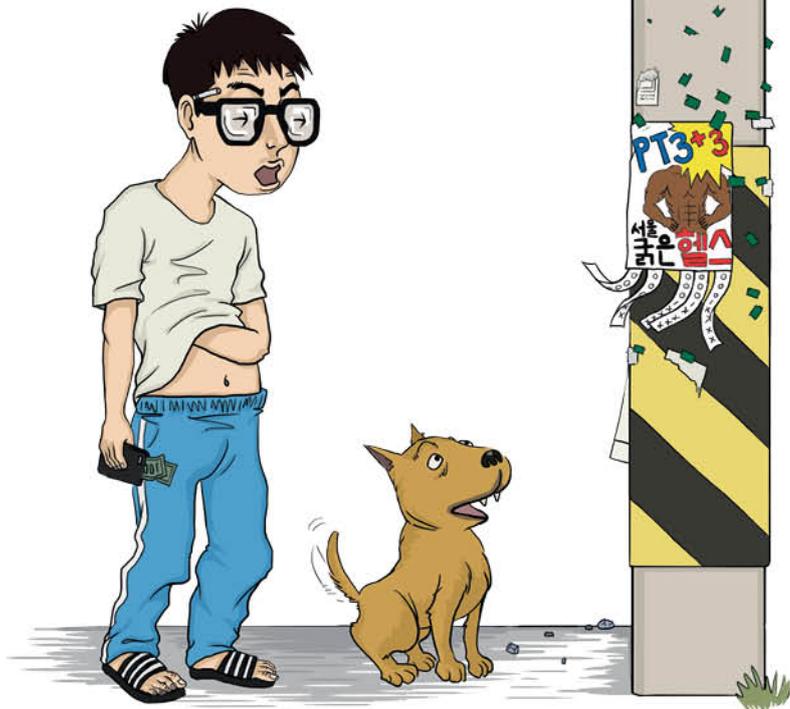
장영자는 출소 후에도 또 사기 치다가 두 번 감혀들어가서 지금도 복역 중임.

지금 재산도 천억대라던데 그냥 조용히 살지...;

천만 원 가진 사람이 1억 바라는 것보다 천억 가진 사람이 1조 바라는 열망이 천 배 더 강하답니다.

# 안경 없이 빛나는 진격의 쌍얼, 너도 할 수 있다!!!

워터파크 가려고 운동 중이지?  
운동전에 이거부터 읽어봐.



한 손에는 담배, 한 손에는 지갑을 들고 편의점으로 향하는 야밤, 동네 전봇대마다 붙어 휘날리는 PT 3개월+3 진단지의 물결, 조심스레 다가가 물어발처럼 나무끼는 헬스장 전화번호를 떼본 경험이 있지? 떼본적은 없어도 진단지 속 번쩍이는 구릿빛 복근을 뽐내는 그 모습에 내 얼굴을 초고속 합성해본 기억은 있을걸?

여름이 되면 21세기 에텐동산이라 불리는 그 이름도 찬란한 워터파크에서 합법적으로 남녀가 서로를 스캔할 수 있는 미풍양속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서로 보여주고 보는 그런 훈훈한 상부상조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다. 고로 그저 하루 종일 수영장에 드러누워 콜라에 빨대 꽂아 쪽쪽 빨며 선글라스 너머 눈알을 초고속으로 굴리며 여자를 감상만 하는 건 도리에 어긋난다.

뜨거운 여름을 더욱 훈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관리된 보디와 페이스 들이밀기가 필요하다. 기나긴 가을과 겨울, 봄을 거쳐 무림을 평정하기 위해 수없이 검을 갈고 허공을 가르는데 그런 무사의 심정으로 가뻐야 하단 말이다. 하지만 정신 차려보니 벌써 7월, 이제 와서 PT3+3 끊어봤자 어느 세월에 울끈이 불끈이가 나오겠으며 어느

세월에 혼남 얼굴 되겠나(어차피 6개월 끊어놓고 3번 갈 거잖아). 보디가 흉물하지 않다면 일단 간지 나는 흰색 브이넥 티로 가려줘도 이해한다. 그럼 얼굴은 어찌할 것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워터파크 중스에서 빼놓지 않고 지켜야 할 예의는 바로 눈알은 선글라스 너머로 굴려야 한다는 것. 대놓고 선글라스 없이 희번덕이며 민망한 상황은 만들지 말자. 그러니 요즘 선글라스는 머스트 헤브 패션 아이템이겠지? 그런데 그대 혹시 안경 끼는가? 안경 위에 선글라스 올리고 들었다 내렸다가를 반복하며 '오~~~' 탄성만 지르면 은팔찌는 들쭉 치고 그 형상이 매우 찌질하다.

몸 만들기에 초단기 속성은 없다. 그래도 얼굴은 초단기가 된다. 성형을 생각한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안경 위에 선글라스 없고 추접스런 것 정도는 안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지나가는 친구 붙잡고 물어보면 그 중 두 세 명은 꼭 했다는 그것! 바로 안과 가서 광명 찾는 라식, 라섹이다. 요즘 안과를 가보면 훈훈한 여름풍습을 이어나가기 위해 얼굴을 업그레이드 하러 온 수많은 동지들이 있다. 그렇기에 안과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단기속성 비주얼 업글 프로젝트, 당신도 할 수 있다!

## Dr.K 김성일 원장의 훈훈한 MAXIM진료실

훈훈한 외모에도 MAXIM을 정기 구독하며 요즘 시대의 트렌드까지 완벽하게 섭렵하는 김성일 원장. 형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안경남들의 고민거리를 상담해주려 그가 왔다.

헤이 브라더~  
LISTEN!



도움말: 서울밝은안과 김성일 대표원장

Q: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의사 형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A: 허허, 그러세요. 대신 길에서 손가락질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길에서 알아보고 "어? MAXIM에 나온 그?"라고 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MAXIM 커버 모델 중에서 최강은 누군지 겨뤄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근데 형보다는 'BROTHER'가 좀 더 있어 보이네요.

Q: BROTHER! 방학하고 수술할건데, 아프지 않을까요?

수술하는 것 자체는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라식은 거의 아프지 않고 마취가 풀리면서 약간 시릴 수 있으나 하루 정도 후에는 깨끗하게 사물을 잘 볼 수 있죠. 라섹은 수술 후 2~3일 정도 불편할 수 있는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진통제 처방이 들어가거든요. 살짝 '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Q: 전 군인인데 수술해도 될까요?

요즘 대세는 군대 갔다 온 '진짜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휴가 나와서 수술하는 경우도 꽤 많습디다. 저도 남자인지만 군인만 보면 마음이 편하지요. 그래서 수술 전 상담할 때 보직은 뭔지, 수술하고 휴식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물어보는 편입니다. 라식 수술은 워낙 회복이 빨라서 휴가 나와 수술 받고 회복까지 다 하고 약 타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걱정 마세요. 훈련소 가기 전 기분보다 훨씬 안 무서운 수술입니다.

# HOW TO

## Office Life Tip #7. 인사 잘하는 법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일단 인사만 잘해도 먹어준다.

BY 김희성

MODEL 2012 MISS MAXIM 준우승자 엄성미

### 지각했을 때

지각했을 때도 큰 소리로  
활기차게 인사를 하면 될까? 조용히  
들어와 슬쩍 자리에 앉거나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따라 지하철이 밀렸다”고 말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별로다. 이럴 땐 그냥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주변 동료나 상사에게  
인사하며 자기 자리로 가는 게 제일 낫다.  
젍사게 뛰어 들어오며 멧쩍은 듯  
표정 연기를 하면 더 좋다.

### 아침에는 보지 못했던 상사와 오후에 마주쳤을 때

인사는 시간과 상관없다. 상대방을 처음 봤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퇴근 시간 즈음이라도 그날 처음 만났다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안녕하세요"만 발사하는 건 융통성도 친근감도 없어 보인다. "식사는 하셨어요?", "커피 한잔 드릴까요?" 등 '안녕하세요'의 다양한 대체어를 구사할 것.

### 하루에 여러 번 상사와 마주칠 때

복도나 화장실을 오고 갈 때 상사와 여러 번 마주치게 되면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벌써 세 번째 마주쳤는데 못 본 척할까?', '그래도 깎듯이 인사해야겠지?', '아니야, 인사를 자주하는 것도 웃길 거야. 그냥 씩고 같까?' 등등. 민망하다고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싸가지 없는 부하 직원으로 찍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볼 때마다 깎듯이 인사를 하는 것도 인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를 피곤하게 만든다. 아침에는 활기찬 목소리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하루에 두 번 이상 마주치면 허리를 살짝만 숙이며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면 된다. 마음에 드는 여자 상사가 있다면 이때가 바로 눈웃음 발사 타임.

###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이때만큼 민망한 순간도 없다. 하지만 예의차란답시고 시원하게 아랫도리를 오픈한 상사에게 큰 소리로 깎듯하게 인사하는 신입도 많다(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도...). 화장실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눈이 마주치면 살짝 목례 정도만 한다. 여자들에게는 화장실이야말로 평소 어색하게 지내던 여자 상사와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큰 소리로 인사해도 무방하다. 미스터리하게도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친밀감이 싹트고 중요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 How To

## Live Brilliant

### 스타처럼 사는 법

본대 단위의 대포 부대도 몰고 다녔고, 실시간 검색어 1위는 해볼 만큼 해봤어요. 그런 제가 연예인으로 사는 방법, 궁금하지 않나요? BY 구지성

미안, 나 지금 MAXIM 촬영 중이야.



**1 셀카 잘 찍는 법**  
 “셀카의 생명은 브이라인을 만들어 주는 얼짱 각도에 있어요. 카메라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황금 앵글을 찾으세요. 뽀사리한 피부 표현을 위해선 조명도 중요해요. 은은한 ‘카페 조명’도 좋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연광을 강추합니다! 게다가 요즘 카메라 애플은 직접 눈도 키워주고 턱도 깎아주는데요?”

**2 모델처럼 포즈 취하는 법**  
 “하이패션지 모델들의 공통된 포즈! 바로 어깨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여성 독자분들 잘 들으세요! 전 어깨가 넓고 팔이 두꺼워서 팔을 붙이면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땐,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손을 허리 위에 얹어서 팔을 띄워 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으쓱!”

**3 악플에 대처하는 법**  
 “저는 배우가 되기 전에 레이싱걸로 활동할 때부터 안티팬들의 악플은 지겹도록 많이 봤어요. 역시 악플엔 연연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처법 같아요. 무릎이 오하려 더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요? 욕하는 것도 다 관심이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대인배’예요. 대인배.”

희식자리에서 슈퍼스타 되는 법



### 스타가 되고 싶다면 피해야 할 3가지 일단 스타부터 돼야... BY 정민지

#### 1. 과한 컨셉질은 흑역사를 남길 뿐...

2007년 데뷔한 여가수 ‘제노’, 훌륭한 가창력에도 앨범이 망하자 ‘Who Are You? Sexy My Boy’ 라는 테크노닉 댄스곡을 들고 나왔는데, 뜬금없는 여진사 콘셉트와 과한 안무가 보는 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중간에 입을 과도하게 크게 벌리고 ‘베비 와, 베비 와, 베비 와~~~~칭’을 외치는 장면은 네티즌들의 합성 떡밥이 됐다.



#### 2. 과거사 청산은 확실하게!

2010년 티아라 소속사에서 아심 차게 내놓은 남녀 혼성그룹 ‘남녀공학’. 그러나 멤버 중 한 명인 ‘열혈강호’가 미성년자 시절, 몰래 야주 따고 놀던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웅단폭격을 받았다. 얽힌 데 덮친 격으로 학창시절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헛소문까지 퍼지게 됐고, 열혈강호는 결국 데뷔한 지 1년 만에 탈퇴 당했다.



#### 3. 첫 작품이 망하면 회생 불가!

한때 신비로운 TTL 소녀로 주목받았던 눈이 큰 아이 임은경. 최대의 망작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 풀막 망하면서 그녀의 필모그래피도 꼬이게 된다. 이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출연한 <여고생 시집가기>도 거하게 실패하고... 그녀는 그렇게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TTL이 OTL 됐음...

날 갖고 싶어?

일요일 3시,  
위험한 최면이  
시작된다

육감공포 스릴러

# 꼭두각시

6월 20일, 금기의 공포를 만난다!

꼭두각시  
영화 예매권  
쏟다!



# How To Exorcist

## 귀신 들린 여친 다루는 법

 도깨눈을 뜨고 바가지를 긁어대는 여자 친구만큼 무서운 존재도 없다. 요즘 들어 그녀의 히스테리가 더 심해졌나? 어쩌면 그녀는 정체모를 악령에 사로잡힌 건지도 모른다. BY 손나나

귀신 들린 남친 다루는 법



### 좀비 여자친구

**Q:** 요즘 편다 메이크업이 유행인가? 여친의 다크써클이 쓰촐 성 편다 마냥 짙어졌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물어도 씩고, 도사견처럼 그르르릉 거릴 뿐. 행동은 또 어찌나 굼뜨지 약속 장소에도 1, 2시간은 기본으로 늦는다. 근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구부정한 포스로 천천히 걸어오는 괴락서니를 보노라면 정 떨어질 판이다. 심지어 요새 비슷한 다크써클의 친구들과 때 지어 물러다니느라 나파위는 안중에도 없다. 하아...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A:** 이젠 전염성이 커서 어쩔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녀와 이별할 차례다. 당신이 군인, 경찰관 혹은 총포상이 아닌 이상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어려운 법. 게임에서 보던 원샷 원킬 샷건은 포기하고 공구를 이용하자. 좀비 소설 <세계대전 Z>에서도 메인 무기가 아삼이었다.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망설이지 말고 삽으로 그녀의 머리를 정확하게 내리쳐라. 이별은 신속하고 깔끔하게.



### 뱀파이어 악혼녀

**Q:** 나와 혼전순결을 약속한 악혼녀. 그녀가 한 달 전 옆집으로 이사 온 창백한 유럽 남자와 어울려 다니더니 이상해졌다. 웨딩드레스를 입으려면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밥도 안 먹고 연신 빨간 주스만 마셔댄다. 그리고 밤만 되면 묘사시하게 핏빛고는 입술을 핏고 온몸을 비비 꼬아대며 나를 유혹한다. 복에 겨웠다고? 난 우리의 첫 경험이 좀 더 특별했으면 좋겠다고!

**A:** 나쁜 소식 두 가지. 먼저, 그녀는 옆집 유럽 놈과 잤다. 더 나쁜 소식? 당신 여친은 이미 그놈한테 물렸다. 인간 여자가 뱀파이어의 유혹에 안 넘어갈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낮다. 순진한 그녀가 나무토막은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니 다행이지 않나? 게다가 빠는 건 또 얼마나 잘하겠어. 축하한다. 그녀와 결혼해서, 남들 깨소금 볶을 때 당신은 선전국 보글보글 끓여 넘치는 신혼 생활을 만끽하라. 가끔 헌혈의 집을 털어서 포식을 시켜준다면 사랑받는 남편이 될걸?



### 악마 들린 동거녀

**Q:** 3년 사귄 그녀가 낮설게 느껴진다. 시도 때도 없이 사탄에 대한 말을 늘어놓고, 바지 지퍼를 올리다가 거시기라도 강긴 사람처럼 욕지거리를 해댄다. 부대찌개를 무한 공급받는 소방호스처럼 계속 오바이트를 해대는 모습은 또 어찌나 역겨운지 가끔은 허리를 반으로 잡고 “자기, 아직도 나 사랑하지?”라고 말하는데, 어휴... 그녀는 악마에 썬 걸까? 아니면 나와 헤어지고 싶어서 생소를 하는 걸까?

**A:** 잘 됐다. 그녀의 몸은 지금 악령이 들어붙은 내적병의 상태다. 요즘 들어 둘 사이의 관계가 소원했다면 이젠 절호의 기회다. 월요일엔 단아한 조선시대 처녀 귀신, 화요일엔 팜파탈 구미호... 이렇게 매일 각각 다른 여자 귀신을 그녀의 몸에 불러 들여라. 매일매일 여자를 바꿔 만나는 듯한 다채로운 기본을 느낄 수 있을 거다. 허리가 자유자재로 꺾이니까 후배위도 마주보면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 호러 여친을 위한 추천 데이트 코스 3선

좋은 데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이면 오늘은 안 잡아 먹힐 거야...

올자기, 최고



### 좀비 여친♥영안실

뷔페식 영안실에서 신선한 시체를 부위별로 즐기며 맛집 블로거인 척 노닥거리는 것도 재밌다. 아무리 배고파도 음식(시체)을 먹기 전 인증샷은 꼭 남겨야 하는 거 알지? 그렇다고 블로거에 올라지는 말고!

### 뱀파이어 여친♥헌혈의 집

남녀사이가 가까워지는 데에는 역시 마시는 게 최고. 특별한 날, 그녀를 위해 일일 바텐더가 되어 보자. A, B, O, AB. 네 가지 혈액을 그녀의 취향에 따라 섞고 셰킷셰킷.

### 악마 들린 여친♥폐가

오죽 심심하면 그녀가 허구헌날 그렇게 혼잣말을 해대겠나? 이곳에서 장기 하숙 중인 친구들과 수건물리기를 통해 우정을 쌓아보자. 개중 맘이 잘 맞는 '것(사람 아님)과는 블랙 메탈 콘서트도 함께 보러 가고, 뭐, 어차피 초대하지 않아도 알아서 달려 가겠지만!

| 인순이 | 최정원 | 이하늬 | 오진영 | 성기윤 |

# 뮤지컬 시카고

7.6 Sat. - 8.31 Sat. 국립극장 해오름

BROADWAY'S ALL-TIME KILLER HIT



# CHICAGO

THE MUSICAL

## Event

 온라인투어 아시아나항공<sup>7</sup> 과 함께하는 “뮤지컬 시카고 보고, 진짜 시카고 가자!!”

2013 뮤지컬 시카고 공연 예매 고객분들께 추첨을 통해 미국 시카고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시컴퍼니 홈페이지(<http://www.iseensee.com>)를 참조하세요.

## Discount Information

**오픈페스티벌 할인 최대 30%**

7/6~ 7/14 공연 예매시 할인

(VIP · R · OP석 20% / S · A · B석 30%)

**일요일 저녁공연 할인 최대 20%**

매주 일요일 저녁공연 예매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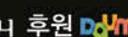
(VIP · R · OP석 15% / S · A · B석 20%)



주최 국립극장



신시컴퍼니 후원



MAKE UP FOR EVER  
PROFESSIONAL - PARIS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Lyrics by Fred Ebb Music by John Kander Book by Fred Ebb and Bob Fosse

# How To

## Space Man



## 우주에서 파티하는 법

닐 암스트롱과 함께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과 AXE 아폴로 스페이스 아카데미가 우주여행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 1 간식을 챙겨라

“로켓이 분사를 멈춘 뒤부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주선은 비행기처럼 기내식을 주지 않는다(물론 예쁜 스튜어디스 누나들도 없겠지). 우주선 안에는 파일럿과 당신 단둘뿐이니 당신이 좋아하는 과자를 가져가서 여색함을 견딜 것. 돌아올 때는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추천한다. 우주선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 4 춤추지 마라

“당신이 클럽에서 아주 끝내주는 댄서를 춘다고 해도 우주에서는 그 실력을 뽐낼 수가 없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아무리 흥에 겨워 굴반을 돌려도 다리를 버둥거리는 자세밖에 안 나올 거다. 우주선 안에서 문워크는커녕 개다리 춤밖에 못 춘단 말이다. 정 춤을 추고 싶다면 반죽로 몸을 바닥에 묶어놓고 팔다리만 흐느적거리든가.”

### 2 여행에 술은 필수다

“커피는 여러 종류를 섞어야 하기 때문에 우주선에서 만들기엔 좀 뻘새다. 과학책에서 봤겠지만 우주에서는 액체가 물방울 형태로 공중에 떠다니기 때문이지. 하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액체 방울들을 입으로 잡아먹는 건 꽤 재밌다. 보글보글 게임 속 공룡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거다.”

### 5 오줌은 참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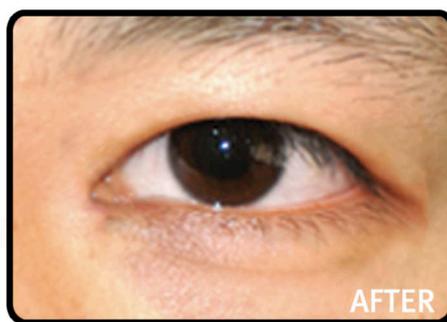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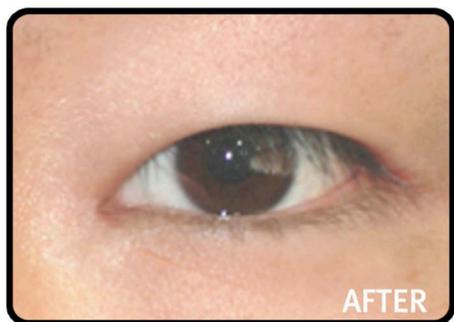
“우주선 화장실은 오물을 모아서 버리는 장치일 뿐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줌을 싸면 그대로 우주에 버려진다. 그리고 어떤 액체든 진공상태에서는 고체가 되기 때문에 5천 년 뒤 후손이 당신의 오줌 조각을 보고 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마 짧은 우주비행 시엔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줄 거다. 다~펜스하세요!”

### 3 핫한 미녀들을 초대하라

“평소 당신이 좋아하던 쪽빵 미녀들을 우주선에 태우자.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남자는 지겨울 정도로 만나봤을 테지만 달나라 우주여행 가자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본 여자는 거의 없을 거다. 그러니 냉큼 따라 가겠지. 게다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당신 키가 조금 더 커진대 진짜 커진다고!”

### 6 우주적인 게임을 하자

“우주 한복판에서 폭죽놀이를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근사하겠지만 우주선에 불이라도 나면 시체도 못 찾을 테니 당연히 폭죽놀이는 금지돼 있다. 우주선에서는 ‘손을 안 대고 과자 먹기’ 같은 게임이 유행인데 이 게임 하나라도 얼마든지 지루하지 않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 우주선이 금방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지만.”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확대 남성 눈 성형술

1. 쌍꺼풀이 생기지 않으면서 자연스런 모양으로 커집니다.
2. 눈을 감고 있어도 수술 흉터가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수술 후 이미지가 지나치게 변하지 않습니다.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발생이나 좌우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성형외과의원

압구정역 4번출구 방향 / 02-3445-4514 / [www.medoctor.co.kr](http://www.medoctor.co.kr)

# Smoke & Drink



## 멕시코 돌는 맥주 칵테일

감칠맛 나는 멕시코풍 맥주 폭탄으로  
여심을 사로잡기 위해 뉴욕의 핫플레이스  
'살베이션 타코'의 믹솔로지스트 샘 앤더슨이 나섰다.  
에브리바디 서머 피에스타!

BY SAM ANDERSON

코믹팔라  
vs.  
섹시팔라



멕시코나 차킨 시켜줌.



### 멕시코 황당 법률

환상과 신비의 나라 멕시코!

- 멕시코 경찰관은 자신의 총을 팔 수 없다. 남의 총은 팔아도 되나?
- 자전거 라이더는 페달에서 어느 한 발도 떼면 안 된다.
- 부활절 주간엔 폭죽을 맨손으로 던져서는 안 된다.
- 공공장소에서 공격적인 인사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불법이다.
- 성직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복장을 해서는 안 된다.
- 모든 남자는 바지를 입어야 한다. 특히 하사관과 신문배달부는 반드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이건... 안 되나요?

### 미첼라다 데 마요 (Michelada de Mayo)

"미첼라다는 만들기 쉬운 멕시코의 고전적인 칵테일이다. 맛이 매콤한데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참고로 칵테일 이름은 멕시코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 '싱코 데 마요'와 멕시코 전통 소스 미첼라다를 합친 것이다. 마요네즈 넣는 거 아니야.

- 미첼라다 소스\* 30g
- 갓 짠 라임 주스 20g
- 라거 맥주 1병

"미첼라다 소스(오른쪽 레시피)와 라임 주스를 잔에 붓고 맥주를 채운다. 각얼음 2, 3개를 넣고 칠리 소금 등을 문헌 라임 조각으로 장식한다."

### \* 미첼라다 소스 만들기

- 마늘 2쪽
- 레드어니언 1개 4등분한 것
- 잘익은 빨간 토마토 4개 다진 것
- 아도보 소스에 담긴  치파를 고추 1캔
- 라임 주스 1잔
- 석류 주스 1/2컵
- 고수잎 1/4컵

"마늘, 양파, 토마토, 치파를 고추 (향이 강한 멕시코 고추)를 후라이팬에서 가열한 다음, 블렌더에 나머지 재료들과 함께 섞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간다. 치파를 고추 소스를 구하기 힘들다면 타바스코 핫소스를 써도 된다."  
진작 좀 말해주지. 장조림에서 풋고추 건지고 있었잖아...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Book, Music & Lyrics by JIM JACOBS and WARREN CASEY

10th  
ANNIVERSARY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2013.08 COMING SOON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 오픈리뷰 1588-5212 |제작| OD 오디뮤지컬컴퍼니 CJ E&M |주관| 오픈리뷰(주)



캡슐, 캡슐을 보자

### 캡슐 담배 해부 실습기



의사는 그의 하반신을 가린 뒤 캡슐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리고  
나지막이 얘기했다. "선생님께서서는 더 이상... 멘솔이 되실 수 없습니다."

BY 조웅재

유혈병자  
무삭제.avi



#### 1 보헴 시가 쿠바나

캡슐 위치: 20.0mm(필터 끝으로부터)

캡슐 색깔: 네이비

필터부터 절개를 시작해 1cm가량을 길게  
그었다. 절개 부위를 열자 숨에 깃든 쿠바나  
특유의 멘톨 향이 은은하게 풍긴다. 하지만  
캡슐은 보이지 않는다. 옆에서 바라보던  
어시스턴트가 식은땀을 흘리며 이야기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전에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숨이 이중으로  
박힌 녀석이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1cm 정도를 더 그어 내려간다. 그러자 잔한  
네이비색을 띤 캡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웃음기가 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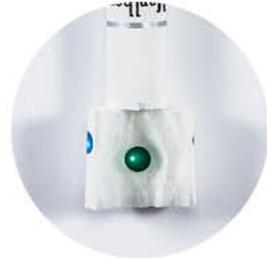


#### 4 말보로 하이브리드

캡슐 위치: 9.6mm, 캡슐 색깔: 녹색

친절하게도 외피에 캡슐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양이 새겨져 있다. 자신감이 생긴 우리는  
필터 부분을 통째로 잘라 들어내기로 한다.  
캡슐 모양이 새겨진 부분만 남겨두기 위해  
칼을 우겨 넣은 순간. 느낌이 좋지 않다.

"무...무슨 일입니까?" 당황한 나는 칼을  
조심스레 빼낸다. 아아, 강한 멘톨 향이 코를 찌른다. "캡슐을 잘라버렸어. 젠장."  
"하...하지만..." 결국 두 번의 수술 결과 우리는 외피에 표시된 곳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캡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상의 문제인가.



#### 2 켄트 Click

캡슐 위치: 11.8mm, 캡슐 색깔: 에메랄드

외피에 새겨진 커다란 버튼 문신이 있는  
지점까지 10mm가량을 갖자 지중해 연안의  
투명한 에메랄드빛 캡슐이 수줍게 머리를  
드러낸다. "예쁜 색이군요. 이런 녀석은 처음  
봅니다." 그가 말했다. "이 녀석은 캡슐을 가진  
1세대 제품이지. 아마도 요즘 대세인 녹색  
캡슐이 나오기 전 모델일 거야." 내가 대답했다. 이런 구형 모델이 아직도 남아  
있다니. 잘 팔리지도 않을 텐데. 속으로 생각했다.



#### 5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캡슐 위치: 10.7mm, 캡슐 색깔: 그린

단단하기로 유명한 팔리아멘트의 외피  
탓에 우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캡슐형인데도 공간 필터가 있어 자칫하면  
칼날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그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조심하십시오, 선생님." 무를 썰  
듯 전후로 칼날을 조심스레 마찰시키자 흰색  
내피가 드러난다. "이 녀석은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군." 그렇다. 외피에  
표시된 캡슐의 위치와 거의 일치했다. 모든 수술이 끝났다. "한 대 태우시죠."  
우리는 마주보고 미소를 띠우며 촬영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 3 에세 체인지

캡슐 위치: 15.2mm, 캡슐 색깔: 연녹색

5mm에 불과한 슬림한 녀석이라 절개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보다 필터가 부드러군요."  
정말이다. 칼날이 단숨에 파고드는 내피는  
여인의 살결처럼 부드럽다. 15mm가량을  
그어 내려가자 기존 캡슐보다 5mm가량  
작은 크기의 연녹색 캡슐이 내피의 흰 빛을  
투명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녀석임에도 광택이 있어. 놀랍군." 이렇게 얇은  
장초에도 캡슐이 들어가 있다니. 과학기술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모양이다.



#### 이 달의 신상 담배

에세 체인지 1mg

세계 최초로 슬림 담배에 캡슐 필터를  
도입했다. 그 동안 캡슐 필터 담배 사이에서  
늘 왕따 취급을 받던 슬림형 담배 유저들도  
드디어 2 in 1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Sexual Tension

아까부터 하고 싶었다. 좀 전에 그녀의 몸짓...  
혹시 너도 나랑 하고 싶은 거야? 대체 뭐라고 말하지?  
아까부터 하고 싶었어. 좀 전에 그가 한 말...  
혹시 너도 나랑 하고 싶은 거니? 빨리 뭐라고 말해줘!

BY 김희성

## 섹슈얼 텐션(Sexual Tension)

두 사람 사이에 '우린 곧 섹스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인지가 있는 상태

섹스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를 '섹슈얼 텐션'이라고 한다. 아직 섹스를 한 상태는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가장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어떤 특정 계기만 있다면 곧장 섹스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지만 둘 중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텐션은 어느 한쪽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양쪽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먼저 말을 꺼내기만 한다면 그동안 무수히 상상하고 꿈꿔온 그 순간이 이뤄질 텐데 여기서 자칫 잘못해 관계가 조금이라도 틀어질까봐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본다. 당신도 그녀에게 안달이 나있고 분명 그녀도 당신과의 섹스를 수락할 마음이 있다.

섹슈얼 텐션을 감지한 여자는 당신과 만나기로 한 날이 되면 혹시 모를 그 순간을 위해 온갖 준비를 하고 나간다. 한마디로 잘 준비를 하고 나간다는 거다.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 마셨는데 그날도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자는

크게 실망하고 민다. 그리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것만큼 속 터지는 순간도 없다. 심지어 그의 집에서 단 둘이 있기까지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녀는 심각해지고 민다. 급기야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남자 분명 게이 아니면 스님일 거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그래서 아는 수컷에게 물어봤다. "분명히 느낌이 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건 왜 그런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거 억지로 참은 거야. 거절당할까봐서 그런 거지 뭐." 아니, 우리가 그렇게나 신호를 줬는데도 못 알아챈단 말인가? 하기가 섹슈얼 텐션이 형성되면 서로 그 분위기를 너무도 잘 감지하고 있지만 혹시나 이것이 자신만의 착각일까봐 지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나 신호를 줬는데도 모르겠다는 남자들이 많아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던 에디터는 여자가 섹슈얼 텐션을 느낄 때 하는 행동 패턴을 12가지로 분류해봤다. 그리고 행동 유형별 당신의 맞춤 공략법도 짜봤다. 그녀가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일 땐 질러도 좋다. 당신이 거절당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니까.



꽃무늬에 레이스는 좀 별론가?

## 1 섹스 이야기를 꺼낸다

대화의 소재로 '섹스'가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이 생긴다. "내 친구가 말인데..." 하면서 일단 남의 섹스 얘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얘기도 남의 얘기도 일단 남녀가 섹스 얘기를 나누면 섹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열린다. 지난번에 얘기했듯 섹스 이야기를 나눈 남자가 실제로 섹스를 하게 될 확률이 90%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남의 섹스 이야기를 하는 걸로는 그녀의 텐션을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녀가 당신의 섹스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면 그녀도 당신을 원한다는 게 100% 확실해진 거다.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당신의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섹스를 감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급기야 최후의 수단을 쓸지도 모른다. 그건 바로 여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는 것. 사실 이런 여자들이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좀체 하기 힘든 얘이기도 하기 싫은 얘이기도 하다. 평소 아한 얘기를 곤잘 하고 섹드립을 잘 치는 여자도 자기 이야기를 함부로 풀어놓진 않거든. 그러니 그녀가 자신의 섹스 이야기까지 했다는 건 '나 너랑 자고 싶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제 150% 확실해진거지 (제발 얘기까진 가지 말아줘).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정말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서 앞으로 당신과 만나기 싫어질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남자 게이인가?', '혹시 무슨 하자가 있는 걸까?' 하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거절당할거란 괜한 걱정에 망설이고 있는 거라면 제발 그녀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전에 어서 행동에 옮겨라.

### EDITOR'S TIP

그녀가 당신의 섹스에 대해 물어볼 땐 진짜 경험담 말고, '난 이거 좋아하는 데 예전 여자 친구는 안 해주더라'는 식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섹스를 이야기하라. 이 얘기를 들은 여자는 맞장구를 치며 "그런 것도 안 해줘요? 잘 해어졌네"라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당신의 옛 여자들을 당신과 함께 흥분 거다. 그리고 당신과 섹스를 하게 되는 순간 당신이 원했던 그것들을 보란 듯이 시전할 거다. 이렇게 그녀와의 첫 섹스부터 힘들이지 않고도 당신의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

## 2 같은 스트로우를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그녀를 커피숍으로 데려가라. 그녀가 거리낌 없이 당신이 마시던 빨대로 음료를 마시는지 아닌지를 관찰하라. 섹스일 텐션이 전혀 없는 상대의 음료에는 다른 빨대를 꽂거나 컵뚜껑을 열고 마시는 게 보통이다. 당신의 침이 묻어 있는 빨대에 거리낌이 없다는 건 그녀도 분명 섹스일 텐션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다. 그녀가 당신의 음료를 마시는 방식에 따라 커피숍 다음 동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EDITOR'S TIP

하지만 그녀가 당신의 음료에 관심을 안 보이면 망망 황이다. 일단 그녀가 시키는 것과 다른 음료를 시켜라. 라떼나 아메리카노 같은 흔한 음료 말고 색깔이 특이하고 예쁜 음료를 시키는 거다. 그러면 분명 "어머, 그거 맛있겠다"며 관심을 보일 거다. 그 때 한 입 먹어보라고 권하면 된다. 매너 지킨답시고 새 빨대를 꽂아주는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그러면 그녀는 당신의 빨대에 입을 대려다가도 당신이 한 빨대 쓰기를 꺼려하는 줄 알고 저만치 물러서고 말지도 모른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이 쓰던 빨대가 꽃힌 채로 음료를 내밀어라.

## 3 반지에 관심을 둔다

원래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여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 반지를 끼고 다니는 여자가 반지를 빼고 나올 수도 있다. 혹시라도 '반지를 보고 남친이 있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지'라는 조바심에서다. 반대로 여자가 당신이 끼고 나온 반지를 보며 예쁘다는 칭찬을 늘어놓으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그거 정말 반지가 예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커플링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그런 거다. 당신도 그녀의 반지가 신경 쓰였던 것처럼 그녀도 그랬다는 거다.

### EDITOR'S TIP

손에 반지가 없을 때 어떤 남자들은 "원래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거 안 해?"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여자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한테 고백이라도 하려고 그러냐?"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런 류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여자에게는 로맨틱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적절히 사용하면 좋다. 진짜 반지나 목걸이를 주지 않아도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은 이미 로맨틱 가이가 되어 있다.

#### 4 당신과 몸이 닿을 때 피하지 않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의 몸이 닿으면 움찔거리며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당신과 나란히 앉아 있는 그녀와 팔이 닿아 있는데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무릎이 닿았는데도 굳이 피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그녀의 몸이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다.

#### EDITOR'S TIP

이 단계에서 텐션을 더욱 더 고조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녀의 얼굴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 대화 도중 그녀가 무심코 고개를 사사삭 들렸을 때 당신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을 당한 그녀의 심장이 요동치게 될거다. 아, 상상만 해도 원기증 나네.

#### 5 매니큐어가 꼼꼼히 발라져 있다

남자들은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남을 앞두고 손톱에 신경을 쓴다. 혹시 매니큐어가 벗겨져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거다. 매니큐어 색을 아예 바꾸기도 한다. 그녀의 손톱에 매니큐어가 견고하게 덧발라져 있다면 일단은 기대해 봐도 좋다.

#### EDITOR'S TIP

하지만 이걸로는 조금 부족하다. 당신과 상관없이 오래가는 매니큐어를 발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켈네일은 한 번 사용하면 3개월도 가거든.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그녀의 손톱을 보며 "색깔 예쁘다. 직접 한거야?"라고 물어보자. "어제 네일샵에서 했어"라든가 "오늘 발랐어"라는 답변이 나오면 당신과의 만남에 대비한 게 확실하다.

#### 6 차꾸 졸려한다

섹스를 해도 상관없는 남자와 있을 때는 "오빠, 나 졸려"라며 반복해서 이야기 한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같이 있을 때 졸리면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봐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가지 않고 졸리다는 말만 반복한다는 건 곧 "오빠, 나 졸려" 뒤에 "(자고 싶어, 너랑)"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다. 아잉 졸려.

#### EDITOR'S TIP

이 때 아무 수식어 없이 "질래?"라고 중의적으로 던져보라. 이 때 그녀가 흘낏 놀라는 기색이 보이면 불시에 속마음을 들켜 버렸다는 증거다. 그녀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만약 정말 졸리고 피곤했던 그녀가 정색을 해도 "졸리다며, 일론 들어가서 자"라며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니 한 번 질러보기에 적절한 표현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의 속마음을 눈치 채지 못해 "피곤하면 일찍 들어가래?"라며 답답한 소리를 하는 남자들도 있다. 그러면 진짜로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급격히 피로가 몰려온다. 분명 그녀와 즐겁게 놀다 잘 헤어진 것 같은데, 당신의 '질 들어갔냐'는 카톡에 'ㅇㅇ' 같은 냉랭한 답문이 돌아온 적이 있나? 혹시 피곤하다는 그녀를 배려한답시고 일찍 보낸 건 아닌지 잘 떠올려 보도록.

#### 7 하지만 평소에는 잠이 안온다

당신과 있을 때는 그렇게 졸리다면 그녀가 평소에는 잠이 안 온다고 한다. 밤늦게까지 안 잔다. 그리고 당신에게 심심하다고 카톡을 보낸다. 분명히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심하다고 했는데 눈치 없이 카톡으로만 물어주면 정말이지 속상하다. 아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신호를 주는 데 아직도 모르겠나?

#### EDITOR'S TIP

"근처에서 커피라도 마시지"며 밖으로 불러내 달라. 그게 우리가 야심한 시각에 카톡을 보낸 진짜 이유다.

#### 8 춥다고 한다

좋은 떡밥이다.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다. 춥다고 하는 그녀의 팔을 당신의 뜨거운 손으로 문질러 줄 수도 있다. 어차피 당신도 아까부터 그녀의 살을 만지고 싶었는데 꺾꺾 찔고 있었잖아? 당신의 음탕한 욕정을 들켜지 않고도 그녀의 몸을 만질만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당신이 내주는 마찰열이 그저 따뜻해서 착한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 그녀도 지금 당신의 손이 닿는 그곳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자, 이제 밥이 다 뺏다는 신호다.

#### EDITOR'S TIP

그녀와 만나는 장소가 당신의 자취방 근처라면 "옷 갖다 줄까?"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유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집에 가서 옷만 가지고 나오는 남자도 있다. 춥다는 말 뒤에 함의되어 있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달라. "추워(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가자, 오뎅)"



혹시 모르니까 세트로 맞춰 입어야겠다.

# Sex / Tension

일부러 신경 쓴 거  
많이 티나면  
어떡하지?



## 9 편의점 안에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출다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향하다가 '집에 먹을 게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편의점으로 향한 당신. 그녀가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전화 좀 하고 있을 테니 갔다 오라"고 한다. 그거 지금 당신을 배려한 거다. 당신이 혹시 콘돔을 사려고 편의점에 간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눈치 없이 따라가는 여자가 되면 안 되니까 밖에 있겠다고 한 거다.

### EDITOR'S TIP

그녀가 편의점에 안 가겠다고 해도 일어서 센스있게 그녀가 좋아할만한 걸 사서 건네라. 사람들의 취향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달달한 음로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주면 되지 않을까? 참고로 나라면 딸기우유를 건네주는 남자에게 반할 것 같아.

## 10 자꾸 뭐가 고장난다

혼자 사는 그녀가 "오빠, 컴퓨터가 갑자기 안 돼요"라며 당신에게 컴퓨터를 잘하느냐고 묻는다. 또 어떤 날은 "세면대가 고장났어요"라고 한다. 컴퓨터는 컴퓨터에 연락하면 되고 세면대는 집주인한테 얘기하면 간단히 고쳐줄 거라는 거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당신을 집에 초대할 빌미를 만드는 거다. 그럼에도 "애는 원래 성격이 쿨해서 남자랑 단 둘이 있는 거에 아무 생각 없을 거야"라며 정말 컴퓨터만 고쳐주고 나오는 남자들도 있다.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연애와 섹스 앞에서 진짜 쿨해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척 하는 거지. 아무리 쿨한 성격의 그녀라도 남녀가 단 둘이 집 안에 있게 된다는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아주 만약의 상황을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막상 아무 일도 없으면... 크게 실망하고 만다. '내가 성적 매력이 없나?', '혹시 아까 이에 고춧가루라도 끼어 있었나?',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나? 아는데, 분명 있는 것 같았는데...' 하면서 아까 있었던 일을 수백 번 되김기 한다. 그리고 다음 번엔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연락하겠지.

### EDITOR'S TIP

그래도 그녀가 정말 당신을 호구로 생각해서 부러먹는 건지 헷갈린다면 그녀의 옷차림을 살펴봐라. 엉덩이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타이트한 튜링닝 반바지나 가슴골이 은근슬쩍 드러나는 민소매탑을 입고 있다면 확신해도 좋다.

## 11 밥 먹고 나서 '뽀뽀' 물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고 한다

그렇다고 집에 가고 싶다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당신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날 거다. 초특급 레일 비싸고 분위기 좋은 곳이라도 가자는 건지, 그냥 나와 함께 있기 싫다는 건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서 멘붕은 적 많지? 하지만 그건 짜증을 낼 일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할 순간이다. 지금 그녀가 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다.

### EDITOR'S TIP

그렇다고 단번에 "그럼 MT 갈래?"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 그 말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수락하면 쉬운 여자로 보일까봐 아마 거절할 거다. MT 가자는 말을 절대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그럼 영화 보면서 맥주나 마실까?" 정도로 순화해라. "어떤 영화 좋아해?"라는 당신의 추가 질문에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지 않은 옛날 영화만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녀의 속마음은 보나마나 뻘뻘하다. 이럴 때 "아, 그거 나도 보고 싶었던 영화데 아직 못봤어. 우리 그러면 어디 편안한 데 가서 영화도 보고 맥주도 마시며 실컷 쉬다 오자"는 한 마디면 여자는 일단 모르는 척하면서 당신을 따라나설 거다.

## 12 술자리 게임을 한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게임을 제안해 봐라. 그녀가 흔쾌히 수락하는 순간, 그녀는 이 순간 이미 술자리 게임에서 할 수 있는 야한 벌칙의 최종 단계까지 각오하고 있다. 그녀도 야한 짓을 할 핑계가 필요하던 차였다 이거지.

### EDITOR'S TIP

술자리에서의 게임은 우리나라 남자 정서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게임 하자고 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여자는 아무도 없다. 술을 적당히 마시다가 게임을 하자고 해라. 벌칙으로는 '지면 뽀뽀해 주기',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같은 게 좋다. 여기서 누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다. 가끔 술자리 게임에 관한 승부욕을 발동시켜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러면 뽀뽀를 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몇 번의 뽀뽀벌칙이 오고 술자리가 달아오르면 그녀의 눈을 파스하게 바라보면서 말하라. "우리 오늘 같이 있을까?"

# For Ladies



## BLOWJOB CONTROL



남자들의 오럴 섹스 판타지를 제대로 파악하면 그를 당신의 노예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다! by 최웅재



남자들이 야동을 보며 흥분하는 포인트는 '삽입 후' 단계와 '삽입 전 전희'. 그 중에서도 백미는 서로의 주요 부분을 입으로 애무해 주는 오럴 섹스 장면이다. 남이 하는 것만 봐도 빨딱거리는 남자에게 눈 앞의 당신이 해 주는 오럴 섹스는 홀로 공공 숨겨 왔던 성적 판타지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



그래, 한번 해 주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허구한 날 야동을 쳐보는 남자들은 오럴 섹스를 굉장히 기본적인 서비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AV에 나오는 배우들이 마치 파시통통이나 메로나라도 먹고 있는 듯 맛있게 남남거리는 장면들에 익숙하니까 말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눈앞에 있는 당신의 예쁜 얼굴을 영망으로 만들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힌다. 그래, 그렇다면

오늘은 큰 맘 먹고 한 번 해 주자. 그런데 어찌지? 당신은 아직 남자의 물건을 입에 넣어 본 적이 없다!

### ➔ Solution

서툴러도 괜찮으니 일단 물자. 오럴 섹스를 처음 하는 여성들은 거북이 머리는 물었는데 이걸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왼 손과 입이 따로 놀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든다든지, 잘못 물었다가 이로 상처를 내려 한다든지 하는 일 말이다. 하지만 남자는 당신이 자신의 물건을 입에 가져간 것만으로 몹시 흥분한 상태니 이미 받은 먹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즉, '오럴은 시작이 반'이다. 굳이 AV 배우마냥 목구멍 깊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만약 당신이 잘 못한다면 그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 쓸데없는 걱정 할 필요 없다. 서투르게 그의 물건을 쥐었다 물었다 하며 어색해하는 당신의 귀여운 모습 역시 남자들에게

묘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보호본능과 애정을 느끼게 하니까. 처음이라면 간단한 스킵부터 시작하자. 머리를 살짝 문 상태에서 혀 끝으로 귀두의 끝 부분을 살짝 문지르며 그의 반응을 살펴라. 동시에 한쪽 손으로 기둥을 잡고 피스톤질을 해 보자. 그러다 조금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입술을 안쪽으로 오므린 상태에서 침을 윤활액 삼아 조금 더 깊숙이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다. 아마 여기까지만 해 줘도 남자는 천국과 이승을 오가고 있을 거다. 아... 너무 디테일했나?



하고 싶지 않은데... 그가 자꾸 해 달라는 눈치다.

당신에게 오럴을 단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남자라면 아마 당신에게 선(先)오럴을 구사할 것이다. 여자가 일어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는 오럴이

고와야 오는 오럴도 곱다는 마인드로 여자들에게 오럴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가 실진 입지만 입에 방콕 향 맥스봉만 넣고 싶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 Solution

만약 자신이 있다면야 남자에게 '굳이 입을 사용해야겠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다른 만족감을 선사하면 된다. 하지만 이걸 마치 범퍼카 조수석에 앉아 '굳이 롤러코스터 같은 시시할 걸 타야겠어?'라고 위안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설플게 둘러대기보다는 잘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남자가 쿤닐링구스를 시도하려 당신의 아랫목으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남자의 대가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아련한 눈빛을 보낸 뒤 "오늘은 빨리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자. 아마 그는 잠깐 동안 멈칫하면서도 곧 신이 나서 오럴 따윈 잊고 올라 탈 거다. 이 말을 "너랑 섹스가 하고 싶어 미치겠어"라고 받아들이면, "오늘은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아"라고 이해할 남자는 없다.

Q 오럴 섹스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굴욕적인 것 같다. 어찌지?

본디 오럴 섹스를 하는 모습은 정상위로 섹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운 체위가 될 수 밖에 없다. 서 있는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굴욕적인 상황이라든가, 상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69' 자세에서 남자 얼굴에 허반신 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가 하는 경우 말이다. 남자가 이런 아스트랄한 체위에도 딱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섹스 시 여자보다 자신의 모습을 훨씬 덜 신경쓰기 때문이다. 남자는 한 번 섹스에 돌입하고 나면 자신의 점힌 뺨살이 어찌 보이든, 자기 고추가 할라피노만 하든 전혀 상관 안 한다.

→ Solution

반대로 남자에게 섹스 시 시각적인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죽어라고 불을 끄자 하는데도 굳이 불을 켜고 하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다. 여자가 자신의 물건을 입에 넣고 있는 모습은 삽입을 했을 때보다 시각적 자극이 훨씬 강렬하다. 만약 당신이 오럴을 해줄 때 보다 덜 굴욕적이고 싶다면 남자와 눈을 계속 마주쳐라. 남자는 당신이 열심히 눈을 감고 오럴 섹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신이 섹스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눈을 천진난만하게 뜨고 당신과アイコン택트를 하며 오럴섹스를 하는 경우에는 '이 여자가 내 것을 갖고 논다는 묘한 파학적 자극을 함께 받는다. 무슨 얘기가. 쉽게 말해서 순간적으로 섹스의 주도권이 옮겨간다는 얘기가.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놀리다가 남자가 찌릿찌릿함을 느껴 황홀한 표정을 짓는 순간 생긋 웃어 주자. 이 웃음은 무언의 능력이자, "새끼, 좋아 죽겠지?"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Q 티 나지 않게 오럴 섹스를 자연스럽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

적극적으로 오럴 섹스를 요구하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대체로 더 조심스럽다. 쿤닐링구스를 받고는 싶은데 "입으로 해 줘"라고 말하지니 왠지 너무 가벼워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알아서 해 주기를 기다리자니 이 새끼가 자기만 받고 마는 스타일이라 답답해 죽겠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슬슬 다른 걱정까지도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다. "혹시 내 그곳이 더럽다고 생각하니?", "이 남자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는 건가?"

→ Solution

솔직히 말하면, 여자들이 남자의 물건을 입에 넣기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들 역시 쿤닐링구스가 '좋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방법이 없진 않다. 남자가 '어쩔 수 없이'라도 쿤닐링구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리드하자. 예컨대 삽입 시 통증을 호소하며(실은 아니더라도) 아직 당신의 그곳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어필하자. 남자 역시 바보가 아니므로 이럴 때 뭐가 필요한지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Q 대체 남자가 원하는 궁극의 오럴 섹스 스킬이란 뭘까?

남자들은 이미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아동)를 통해 수심, 수백 명의 여자들이 남자를 만족시키는 장면을 목격해 왔다. 그러니까 당신의 허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가, 입술이 안젤리나 졸리의 두 배 정도 되는 게 아니라면 어지간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에게 '오럴의 신세계'를 맛보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모방은 창조 어머니', '배움은 끝이 없다' 등 학습의 중요성을 익히 들어오지 않았는가.

→ Solution

남자들의 진정한 오럴 팬타지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격하다(더럽다). 평범하게 스틱을 자극하는 것으로 모자라 아래쪽에 위치한 공 두 개를 입으로 농락해 준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항문을 훑아주는 행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실제로 이 행위는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는 스킬이다. "시발 너 X고 훑아주는 애 만나 봤나?"). 어찌됐건 아무리 오럴 섹스를 좋아하는 남자들이라도 자신의 연인이 일본 AV에나 등장할 것 같은 S 클래스의 스킬을 구사하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자의 정성스러운 터치에 감복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에디터가 오래 전에 사건 사람 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방법과 발전하는 스킬을 보여 주던 친구가 있었다. 하도 궁궁하고, 한편으로는 몹시 수상해서 어떻게 된 거냐(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 좋은 건 둘째치고 전과 너무 달라졌길래...)고 묻자 살짝 웃으며 말하길, "연습했다" 카더라. "어떻게?" 라고 물으면, 아들도 보고

커뮤니티 논팅도 했다더라. 그 순간 그 친구가 갑자기 김태희보다 예뻐 보이고 소라 아이오보다 섹스해 보였던 것 같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다. 역시, 자상이면 감천이라 했다. 정성스러운 당신의 노력이 따라주지만 한다면 분명 그도 당신의 '스킬'이 아닌 '당신'에게 감동할 날이 분명 올 테니까. 

## BEST BLOWJOB SCENES



**악령속의 사춘기(Malabimba)**

음란마구에 사로잡혀 가족들을 범하는 소녀가 할아버지를 오럴섹스로 살해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배우의 입과 성기가 그대로 나와 오럴 행위를 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샷으로 약 5분간 노출되는데 허물없이 장난이 아니다.



**울 어바웃 안나(All About Anna)**

여자 주인공이 남자에게 오럴 섹스를 해 주는 장면에서 노출되는 남자의 탄탄한 몸과 팔뚝이 압권이다. 서 있는 남자의 거근을 무릎을 꿇은 채 한움큼 입에 물고 격렬한 듯 부드럽게 머리를 움직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흥분 포인트.



**켄 파크(Ken Park)**

미국 10대들의 방황이라고 하기엔 거의 반 포르노 및 스니프에 가까운 하드코어물. 시타구니에 입을 밀착시킨 주인공 소년이 여자친구의 엄마에게 쿤닐링구스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 포스터가 말해 주고 있는 그 장면이다.

# 조루 남친 오명 탈출법!

대화하면서 지루한 남자는 싫어도 침대 위에선 그래도 지루한 게 조루보단 훨씬 낫다네? 그럼 재미도 없고 테크닉 없이 길게 버티기만 하는 남자보다 조루가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는군.

백만 스물 둘.  
백만 스물 셋.



## 그 여자의 사정

“정말 속상해요. 남친이 조루인 것 같아요. 이전 뭐, 몇 번 흔들고 마는 수준인데 어떨 땐 길게 해보겠다고 중간중간 쉬면서 부여잡고 2분 쯤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네요. 헤어질까요?”

헤이, 절! 잠깐만. 전 세계 남성 10명 중 3명이 조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0명의 남자와 즐기면 3명은 조루일 수 있다는 얘기가. 조루는 연령 불문하고 나타나는 가장 흔한 남성 성기능 장애니까. 그러니 조루 때문에 헤어지는 건 잠시 보류하자.

조루는 약간의 성적 자극만으로도 사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증상이 재채기와도 같다. 재채기 참으려다 생뚱맞게 코로 콧물을 뿜는 수모를 겪은 적이 있다면 조루 남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VS.

## 그 남자의 사정

“여친이 조루 아니냐고 합니다. 아, 진짜 심란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 몰래 케겔 운동도 해보고, 스쿼트 100회씩 하고... 풀푼이에 칼 대긴 싫는데 이리다간 여친이랑 헤어질 것 같네요. 어떡하죠?”

조루는 사정을 억제하는 신경물질인 세로토닌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세로토닌은 성적 흥분, 수면, 정서 등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정상 남성은 성적 자극이 있을 때 세로토닌이 서서히 늘어나다가 한 순간 고갈되면서 사정한다. 반면 조루 남성은 세로토닌의 생성과 고갈이 매우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정 조절이 안 된다. 또 성기 주변 말초신경의 예민함이나 내분비선 장애, 심리적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지. 조루인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면 간단하게 조루 여부를 알 수 있는 조루 진단표(PEDT)가 아래에 있으니 해보고 오자.

## 풀푼이에 칼 대기는 싫고, 칙칙이는 흥분 '제로'.

비극은 조루가 남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다. 남자는 미안해하고(그래서 자는 척 하거나) 여자는 이 모든 상황이 짜증나도 말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 상황의 끝은 뭘까. 보나마나 이별이다! 까이고 나서 술 먹고 진상 떨기 전에 대책을 찾아라. 다행히 요즘은 조루를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계 최초로 조루 치료를 위해 개발된 다독세틴 성분의 먹는 약은 사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사정시간을 최대 4배 늘려준다. 필요하다 싶으

면 관계 1~3시간 전에 물과 함께 먹어두자! 그러려면 일단 병원부터! 이 획기적인 조루 치료제는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설마 병원 가기 쪽 팔린다고 버티는 답답한 MAXIM 독자는 없겠지? 이미 의학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먹어본 선배들에 따르면 남성의 만족뿐 아니라 여친님의 하트 뽕뽕 눈빛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24시간 후에는 몸속에 안 남아 안전한 약이라고 하니 두려워 말고 TRY!

자,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조루 남친 오명을 씻기 위해 액션을 취할 일만 남았다. 잠깐, 칙칙이 뿌리고 사정 지연 콘돔 끼면 되지 않느냐고? 칙

칙이나 사정지연 콘돔이나 감각을 없애는 원리다. 섹스를 왜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오도록. 또 하나 기억할 점. 어디서 칫솔로 문지르면 중단 소리 믿고 섹스 따라 하지 말아라. 소중한 풀푼이에 상처만 나서 병원 가는 지름길이니깐. 분명한 건 이걸 결코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 쿨하게 받아들여 혼자 고민하기 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상대와 대화하면서 고쳐가는 것이 방법이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질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 고민만 하다간 그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금이 행동할 때! 자, 그럼 건투를 빈다!

## 조루, 셀프 진단부터 해보자고~!

당신이 토끼인지 거북이인지 일단 체크해봐야 하지 않겠어?

- 8점 이하 조루에 대한 걱정은 STOP~!
- 9~10점 조루일 확률이 높다. 전문의와 상담을 고려하도록!
- 11점 이상 당신은 조루! 당장 병원으로 GO GO!!

질문	0점	1점	2점	3점	4점
Q1. 사정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	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보통 정도 어렵다	매우 어렵다	아주 매우 어렵다
Q2. 원하기 전에 사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야?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0%)	네 번에 한두 번 정도다(25%)	두 번에 한 번꼴로 그런 것 같다(50%)	네 번에 서너 번 정도다(75%)	거의 항상 그런 것 같다(100%)
Q3. 아주 미미한 자극에도 사정해?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0%)	네 번에 한두 번 정도다(25%)	두 번에 한 번꼴로 그런 것 같다(50%)	네 번에 서너 번 정도다(75%)	거의 항상 그런 것 같다(100%)
Q4.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사정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Q5. 사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파트너가 불만족스러운 게 어느 정도로 신경 쓰여?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약간 신경 쓰인다	보통 정도로 신경 쓰인다	많이 신경 쓰인다	매우 신경 쓰인다

# Comment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슈퍼맨은 왜 빨간 팬티를 벗었을까?



벗으니까 더 섹시해.

BY 손안나





영화 <맨 오브 스틸>이 지난 6월 13일 개봉했다. 팬티 바람에 붉은 망토를 걸친 스파르타인의 싸움(영화 <300>)을 그린 바 있는 잭 스나이더 감독이 이번엔 팬티 바람에 붉은 망토를 걸치고 악당과 싸우는 슈퍼맨을 영화에 담았다. 캐스팅 단계에서 스나이더 감독은, 유력한 주인공으로 점쳐지고 있던 헨리 카빌에게 슈퍼맨 의상을 입어보라고 제안했다. 카빌과 슈퍼맨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잠시 후, 카빌이 파란 줄줄이와 빨간 팬티를 입고 꾸뻑대며 나타났다. 이 모습을 본 스태프 중 누구도 웃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지한 감독은 그 순간, "카빌이야 말로 진정한 슈퍼맨"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바꿔 말하면, 어지간한 사람이 슈퍼맨 의상을 입으면 우스꽝스럽다는 얘기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인기 있는 슈퍼히어로가 되려면 초인적인 능력과, 이와 상반되는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적인 매력이라니... 알다시피 슈퍼맨의 정체는 광속으로 날아다니는 무늬만 인간인 외계인인 말이다. 그런 외계인을 호감 가는 '인간스러운'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섹스 어필이 필요했을 것이다. 어쩌면 '슈퍼맨'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특징(잘생긴 외모와 잘 발달한 상체 근육 그리고 돌출된 빨간 팬티)은 모두 이런 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 특히 빨간 팬티는 슈퍼맨의 섹슈얼한 매력을 대놓고 어필하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이었다. 실제로 이 전략이 먹혔던 건지, 슈퍼맨은 원더우먼과 함께 역대 가장 섹시한 슈퍼히어로를 뽑는 설문 조사에서 1위를 놓친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슈퍼맨도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요즘 여자들은 자신보다 능력치도 한참 떨어지는

배트맨이나 아이언맨 따위를 보고 각각대고... 이 원조 섹시 히어로는 '바지 위에 팬티를 입는 변태'라는 굴욕적인 놀림까지 감당해야 하는 비운의 워스트 드레서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그가 태어난 1930년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즘은 길거리만 나가도 팬티만큼 짧은 핫팬츠를 입은 여성이 흔한 시대다. 누가 빨간 팬티에 하악대겠나. 은근히 신체 라인을 드러내는 배트맨의 시크한 블랙 슈트나 불링불링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진 아이언맨의 럭셔리 하드 슈트가 훨씬 더 매력적인데!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슈퍼맨은 결국 이번 영화에서 빨간 팬티를 벗어 던지는 실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참고로, 그는 부모 말이 진리인 윙통성 제로의 효자 히어로다(얼마나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허리케인에 휩쓸려가는데도 '초능력을 들켜선 안 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모습을 지켜만 보겠나). 그런 그가,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사랑의 팬티'를 내다 버린 것이다. "패션센스 X나 구리다"는 세간의 비웃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지 대중 짐작이 간다.

다행히 변신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줄줄이라고 말하는 게 어쩐지 미안한, '있어 보이는' 짙은 푸른색 전신 슈트만을 착용한 그의 모습은 확실히 전보다 더 섹시해졌다. 아직은 팬티가 사라진 게 부끄러우려, 영화 내내 그의 사타구니는 그늘에 가려있거나 프레임 바깥에 자리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더 시선이 가는 걸 어쩌겠나. 슈퍼맨이 섹시해졌다. 배트맨, 아이언맨에 열광하던 여자들이 이 강철의 사나이를 사랑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이야기다.

슈퍼맨 vs. 헐크 누가 이겨?





크 큰일이다!!  
어떻게 스스로  
증식을  
할 수 있지?  
아아아!

# 이토 준지 공포의 법칙



그의 만화를 보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매일 아침 프로포폴에 콘푸로스트라도 말아 먹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BY 조웅재

죽도록 사랑해—!!  
그럼  
죽어!!

애니메이션은  
어떨까?





작가가 어느 정도 짬밥을 먹으면 30년 감자탕 외길 인생 감점에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스타일과 노하우가 생기는 법이다. 그런 그의 작품 세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독자 중, 이토 준지는 안 봐도 بل루레이라며 그의 뻘한 패턴을 디스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역시 색어도 준지”라며 애장판 구매에 금전을 퍼붓는 피확성 노예도 더러 있다. 매번 뻘한 패턴을 구사하면서도 고정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의 작품 세계를 여자 가슴골을 바라보듯 파헤쳐봤다.

**공포의 법칙 1:**

**아름답고 색시한 주인공들을 반병신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이틴 공포 영화에는 항상 질생기고 예쁜 아이들 스타가 등장한다. 이토 준지의 작품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본래 화풍이 아기자기하고 예쁜 편인데, 특히 여성

인물들을 가만히 뜯어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언젠가 밀천이 떨어지면 망가 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림이 색(色)스럽다. 하물며 목이 질려 있어도 현아 뺨치는 색기를 내뿜는 토미에를 만들어냈으니 말 다 했다. 물론 서양 호러물 속 쪽방 미녀들이 선지를 뿜고 사지가 질리는 수모를 겪는 것처럼, 이토 준지의 작품 속 미녀들도 갖은 고생은 다 한다. 온몸에 칼데라 호 같은 여드름이 돌아 피지를 사망으로 레이저처럼 발사하거나 피부가 헐기 뒤꿈치처럼 갈라지는 비주얼 붕괴의 순간은 그의 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이다.

**공포의 법칙 2:**

**정통 호러에 충실한 긴장감 유지**



비주얼로 승부해야 하는 장르의 한계상,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라도 상상만 못한 그림으로 풀어낸다면 고영욱이 유부녀 AV를 보듯 아무런 감흥이 없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선선녀가 등장하는 이토 준지의 화풍은 결코 날이 선 무기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전통 일본식 호러물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어중간한 공포 만화들이 분위기를 전환한답시고 <엑스시스트>에 <라스트 갓파더>를 섞어놓는 실수를 범한다. 반면 그의 작품은 시종일관 진지하다. 작중 인물들이 배꼽이 빠져라 웃는 모습조차 기괴하다 못해 소름이 돋는다. 아예 실소를 머금을 틈조차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공포의 법칙 3:**

**생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뜬금없는 마무리**



공포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공포 영화가 마무리되는 방식을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이다. 쉽게는 영화 <괴물>처럼 해피엔딩으로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방식이

있고, <데스티네이션>처럼 “재앙은 계속된다”며 후속편을 기대하게 만드는 짜라시성 엔딩도 흔히 쓰인다. 하지만 이토 준지가 즐겨 사용하는 방식은 영화 <링>에 가깝다. 방금 전까지 온몸 각기 댄스를 추며 지랄 발광을 떨던 괴물이 눈앞에서 사라진단든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야기가 뜬금없이 마무리되어 기분을 묘하게 만든단든지 하는 것 말이다. 이토 준지가 이런 방식을 구사할 줄 아는 걸 보니, 끝까지 변을 켜팅하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우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시대의 변화 그리고 스타일의 진화**

사실 초기의 이토 준지는 스토리와 분위기가보다 기괴한 크리처 혹은 잔혹한 장면에 많이 의존하던 작가였다. 이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유행하던 <간츠>나 <기생수> 등에서 주로 구사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아예 대놓고 머리통과 시체 조각이 굴러다니는 위 작품 사이에서 그런 식의 비주얼로 승부를 펼치는 것은 한국에서 특대형 콘동을 무수히 찍어내는 것만큼 의미 없는 처사였다. 그는 결국 스타일의 변화를 꾀해 2000년대 중 후반으로 접어들며 스토리 위주의 장편 만화를 그려내기 시작했고, <공포의 물고기>와 <지옥별 레미나> 등 중·장편 위주의 명작을 쏟아냈다.

**본좌에서 전설을 향해**

많은 호러 작가가 매너리즘에 빠져 허우적대며 10년을 채 버티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27년간 공포 만화에만 전념한 그의 패기는 진심으로 인정해줄 만하다. 어쨌든 그의 나이도 50줄에 접어들었으니 말이다. 최근엔 기력이 쇠했는지 고양이들이 등장하는 일상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기 편하다(물론 이 작품의 인물들 역시 그의 호러 작품에서 느껴지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보면 얼마 전, 이토 준지의 스승이자 고전 공포물 <표류교실>의 작가 우메즈 카즈오가 벌써 78세라는 소식에 경악한 적이 있었다. 무려 50년간 호러물로 작품 활동을 영위했으니 인생 자체가 호러인 셈이다. 그에 비하면 이제 50줄에 막 접어든 이토 준지의 앞길이 이등병 제대 날짜 세두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다. 이토 선생님, 앞으로 최소한 20년은 더 그리셔야 선배님을 앞에서 수고했다는 얘기 정도는 들을 수 있겠네요. ☺

**이토 준지의 명작 BEST 3!**

에디터 추천 필수 호러 코스!



**소이치의 즐거운 하루**

괴상한 성격과 취미를 가진 변태 소년 소이치의 광범하지 못한 일상을 그린 옴니버스 구성의 만화. 이토 준지 나름의 유머 코드를 녹여 가볍게 볼 수 있지만, 글씨, 유머라고 하기엔 좀 많이 그로테스크하다.



**공포의 물고기**

기계 다리를 장착한 물고기 ‘보행어’가 시내를 활보하며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본격 도시 어촌 만들기 프로젝트 만화. 작품성을 인정받아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도 개봉했다. 팬이라면 놓쳐선 안 될 명작.



**공포의 기구(단편집 <얼굴도둑> 중)**

그의 초기 작품 중 눈에 띄게 그로테스크한 단편 중 하나. 내 얼굴과 똑같이 생긴 거대 기구가 교수형 매듭을 대롱대롱 달고 내 목을 노린다! 섬뜩한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인상적인 작품.



## 로즈메리의 아들

 영화 <악마의 씨>의 원작 소설 <로즈메리의 아기>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했지? 30년 동안 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난 로즈메리와 그녀의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BY 김희성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도전자들이 메이크오버를 할 때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타와는 거리가 먼 생일반인 참가자들이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연예인 뺨치는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그 순간이 되면 <프린세스 메이커>의 엔딩을 보듯 흐뭇한 기분이 든다. 에디터는 혼자 <슈스케> 예선을 보면서도 '유승우 눈에 스모키 좀 하면 지드래곤 뽀 나겠네. 됐네, 됐어'를 연발하며 일반인 도전자들의 상품가치와 승리를 점쳐보곤 한다. 사실 이런 일종의 직업병이기도 하다. MISS MAXIM 콘테스트에 지원한 지원자들에게 첫 촬영을 앞두고도 마친가지다. 일반인 도전자들에게 어떤 메이크업이 가장 예뻐 보일지, 어떤 콘셉트에 적합할지, 어떤 의상이 어울릴지, 어떤 조명이 잘 받을지 각각의 도전자들을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그리고 그 고민들이 화학작용을 일으켜, 안 그래도 예쁜 그녀들이 여신으로 거듭나는 촬영 결과물이 나올 때만큼 뿌듯한 순간도 없다.

하지만 모델이 예쁘게 나오는 게 전적으로 에디터와 포토그래퍼를 포함한 스태프들의 공만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콘셉트와 의상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걸 소화해 내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모델 개인의 몫이다. 스스로 얼마나 좋은 포즈를 취하느냐, 느낌을 잘 살리느냐, 촬영 콘셉트를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천차만별이다. 에디터의 고뇌와 준비와 노력도 원석이 훌륭해야 빛을 발할 수 있던 뜻이다. 훌륭한 원석을 발굴해 훌륭한 촬영 결과물이 나왔을 때의 기분이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작품이 영화화가 되었을 때, 이미 원작을 읽은 자의 부심도 마치 이와 같을 거다. '난 네네들이 영화로 보기 훨씬 전에 원작을 이미 봤지'라는 거만한 표정으로 원작이 어땠는지에 대해 쌀을 풀어놓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끔은 "니가 썼냐"고 비아냥대고 싶지만 그 부심 찌는 마음을 내가 더 잘 알기에 그냥 조용히 웃어넘기고 만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영화 <악마의 씨>에서 악마의 아기를 잉태한 로즈메리 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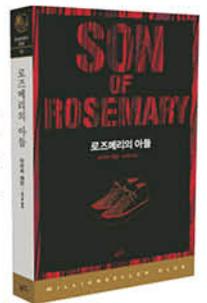
맡은 배우 미아 패로는 이 작품으로 공포의 아이콘이 된다. 주인공 로즈메리는 맨해튼의 고풍스러운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 초기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집구조와 전 주인들에 얽힌 소름끼치는 소문, 환청을 듣게 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신혼의 단꿈에 젖은 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낸다. 이상하리만큼 친절함 옆집 노부부도 갑자기 일이 잘 풀리는 남편, 기다리던 임신 소식 등 완벽한 일상이 펼쳐지는 듯했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악마를 숭배하는 집단이 자신의 몸을 통해 '악마의 씨'를 잉태시키려는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을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 "비달 사순에서 했어요"라는 명대사를 남기기도 한 숏컷의 금발머리와 초점 잃은 멍한 눈빛, 겁에 질릴 때 나오는 큰 동공과 진짜로 신경쇠약에 걸린 듯한 연기로 패로는 원작 소설 <로즈메리의 아기> 속



주인공을 훌륭하게 재탄생시켰다. 원작자는 <로즈마리의 아기>의 30년 후의 이야기를 쓴 후속작 <로즈메리의 아들>을 발표하면서 그 책을 미아 패로에게 바친다고 했다. 사실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을 오롯이 세상에 내어준 그녀에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악마의 씨>의 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원석을 제대로 캔 거다. 그녀뿐만 아니라 <로즈메리의 아기>라는 훌륭한 원작 소설을 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을 만들어 냈으니, 이쯤 되면 로만 폴란스키의 원석을 감별하는 능력은 거의 '신'급이다. 물론 그의 연출력과 미장센에 관해서는 더 말하면 입만 아플 뿐이고, 이후 이야기를 다룬 소설 <로즈마리의 아들>은 로즈마리가 악마 숭배자들의 농간에 휘말려 지나긴 혼수상태에 빠져 30년 후인 1999년 한 요양원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설정으로 시작한다. 깨어나 보니 로즈메리의 아들 앤디는 세기말 혼란스러운 세계에 정의를 구현한 지도자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작 <로즈마리의 아기>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의혹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벌어진다. <로즈메리의 아들>을 다 읽고 나니 누군가가 이 훌륭한 소설을 가지고 <악마의 씨 2>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열망이 새벽 두 시의

치맥처럼 밀려왔다. 그리고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 졌을 때 나는 부심 찢는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겠지. "내가 원작 소설을 봤는데 말야..." 당신도 이 책을 보게 된다면 진흙에서 사파이어를 발견한 것과 같은 희열을 느끼며 원가 하나 또 해낸 느낌을 받을 거다. 아, 우연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악마의 씨>의 원작자 아이라 레빈은 심장 마비로 사망했고,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 사론 테이트는 악마 숭배자들에게 임신한 채로 살해당했다. 그녀는 그 때 임신 8개월이었고 16번이나 칼에 찔린 상태였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은 부디 무사하길.

<로즈메리의 아들>  
아이라 레빈 지음/ 황금가지/  
10,000원



## <악마의 씨>의 저주

영화보다 더 무서운 실화 이야기



사론 테이트의 참혹한 실제 살해 현장. 소파 앞에 벌거벗긴 채 누워 있는 여자가 그녀다.



함께 파티를 벌이던 친구들도 죄다 실해됐다.



그녀의 피로 알 수 없는 이나실을 남기기도 했다.



<악마의 씨>의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이자 배우 사론 테이트는 1969년 악마 신봉자인 찰스 맨슨과 그를 추종하는 집단에 의해 살해당했다. 로만 폴란스키는 영화 촬영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사론 테이트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그들은 임신 8개월의 사론 테이트를 16번이나 찔러 죽였다. 그녀는 영화 속 로즈메리처럼 '아기만은 해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그녀를 발가벗긴 후 시체를 매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그걸로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사론 테이트를 잔학하게 살해한 세기의 살인마 찰스 맨슨은 비틀스 마니아였다. 그는 자신을 추종하는 집단인 맨스 패밀리에게 비틀스의 노래 가사를 인용해 교리를 설파했는데, 그 중 사회 변혁의 승자가 된다는 뜻의 '헬터 스켈터' 작전도 그들의 노래에서 따온 것이었다. <악마의 씨>에서 이야기의 전개에 핵심적인 배경으로 등장하는 로즈메리 부부의 아파트는 뉴욕 센트럴 파크에 있는 다코타 아파트인데, 사론 테이트의 저주인 비틀스 멤버였던 존 레논이 이 입구에서 총에 맞아 죽게 된다.



<악마의 씨>를 본 찰스 맨슨이 의도적으로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찰스 맨슨은 애초에 사론 테이트를 표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 원래 그 집에 살던 음반 제작자가 자신의 음악을 무시한 데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 갔는데, 하필이면 그 사이에 로만 폴란스키가 이사 오는 바람에 그의 아내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거다. 찰스 맨슨 일행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매스컴을 통해 알고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이거 저주 맞지?

# Subscribe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구독 중 가격 인상 없는 서비스, 푸짐한 사은품까지!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손연재에 대한 7가지 편견**

**24 HOURS TO LIVE**  
편집부에 생육 투척  
토종보다 찰진 우리말

**샘 해밍턴**

**15 MOST HORRIBLE MMA INJURIES**

**TIPS FOR MORE SEX**  
여자가 토니 스타크에 환장하는 이유  
TRUE STORY: HER PORN FANTASY  
MAXIM 법률상담소

**ONE NIGHT STAND**

**WHO'S THAT GIRL?**  
(신사의 품격)에서 김민중을  
유혹하던 강변호사를 소환했다

**박아인**

2013년 6월호  
정가 5,900원

**그런 답사팀 멤버에서 JTBC로 아직  
최초의 아이돌 출신 가상캐스터**

**viki**

**POET BATTLE**  
현존하는 두 명의 음유시인  
**이리 김보성 선생**  
**애니팡 하상욱 선생**

**LET'S SPEND SOME MONEY!**  
상성의 미러리스 칼링필드  
대량살상무기 NX300  
콜하게 욕수수 털어가는  
스타벅스 최발대  
없던 여자 생기는  
싱글남의 7가지 가전 제품

"NO FUEL" BMW3  
GIRL'S TALK ON 인피니티

**KOREAN SUPERHERO 33**  
조선 AVENGERS

**MAXIM PARTY ON AIR**

ISSN 2233-4270 바코드는 뒷면에

**최대  
5만 원  
할인!**



24개월  
정기 구독시  
무료 증정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엠도시 안티 링글 트리트먼트 에센스**

※ 한정 수량! 사은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은품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3개월	정가 17,700원	
6개월	32,400원 (정가 35,400원) 3천 원 할인 +1000씩 적립	
12개월	63,800원 (정가 70,800원) 7천 원 할인 +2000씩 적립	
24개월	126,600원 (정가 141,600원) 1만 5천 원 할인 +4000씩 적립	
36개월	182,400원 (정가 212,400원) 3만 원 할인 +6000씩 적립	
48개월	233,200원 (정가 283,200원) 5만 원 할인 +8000씩 적립	

※ 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 딱=1 원)

## 정기 구독 신청 안내

www.maximkorea.net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 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2 무통장 입금

(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KB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MAXIM을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매거진 앱! 종이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 MAXIM의 아이패드 매거진에는 편리한 인터랙티브 디자인, 풀  
버전 영상 화보, 종이 매거진에서는 볼 수 없는 미공개 화보와 깨알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MAXIM KOREA 또는 맥시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아이패드 매거진 : 1권 구매 시 \$2.99 / 1년 정기 구독 시 \$19.99  
아이폰 매거진 : 1권 구매 시 \$0.99



## One Point!

그녀들의 뜨거운 시선에 당신의 온몸이 기분 좋게 근질거린다. 아이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BY 정민지

### 1. 밀리터리 캡

뜨거운 여름 자외선으로부터 내 소중한 얼굴도 지켜주고 스타일도 업 시켜주는 필수 아이템. 모자 색상도 스컬 자수 색상도 다양하니 컬러 선택하는 재미도 쏠쏠! **58,000원**

### 2. 아이폰 케이스

블링블링한 전체 큐빅 장식과 꽃을 단 위트 있는 스컬 덕에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시간문제. 전체 화이트, 블랙 바탕에 오렌지, 레드, 블루, 핑크 스컬 포인트 색상 중 선택 가능하다. **278,000원**

### 3. 워치

귀여운 장난감 같은 시계이지만 모든 매커니즘을 일본에서 제작해 기능성 보장. 기존 손목시계와는 반대 방향에 있는 크라운 덕에 편안하고, 스트랩도 두 가지 색이 들어있어 활용성도 최고이다. 핑크뿐만 아니라 옐로우, 실버 컬러로 남녀 모두에게 제격인 아이템. **340,000원**

### 4. 하이탑 스니커즈

이번 시즌 대세 카무플라주와 실버 컬러 디테일의 절묘한 조화. 3cm 히든 인솔로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함과 함께 자신감도 충전 가능! Made in Italy로 확실한 품질 보장 또한 가능! 여성용 스니커즈도 출시되니 커플 슈즈로 안성맞춤이다. **380,000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 3층  
Stile di Matto(스탈레 디 마또) 매장(02-3479-1572)  
[www.facebook.com/mattokorea](http://www.facebook.com/mattokorea)

## 힘 안 들이고 해변 킹카로 거듭나는 법

복근 따위 없어도 돼, 당신을 쿨 서머 가이로 변신시켜 줄 6가지 스타일 아이템만 있으면.

BY 손안나



### 1 밀짚 페도라

여름철 자외선은 두피와 모발을 손상시켜 탈모의 원인이 된다. 햇볕은 가려주면서 통풍도 잘 되고, 스타일도 살려주는 모자를 찾는다면 밀짚만한 소재가 없다. 그래서 만화 <원피스>

45,000원, 빌라봉 의 루피가 해적들과의 온갖 무지막지한

전투에도 모자를 벗지 않는 것. 챙이 넓은 밀짚모자는 어쩐지 농활 온 느낌이 날 것 같다고? 시크한 페도라 형태라면, 여유있고 놀기도 잘 노는 도시의 어른 오빠로 보일 테니 걱정하지 마!



### 3 비치 트렁크

슈퍼맨도 빨간색 삼각팬티를 버린 마당에, 해변에서 삼각 수영복을 꺼내 입으려던 건 아니지?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자의 비치 팬츠는 무릎 살짝 위로 올라오는 무난한 트렁크형이다. 대신 컬러로 포인트를 주자. 핑크, 옐로우, 퍼플 등

89,000원, 나이키 형광 색상이나 강렬한 컬러가 대비를 이루는 투톤 컬러 혹은 기하학적인 무늬의 화려한 쇼츠라면, 캘리포니아에서 갓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서핑가이로 콘셉트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걸?



### 5 스티커 타투

노출의 계절, 살짝살짝 보이는 타투만큼 섹시한 패션 아이템이 또 있을까? 어쩐지 자기세계가 분명한 아티스트 느낌이다. 하지만 요즘 날씨에 선블리 타투를 시도했다간 상처가 짓무를 수도 있다. 급한 대로 일회용 타투를 이용하자. 인크나 스프레이 버전도 있지만, 역시 가장 쉽고

4,000원, 타투유 간편한 건 스티커 타투. 왕년에 덴버 검 종으로 판박이 좀 붙여 봤다면 익숙한 정서잖아? 어깨형님을 사이에선 웬 무늬가 있(it) 아이템이었지만, 요즘엔 펜으로 장난친 것 같은 '낙서 타투'가 대세.



### 2 유니크 선글라스

해변에서 전투조종사 st. 가족점퍼를 입을 게 아니라면 보잉 선글라스는 넣어 두자. 본격적인 등산용 고글도 어쩐지 설악산에 가야할 것 같으니 패시 투명한 아크릴 프레임 혹은

169,000원, 바이나인투나인 무광의 컬러 프레임 선글라스를 스윙

팬츠의 컬러와 매치하라. 선글라스 하나만 바뀌도, 땀냄새마저 상콤할 것 같은 유쾌 발랄한 연하 남친 스타일로 변신할 수 있다.



### 4 태닝 티슈

까봉은 바나나 같은 당신의 새하얀 속살도 울여름엔 호날두 부럽지 않은 초컬릿 태닝 피부로 변신할 수 있다. 물티슈처럼 간단히 뽑아 쓰는 태닝 티슈가 있다니 세상 참 편해졌지?

19,800원(2팩), 유핏

맨손으로 바르면 착색될 수 있으니 주방용 비닐장갑을 끼라는데... 여러모로 부끄럽지만 인내심을 갖고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챙기자. 작열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비치발리볼 따위를 즐기는 스포츠맨 같아 보인다. 껌!



### 6 공갈 피어싱

햇볕은 상태에서도 당신만의 개성을 드러내 주는 액세서리. 목걸이, 금반지 같은 과한 액세서리로 힘을 주는 건 아니 걸친 만 못하고... 심플한 피어싱은 어떨까? 그렇다고 유두 피어싱을 권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길. 컷볼 말아야, 컷볼! 귀에 모나미

4,500원, 블루모아

볼펜 심지만한 구멍을 낼 자신은 없다고? 걸모양은 똑같지만, 귀걸이가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만 있다면 착용할 수 있는 공갈 피어싱이 있으니 참고하자. 잘 노는 오빠 같아서 어쩐지 리드당하고 싶어지거든. 가라, 이제 당신도 해변의 지드래곤이다.

# Watch out!



### 헬다이버 3001M SIL 모델로 무더위 여름나기

폭폭 찌는 무더위에 시원함을 선사할 워치 헬다이버 3001M SIL 모델을 소개한다. 자칫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스테인리스 밴드에 무광 스테인리스 스틸 용두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멋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미네랄 블루코팅 글라스는 무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JAPAN 멀티 무브먼트 기능을 탑재해 날짜와 요일까지 확인가능하며 5기압 생활방수 기능을 더해 실용성까지 높였다. 가족 밴드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헬다이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만나 보자.

299,000원, 헬다이버(1644-3885, [www.helldiverwatches.com](http://www.helldiverwatches.com))



### 잉거술, 더글라스 메탈 버전 출시

정통 기계식 시계 브랜드 잉거술이 더글라스 메탈 버전을 국내에만 한정 출시한다. 심플한 디자인의 스틸 케이스와 메탈 밴드는 시원한 느낌을 선사해 무더운 여름에도 착용하기에 좋다. 또 블루 포인트 크라운과 글라스 백 케이스의 디테일은 고급스러운 독일 디자인 감성을 물씬 풍긴다. 날짜 표시 카운터와 오픈 밸런스 휠이 더해져 실용성까지 향상된 더글라스 메탈 버전은 올 가을에 전 세계로 판매될 예정이다. 할리우드 스타 제임스 딘과 마릴린 먼로가 사랑했던 브랜드 잉거술, 국내에서도 그 감성을 느껴보자.

거노 코퍼레이션(02-3397-7100)

### 루미녹스,

### 1188 리미티드 에디션 선보여!

루미녹스가 2013년 미국 인디 500 레이싱 챔피언 토니 가나안과 공동 작업으로 루미녹스 1188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총 311개 생산된 루미녹스 1188은 초록색과 노란색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스테인리스 스틸에 블랙 코팅을 하여 인디카의 매력을 담았다. 토니 가나안의 로고와 검은 가죽 밴드는 강인한 모터스포츠의 느낌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강인한 남자의 모습을 뽐내고 싶다면 루미녹스의 1188 리미티드 에디션을 추천한다.

### 미림시계

(02-757-9866, [www.luminowatch.co.kr](http://www.luminowatch.co.kr))



### ALBA,

### 세계 최초 GPS 슬라 시계 출시

고급 패션 시계 브랜드 ALBA가 최첨단 기능의 Astron SAST105를 출시했다.

세계 최초로 지구 궤도의 GPS 위성과 연결해 시각 정보와 타임존을 표시한다. 또 10만년의 1초 오차 수준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자랑하며 26개의 도시명이 프린팅 되어 사용상의 편이를 고려하였다. 티타늄과 세라믹의 조화는 스포티한 느낌을 더한다. 총 세 가지 모델의 아스트론 라인이 출시되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울여름, 해외여행이 계획이라면 ALBA의 Astron SAST105는 필수 아이템.

370만원, 삼정시계(02-511-3182)



### 자스페로, VETERANO 커플시계 출시

자스페로가 멋쟁이 커플들을 위한 새로운 시계를 출시했다. 블랙과 로즈골드의 환상적인 조화가 돋보이는 VETERANO 커플 시계는 고급스러운 세라믹을 선사한다. 수퍼 루미노스 코팅이 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모델의 경우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의 인덱스로 현대적이고 심플함을 강조했다. 메탈 밴드와 가죽 밴드가 호환되어 그날의 패션 스타일에 따라 변경하여 착용할 수 있다. 자스페로 VETERANO 커플시계로 멋들어진 커플이 되어보자.

735,000원(남성), 435,000원(여성),

자스페로(1688-8907, [www.zaspero.co.kr](http://www.zaspero.co.kr))

# Style news

## 에비수 에어로 쿨 피케셔츠로 쿨가이되자

에비수에서 2013년 여름 시즌 에어로 쿨 피케셔츠를 선보인다.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쾌적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얇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며 땀을 신속히 건조시켜 체온을 조절한다. 덕분에 더운 여름철 쾌적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다. 다소 밋밋할 수 있는 피케셔츠 전면에 자수와 칼라 부분의 컬러로 포인트를 살렸다. 스포티하면서도 캐주얼한 반전의 매력으로 덴디룩, 스포티룩 등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74,000원, 에비수([www.evisujeans.co.kr](http://www.evisujeans.co.kr))



## 오피스 패셔니스타를 위한 씬머 백팩

간지의 완성 백팩을 찾는다면 유니온유니크(UNIONUNIQ) 씬머 백팩에서 답을 찾아보자. 유니온유니크의 유 텅지 팩(U Tinge Pack) 씬머 컬렉션은 아이보리와 블루, 오렌지 컬러로 청량함을 더했다. 심플한 외관과 달리 내부공간은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도시인과 대학생들의 필수품을 기능적으로 수납하는 스마트함까지 갖췄다. 어깨 끈에 최적의 착용감을 위해 고밀도 소재를 사용하여 편리함까지 잡았다. 청바지, 흰티, 백팩의 매칭은 덴디남의 진리! 유니온유니크([www.unionuniq.com](http://www.unionuniq.com))



## 크록스, 레트로 플립플랍 출시

크록스가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해변가, 물놀이에서 편안하고 간지나게 신을 수 있는 플립플랍을 출시했다. 레트로 플립플랍은 크록스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가볍고 미끌거림과 냄새가 방지되는 크로슬라이트 소재로 착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갈창에는 돌기가 있어 밀착감이 좋고 걸을 때마다 마사지를 받는 느낌이 든다. 무난하고 시원한 네이비 컬러에 레드 색상이 매치되어 있어 다양한 스타일 연출에 용이하다. 발 땀 가득한 신발에서 소중한 발을 구출하자. 내 발은 소중하니까.

44,900원, 크록스 코리아(02-3450-5842)



## 뉴에라, 세서미 스트리트 좀비 컬렉션 출시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세서미 스트리트 컬렉션이 좀비가 되어 돌아왔다. 날이 더워져 집 안에 틀어 박히던 캐릭터들이 귀차니스트를 넘어 좀비의 경지에 올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런 캐릭터들을 뉴에라에서는 FIFTY(스냅백) 실루엣에 담아 선보인다. 귀여운 캐릭터들로만 인식되었던 세서미 스트리트 캐릭터의 변신은 독특하고 참신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3년 여름, 클럽에서 이들 캐릭터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보자. 그릉그릉 아부부! 뉴에라([www.neweracapkorea.com](http://www.neweracapkorea.com))



## 오클리 비치웨어로 아메리칸 스타일 완성하자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당신에게 오클리(Oakley) 비치웨어를 추천한다. 오클리는 2013년 여름, 더욱 시원하고 스타일리시한 휴가를 위한 비치웨어를 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이는 비치웨어 중 보드쇼츠 라인인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 또 수분을 빨리 증발시키는 속건성 소재를 사용하여 습도 높은 여름에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는 래쉬가드 소재로 피부 보호와 옻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오클리([www.oakley.co.kr](http://www.oakley.co.kr))

# Stuff



## 그녀와의 달콤한 여행을 위한 21가지 물건들

바닷물에 젖어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의 피부만큼 사방하고,  
땀에 젖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그녀의 땀방울보다 아기자기한  
휴가철 전용 제품들.  
그녀와의 아련한 휴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BY 조종재

MODEL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비키니 에이전트즈  
스노클링 세트 SEACSUB by 몸스포츠  
시계 순토

ILLUSTRATION 장재혁 HAIR&MAKEUP 장혜민 ASSISTANT 김세형 김소은 FILM 김상수 LAYOUT 서운정

등산화 네파

### JABRA Play

#### 블루투스 이어폰

자브라 플레이는 블루투스의 최강점인 컴팩트함과 심플함을 제대로 살린 제품이다. 다수의 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두 가지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이동 중 전화와 음악 감상 모드를 바꾸며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3.5mm 이어폰과 호환이 가능한 점도 크나큰 메리트. 그녀에게 작은 녀석이 의외로 쓸모 있다며 속삭여 주자. 가격 81,000원 문의 가우넷(02-755-9952)

### Pelican ProGear S145

#### 스포츠 태블릿 백팩

험한 산행에서조차 거북이 등껍질 같은 인케이스 백팩을 메고 다닐 순 없는 노릇이다. 그녀가 최근에 구매한 태블릿 PC를 위해 하드 케이스의 명가 펠리컨의 백팩을 안겨 주자. 넉넉한 수납 공간과 전면에 위치한 단단한 태블릿 수납부가 특징으로, 강한 충격에도 액정이 나갈 염려가 없다. 가격 143,000원 문의 자운드(www.zound.co.kr)

**Victorinox Swiss Card**

**카드형 소품 세트**

슬림이 대세인 요즘엔 지갑 안에 쏙 들어가는 카드형 제품이 인기가. 빅토리아록스사의 스위스 카드의 그리 두껍지 않은 심플한 카드형 케이스 내에 칼, 핀, 볼펜, 가위, 심지어 미니 랜턴까지 콕콕 차 있는 다용도 실속형 서바이벌 키트다.

가격 26,000원

문의 빅토리아록스몰([www.victorinoxmall.co.kr](http://www.victorinoxmall.co.kr))



**JABRA Solemate**

**휴대용 아웃도어 스피커**

등산을 하다 보면 은빛의 소형 아이와(AIWA) 라디오를 허리춤에 차고 산을 오르는 어르신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산행에 지쳐 말이 부쩍 없어진 그녀를 위해 라디오와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을 동시에 탑재하고 있는 자브라 솔메이트를 사용해 보자. 방수 방진은 물론이요 작은 사이즈임에도 뽕뽕한 베이스를 들고 있으면 무거운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가격 29만 원 대

문의 가우넷(02-755-9952)



**Scrubba Wash Bag**

**휴대용 세탁기**

휴대용 세탁기 스크러바 워시 백을 이용하면, 맘으로 흠뻑 젖은 그녀의 티셔츠를 순식간에 피죤 향 가득한 새 티셔츠로 바꿔줄 수 있다. 142g의 가벼운 무게와 돌돌 말았을 때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는 휴대용 아웃도어 제품으로서 최적의 조건이다.

가격 7만 원 대

문의 아웃도어&테크(070-4123-9895)



**Victorinox Swiss Army Climber**

**다용도 칼**

1884년부터 스위스 아이 나이프를 생산한 빅토리아록스사의 고품격 다용도 나이프 우리에게 '맥가이버 칼'로 잘 알려져 있다. 등산이나 캠핑 중 필요에 따라 다용도로 쓰기에 탁월하다. 갖가지 난관으로부터 그녀를 지켜 오늘은 둘만의 위험한 밤을 보내도록 하자.

가격 28,000원

문의 빅토리아록스몰([www.victorinoxmall.co.kr](http://www.victorinoxmall.co.kr))

**TECHNICHE Outdoor**

**Cooling Vest**

**아이스 자켓**

햇볕이 내리쬐는 정상에 다리를 무릎, 과한 일조량으로 그녀가 갑자기 현기증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TECHNICHE사의 아이스 자켓은 물론 있으면 얼마든지 지속적인 냉방 효과를 맞출 수 있다. 냉각 효과가 탁월하니 잠시 후 이제는 춤다며 징징대는 그녀를 꼭 안아 주자. "오빠는 더운걸"

가격 129,000원

문의 파파앤도이([www.papaandtoy.com](http://www.papaandtoy.com))





비키니 에잇세컨즈

### Suunto AMBIT Silver

#### 스포츠 손목시계

스포츠 브랜드의 명가 순토 앰빗은 올라운드형 스포츠 시계로 GPS, 3D 나침반, 기압 및 온도계 등 다양한 아웃도어 기능을 장착하고 있어,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영리한 녀석이다. 가끔은 적절히 모른척 해 로빈슨 크루소식 에로를 연출하자. "어디까지 떠 내려 온거지? 아무래도 우리 오늘은 보트 위에서 자고 가야 할 것 같아."

가격 799,000원

문의 순토코리아(02-518-0781)



### Logitech UE BOOM

#### 방수 스피커

길고 두꺼운 녀석이 웬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만큼, 360도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해 엄청난 출력의 사운드가 흘러나온다. 그뿐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 스테레오 모드를 즐길 수도 있다. 그녀의 양 손에 쥐어주고 스피커를 위아래로 흔들며 신나게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에 잠시 눈을 잃어 보는 건 어떨까. 어워

가격 259,000원

문의 로지텍([www.logitech.co.kr](http://www.logitech.co.kr))



MAXIM



**OLYMPUS TG-830**

**아웃도어 카메라**

거친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화질을 자랑하는 제품으로, 수중 10m 까지 버틸 수 있는 방수 기능과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도 안전한 충격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멀티 레코딩 시스템을 이용해 풀HD 영상을 찍는 동시에 1,600만 화소의 카메라로 그녀를 담아 내자. 그라비아 화보가 따로 없을 거다.

가격 399,000원

문의 올림푸스 코리아([www.olympus.co.kr](http://www.olympus.co.kr))



**BREO Dry Bag**

**방수 가방**

컬러풀하고 이뽀한 BREO의 중형 솔더 백은 훌륭한 테스트 도구로 쓰이기에 딱이다. 완벽 방수를 자랑하는 드라이 백의 성능을 시험할 겸, 비키니를 입은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바닷가로 뛰어들어보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가 아니라 가방에 꽂힌다면 너의 그녀는 별로인 거다.

가격 23,000원

문의 텐바이텐([www.10x10.co.kr](http://www.10x10.co.kr))

**ALL&B Sun Block SPF 50+**

**선블록 크림**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그녀의 백옥같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올앤비의 선블록 크림을 이용하자. 예민한 피부에도 순하게 작용하는 촉촉한 크림을 발라 주며 배려심 높은 남자처럼 보이면서,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탐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가격 50ml / 32,000원

문의 올앤비(02-3413-6021)



**Panasonic HX-WA3**

**방수 캠코더**

수중에서 영상을 찍고 싶어 하는 우리의 은밀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첨단 기계가 여기 있으니, 바로 파나소닉의 아웃도어용 방수 캠코더 HX-WA3이다.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신속한 '더블 레인지 줌' 기능과 안정적인 '손떨림 보정 기능'을 활용해 후덜덜한 그녀의 뒤태를 흔들림 없이 담아낼 수 있다. 아, 이런 용도로 추천하는 게 이난데.

가격 349,000원

문의 파나소닉 코리아([www.panasonic.co.kr](http://www.panasonic.co.kr))



**Aqua Toc**

**스마트폰 방수팩**

고가의 아웃도어 카메라와 캠코더가 없어 그녀의 핫바디를 촬영할 기회가 없다고? 썩 대신 뉘이라고, 그럴 땐 값싼 스마트폰 방수팩을 이쿠이특을 이용하자. 수중에서 동영상과 사진 촬영은 물론 영화감상 (할 일이 있겠나만...), 문자, 게임, 통화까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다.

가격 49,000원

문의 글로브톡([www.glovetoc.com](http://www.glovetoc.com))

## For Sweet Vacation

### SONY HDR-PJ660

#### 미니 프로젝터 캠코더

요즘은 하나같이 2 in 1 제품들이 유행이다. 소니의 미니 프로젝터 캠코더인 PJ660은 방금 촬영한 영상을 벽에 바로 띄우는 탁월한 기능을 자랑한다. 결전의 밤 그녀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아 함께 감상하는 좋은(?) 용도로 쓰기에 더없이 적절하다.  
가격 1,499,000원  
문의 소니코리아(1588-0911)

### iriver Wow TAB

#### 7인치 태블릿 PC

태블릿 PC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컴팩트한 사이즈 덕에 구매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녀석이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으로 최신 버전인 젤리빈 4.1을 지원하며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기대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오늘 밤엔 그녀의 옆에 찹쌀떡처럼 붙어 영화라도 한 편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  
가격 278,000원  
문의 아이리버(1577-5557)

**스웨거 바디 스프레이**

**남성 전용 바디 향수 스프레이**

여자들이 거사가 있는 날 밤 샤워를 하고 은은한 향수를 뿌린다면, 남자들은 바디 스프레이 하나로 남자다움을 짙게 풍기는 쾌감이 될 수 있다. 땀 억제 성분인 ACH가 함유되어 땀 생성 억제 뿐 아니라 땀 냄새 방지에도 좋다. 거사 전에 사용하면 은은한 향과 체취로 그녀를 당신에게 취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다.

가격 15,000원

문의 스웨거(<http://swagger.kr>)



**헨드릭스 캠핑 패키지**

**진토닉 제조 세트**

그녀와의 후끈한 밤을 위해서 살짝 알뜰알뜰한 상태로 돌입하는 건 필수. 향긋한 장미향과 청량한 오이맛을 품은 '헨드릭스 진은, 여행시 야외와 실내 어느 곳에서든 간편하게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는 캠핑 패키지를 내놓았다. 직접 제조한 칵테일로 그녀의 눈빛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가격 53,000원

문의 헨드릭스 진 공식 페이스북

[www.fb.com/HendrickGinKorea](http://www.fb.com/HendrickGinKorea)



**SONY 블루투스 스피커 SRS-BTM8**

**블루투스 스피커**

출력이 좋은 소형 스피커들이 대부분 20만 원 대를 넘어서는 데 비해 소니의 아웃도어용 스피커 BTM8은 10만 원 초반 대의 착한 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1.06kg의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음에도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 시스템을 적용해 생동감 넘치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재현할 수 있다. 끈적한 블루스라도 틀어 놓고 더 끈적끈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자.

가격 149,000원

문의 소니코리아(1588-0911)

**멀티충전 램프 by 파파엔토이**

**에너지 변환 멀티 충전 램프**

캠핑나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배터리가 없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이 멀티 충전 램프는 다양한 대안을 제공한다. USB 케이블 및 태양열, 그리고 신박하게도 사용자가 직접 크랭크를 돌려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그녀 앞에서 크랭크를 열심히 돌리며 이렇게 외치자. "너를 위해서라면 전기도 일으킬 수 있어! 뼈까!/개!"

가격 19,000원

문의 파파엔토이([www.papaandtoy.com](http://www.papaandtoy.com))



**SK 스마트빔**

**미니 스마트빔**

심심하지 않은 밤을 위해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들고 왔다면, 정육면체 모양의 이 소형 스마트 빔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영상을 감상해 보자. 가로세로 5cm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스마트 빔은 무려 50인치에 이르는 영상을 벽에 투영할 수 있다.

가격 299,000원

COOPERATION 소니코리아(1588-0911) 에이리비(1577-5557) 에블린(080-045-0450) 에잇세컨즈(1599-0007) 네바(080-3407-0288) 순토코리아(02-518-0781) 펠스스포츠(<http://www.memosports.co.kr/>) 사운드젯([www.zound.co.kr/](http://www.zound.co.kr/)) 사운드젯([www.zound.co.kr/](http://www.zound.co.kr/)) 파나소닉코리아(1588-8452) 파파엔토이([www.papaandtoy.com](http://www.papaandtoy.com)) 스웨거([www.swagger.kr](http://www.swagger.kr)) 스텔라(080-045-0450) 헨드릭스진코리아(1588-8452) 후베스트먼트([www.bestarkr.com](http://www.bestarkr.com)) 스웨거([www.swagger.kr](http://www.swagger.kr))

# 그거 왜 샀어? #9

끊임없이 물건을 질러대는 MAXIM 편집부. 그들의 리뷰는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가는데...

MODEL 손안나

## LENOVO m490s

 응재씨, 전에 쓰던 코팩지만한 넷북에서 드디어 노트북으로 넘어 온 거야? 커졌네, 커졌어.

 전에 쓰던 그 삼성의 쓰레기 넷북 n150? 이 가격의 두 배 가까이 주고 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반대로 집어버리고 싶지만, 돈이 아까워서 참을래. 원래는 '여대생 노트북'이라고 불리는 슬림하고 가벼운 레노버 s400을 사려고 했는데, 그 모델은 병신 내장 그래픽카드를 달고 있더라고. 그에 비해 이 제품은 GeForce710m을 탑재하고 있어서 어지간한 3D 게임들은 수월하게 돌아간다 길래 구입했지. 물론 SSD에서 돌린다는 전제하에서지만.

 그래놓고 결국 SSD는 귀찮다고 안 샀잖아. 써보니까 어때?

 가격대 성능비는 나쁘지 않아.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매하자마자 집에 가서 <디아블로 3>를 설치해 봤어. 구동하자마자 좀 버벅대는 걸 제외하면 즐길 만하더군. 병신 같은 점은 시프트 키가 발기안된 동양인 사이즈라는 거야. 엔터키보다 작아서

내가 물음표를 누르는 건지 쉬프트를 누르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오히려 터치패드가 키보드 절반 만해. 마우스 달면 그저 손목받이가 될 운명인데 무엇 하러 이렇게 터치패드를 배려했는지... 또 하나 사람 뻑치게 하는 건 지문인식 기능이야. 잘만 활용하면 매크로처럼 지문 한 번으로 각종 사이트에 로그인까지 할 수 있는 개간지 기능인데, 관리자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시발 장난해? 내가 컴퓨터 주인인데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하라니. 집주인이 현관 문 열려고 옆집 아줌마 불러다가 '문 좀 열어주세요'하는 꼴이잖아.

 워워~ 진정해. 40만 원이라는 가격에 건담 베이스 시스템이라도 구축할 생각이었어?

 하긴. 뻑치다가도싼 가격 생각하면 다 용서가 돼. 나처럼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노트북은 괜찮은 선택일 거야. 나아 어차피 일하는 척, 아등이나 보려고 구매한 거니까 동영상 잘 돌아가고, 워드 작업만 되면 그만이거든. 뭐 이색하야?



### LENOVO m490s

11번가에서 본체에 램 4기가를 추가해 구매  
가격: 본체 39만 원+램 추가 3만 9천 원  
= 42만 9천 원



## CHEVROLET 2013 TRAX

 진옥 팀장님, 새 차 뽑으신 거 축하드려요. 이 차 왜 사셨어요?

 난 차 볼 때도 얼골 먼저 보거든. 이 2단 라디에이터 그릴 좀 봐. 갑옷처럼 생겼지 않았어? 매서운 눈매의 헤드램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단단해 보이는 게 남자답게 생겼잖아. 언뜻 보면 SUV같지만, 사실 이거 소형차다? 난 경제적인 남자거든. 신체 건강한 미혼의

 지금 여성 독자한테 어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생긴 건 SUV인데 탈량 1.4리터 엔진이 말이 돼요? 게다가 가솔린 엔진이네요.

 하루 종일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1.4리터 가솔린 엔진이 얼마나 경제적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2리터 디젤 엔진하고 비교했을 때 세금이 절반 정도야. 게다가 디젤차는 환경부담 개선금도 내야한다고!

 흠... 점점 이차의 정체성을 모르겠네요.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과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보는 기분일까? 분명 SUV형 모델이지만 사실 도심 주행에 더 어울리는 것 같아.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에 가깝다고 봐야지. 레저용이라고 해도 우리 같은 직장인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레저를 즐기겠어? 차라는 게 출퇴근 할 때 편하고 복잡한 시내운전에서 빛을 발해야 하지 않겠어? 그런 면에서는 트랙스가 딱이지. 도심에서는 도심형으로, 레저를 즐길 때는 레저용으로!



### CHEVROLET 2013 TRAX

배기량소 출력용 150km 주행 차량  
100만 원 할인받아 저음  
가격: 2,200만 원

## GIANT FIXER F



픽시 자전거대!! 승민 선배도 이런 거 타요?



선배 '도'라니... 나는 타면 안 되나?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디제이쿠 형님도 픽시 마니아라잖아. 여름에 한강에서 라이딩 좀 즐겨보려고 구입했지. 픽시 카페에서 이 녀석이 '구름성'이 좋다고 추천하더라고. 무게가 8kg대로 다른 픽시에 비해 더 가벼워. 프레임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거든. 확실히 한강에서 페달을 조오오나 돌리다가 현자타임이 온

것처럼 스르르 힘을 빼도 속도 변화가 크지 않더라. 라이딩 용으로 제격이지. 그나저나 요샌 여자도 없고... 밤만 되면 이거 끌고 기어나갔더니, 허벅지에 근육이 올라오고 있어. 근육이 생기니까 원래 있던 무릎 통증도 없어졌다니까?



무릎 통증이라니... 너무 슬퍼요. 자전거를 탈 게 아니라 케토티를 붙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굴 노친네로 아나... 다른 자전거는 중심만 잡으면 되지만, 픽시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기술을 익혀야만 탈 수 있다고, 니가 생각하는 그런 샵집 아저씨 자전거가 아니야. 위험하긴 한데,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간지가 중요하지 않겠어?

물론 기어가 고정돼 있어서 오르막길에서는 좀 가오가 안 살긴 해. 공동을 하는 높이 바짝 쳐두고 실룩 실룩거리면서 올라야 하거든.



이상한데 어필하긴 좋겠네요. 유튜브에서 픽시 자전거 모기 영상 본 적 있어요. 완전 멋있던데... 선배도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이 모델이 너무 가벼워서 트릭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기껏해야 스키딩(드리프트), 페이키(뒤로가기) 정도? 더 심한 트릭은 자전거 프레임에 무리가 갈 것 같아. 시바, 왜 온냐. 안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모범은  
아무나  
하나



### GIANT FIXER F

합정동 자이언트 바이시클에서  
20% 세일가에 특별  
가격: 40만 원



## STEREO VINYL CRUISER



편집장님, 스케이트보드는 왜 사셨어요?



집에서 회사까지 타고 다니려고 싶어. 난 출퇴근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싶거든. 크루저 보드는 미니 사이즈에 플라스틱 데크라서 가방 안에 쏙 들어가고,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지. 특이하게도 보드를 샀더니,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키링과 더 쓸모없어 보이는 스티커를 같이 주더라. 보드랑 잘맞출할 수 있는 선글라스도 부속품이야. 이것도 그닥... 스테레오가 나에게 3가지 쓰레기를 준거야. 점원이 보드가 작아서 균형 잡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니만 하루 이를 가지고 노니까 훗, 별거 아니었어. 요즘은 거의 날아다니는.



그거 타다가 다리 다치셔서 한동안 병원 다니셨잖아요?



바이널 시리즈는 온리 주행용이지, 모기를 부리는 스케이트가 아니거든. 자신감이 조금 붙어갈 쯤,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옆에서 까불거리는 초딩들을 피하려고 알리(점프)를 시전하다가 그만... 발목 인대 두 개가 늘어났었지. 그 덕에 정형외과 다니느라 피같은 30만 원만 날렸다. 젠장!

### STEREO VINYL CRUISER

이태원 투사 스케이트보드 매장에서 구매  
가격: 139,000원  
+병행비 30만 원..



# MAXIM 뽐뿌질

혼자 가는 휴가,  
애네들이라도 챙겨...



## 조강할 때 편한 이어폰, 데논 액서사이즈 프리

글로벌 오디오 전문 브랜드인 데논의 이어폰 액서사이즈 프리를 소개한다. 데논 액서사이즈 프리는 블루투스 3.0을 적용하여 케이블 없이 음악 감상이 가능하다. 또 앰프가 내장되어 풍부하고 웅장한 음색을 누릴 수 있다. 에어쿠션과 유연한 넥밴드는 격렬한 운동할 때도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한다. 항균처리 된 이어팁은 운동 중 흘리는 땀으로부터의 오염을 예방한다. 이제 데논 액서사이즈 프리로 음악을 들으며 한강변을 달려보자!  
데논(www.denon.co.kr)



## 팅크웨어, 전후방 HD 영상녹화 블랙박스 아이나비 G700출시

팅크웨어가 HD급 전후방 영상 녹화를 지원하는 2채널 블랙박스 아이나비 G700을 선보였다. 아이나비 G700은 차량 외부에서 블랙박스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큐리티 LED 기능을 추가했다. 또 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해 주차 중 외부 움직임을 감지하고 영상을 녹화한다. 본체와 거치대가 일체화되어 전면 유리에 밀착함으로써 외부의 작은 충격도 놓치지 않는 심세함은 아이나비 G700의 강점이다. 내차에 풍 뿌리고 도망간 놈애! 다 봤거든? 딱 기다려!

349,000원, 아이나비(www.inavi.com)



## 후지필름, 방수 카메라 XP200

바캉스 시즌에 맞춰 후지필름이 실용성을 더한 아웃도어 방수 카메라를 출시했다. 이번 출시된 XP200은 아웃도어 카메라인 만큼 방수 기능 이외에도 충격 방지, 방한, 방진 등의 보호 기능을 갖췄다. 연사 모드로 바로 전환 가능한 고속 연사 모드 버튼이 있어 빠르고 선명한 연속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 다양한 아트필터 효과와 와이파이 기능이 내장되어 사용상의 편리와 재미를 더했다. 울여름 바캉스에는 XP200의 수중촬영으로 색다른 추억을 담는 건 어떨까?!

349,000원, 후지필름  
(1577-4798, www.fujifilm-korea.co.kr)



## WD, 초박형 1TB 하드 드라이브 출시

스토리지 산업의 선구자인 WD가 1TB 용량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2.5인치 하드 드라이브 WD 블루 7mm를 출시한다. 울트라북이나 초소형 노트북의 부족한 저장 공간 때문에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드라이브의 부품을 충격에서 보호하는 WD 쇼크가드 기술을 탑재하여 튼튼하며 저발열과 저소음의 특징이 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과 고용량 스토리지, WD 블루 7mm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179,000원, WD(www.wd.com)

## 델 코리아, 멀티 터치 모니터 S2240T 출시

세계 선두 IT 기업 델이 21.5인치 멀티 터치 모니터 S2240T를 출시한다. 이번 출시될 S2240T는 윈도우8을 채택하고 10포인트 멀티터치를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풀 HD 1920X1080 해상도와 울트라 와이드 시야각으로 어떤 각도에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제공한다.

친환경적 설계로 전력 효율성을 높인 S2240T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착한 모니터다.  
504,900원, 델(www.dell.co.kr/monitor)



## 뱅앤올룹슨, 베오랩 5 블랙 에디션 출시

덴마크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이 베오랩 5 블랙 에디션을 출시하고 15대만 한정 판매한다. 그랜드 피아노를 연상케 하는 블랙의 고풍택 재질은 고급스러움을 더욱 강조했다. ABC 시스템을 장착하여 방의 구조와 가구의 배치를 분석해 맑고 순수한 소리를 재현한다. 한정판이지만 국내 진출 15주년을 기념하여 기존 모델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 블랙의 시크함을 가져볼까?

뱅앤올룹슨(02-518-1308)



# Motor

CAR OF THE MONTH

상 도 상 실

## 商道喪失 Lamborghini Urus

이제 람보르기니 타고  
과속방지턱 막 넘어도 되나?



이것이  
차여,  
우주선이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원래 트랙터를 팔아 부자가 된 사람이다. 어느 날, 그가 페라리를 몰다가 결함이 생겨서 엔초 페라리에게 이를 불평했다. 그러자 페라리는 “트랙터나 만드는 사람이 슈퍼카를 뭘 알겠느냐”고 대답했고, 화가 난 람보르기니가 슈퍼카 제작을 시작했다는 일화는 레전설처럼 전해 내려온다. 누가 또 람보르기니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이번엔 SUV를 세상에 내놓겠다고 한다. 2012 베이징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했던 콘셉트 SUV ‘우루스’를 2017년부터 연 3천 대 규모로 양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프나 랜드로버에서 “저 상도덕 없는 새끼가 남의 밥그릇까지 넘보네?”라며 쌍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얼굴은 아벤타도르의 날렵한 콧날과 매서운 눈, 육각형 벌집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꼭 빼다박았다. SUV의 얼굴로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날카로운 외모, 동급 SUV보다 한참 낮은 1,660mm의 전고는 “아, 이건 람보르기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든다. 성능도 슈퍼카 못지않다. 최고 출력 600마력을 발휘하는 V형 10기통 5.2리터 엔진이 우루스에 장착될 예정이다. 그리고 람보르기니의 강점인 탄소섬유 기술을 적용해 차체도 경량화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루스’가 람보르기니의 역사와 본질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비난도 거세다.

슈퍼카나 잘 만들 것이지 애꿎은 SUV 시장엔 왜 기웃거리느냐며 ‘상도’를 논하는 이도 있다. 럭셔리 SUV 시장에는 난데없이 피바람이 불게 생겼다. 2014년 마세라티가 첫 슈퍼 럭셔리 SUV ‘쿠방’을 출시할 예정이고, 벤틀리도 2015년부터 같은 세그먼트의 ‘EXP 9F’를 양산하기로 했다. 2017년 ‘우루스’까지 가세한다면 그야말로 개싸움이 될 판이다. 럭셔리 SUV 시장의 정점에 있던 ‘레인지로버’는 갈 곳이 없어졌다. 레인지로버가 가진 모든 하이엔드 기술이 평범해 보이니까까지 하니 말이다. 글썄... 레인지로버에게는 미안하지만, 운전자들은 갈수록 진화하는 SUV를 보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억울하면 너네도 스포츠카 만들던지! 🏎️

Motor

This is My Car

## BMW Motorrad S1000 RR

오너드라이버 독자와 MISS MAXIM이 함께 한 독자의 자동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이번 달에도 수많은 독자들이 애마를 공개했다. 두 번째 행운의 독자는 BMW 바이크를 모는 스피드광이다.

BY 이영비 WORDS 유승민 PHOTOGRAPH YuD  
MODEL 2012 MISS MAXIM 우승자 단영

### TUNING TIP

#### 브렘보 브레이크 실린더

"S1000RR에는 원래 브렘보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액을 짜주는 실린더로는 '닛산'이라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 달려 나온다. 지금은 브레이크 실린더까지 브렘보 제품으로 바꿨다.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에게 브레이크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파트다. 바이크는 잘 달리는 만큼 잘 서야하기 때문이다."

가격 70만 원대

당신의  
로망이  
펼쳐진다



TUNING TIP

**BMW 모터라드 포차임 슬라이더**

"넘어질 경우 몸체가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버티는 바이크 파손을 1차적으로 막는 녀석이다. 코어의 강성이 좋아야 무너지지 않겠지? 길의 채질은 슬림이 일어났을 때 말 그대로 차체가 슬라이딩할 수 있게 잘 갈려야 한다. 최근 사고가 났을 때 이 녀석이 특특히 역할을 해냈다. 아, 물론 한 번 그러고 나면 새 걸로 같이줘야 한다."

가격 20만 원

## Reader's Car 화보 촬영 프로젝트 No.2

키가 187cm? 나도 우리 호빗족 중에는 최장신에 속하는데 장신끼리 만나 반갑다.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크면 라이더 포스는 좀 떨어지지 않나? 맞다. 바이크를 멋있게 타려면 당신처럼 작은 게 좋다. 내가 타면 바이크가 영 작아 보이니까. (토닥토닥)작은 키가 원래 좀 간지이긴 하지만 너무 좌절하진 마라. 살다보면 키 커서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안전하게 타려면 큰 게 좋다. 다리가 짧으면 바닥에 발이 완전히 안 닿거든. 그럼 짝다리를 짚거나 엄지발가락으로 서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무릎을 구부려도 발바닥이 다 닿기 때문에 바이크가 넘어지려 할 때나, 경미한 사고 상황에선 허리나

다리 힘으로 안 넘어지고 버틸 수 있다. BMW 모터라드는 어떤 바이크인가? BMW는 섬세한 전자제어 장치가 많다. 내 바이크는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게 감지되면 스스로 RPM이 떨어지면서 정지한다. ABS 모드도 따로 있고, 클러치 없이도 주행 중에 변속한다. 여자들은 남자가 모터사이클 타는 거 위험하다고 싫어하지 않나? 스피드를 즐기는 건 자동차로도 충분한데? 자동차로 즐기는 스피드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나 차도 있다. 모터 사이클이 주는 즐거움과 자동차가 주는 즐거움은 완전히 별개다. 뭐, 차도 있다고? 이거 능력남이었군. 그리고 바이크 타는 남자 싫어하는 여자도 많지만, 내 주변엔 라이딩

실력이 상당한 여자도 꽤 있다. 정말인가? 가끔 라이딩 슈트를 입고 레이스 머신을 모는 여자를 도로에서 발견하면 정말 눈을 땔 수가 없다. 여자가 이 마초적인 기계에 올라 타고 그걸 섬세하게 제어한다는 것만으로도 환상이지. 헬멧을 벗으며 긴 생머리를 찰랑~ 대체 그런 여자는 어디 있는 거냐? 동호회 같은 데 알아봐야 하나? 라이더 친구는 동호회보단 같은 샵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 아는 누나도 CBR 1000RR을 타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 여자 뒤에 타고 허리 딱 잡으면 자세가 좀 더티하러나...예쁜가? 물론이다. 하지만 남친 있더라.



바이크 주인	정기 구독자 김유일
직업	현대제철 근무
내 차 애칭	비너스 (암컷이며 오빠 동생 사이임)
다음에 지를 바이크	BMW 모터라드 HP4

# Motor

## This is My Car



### TUNING TIP

#### 프리핑 윈드 실드

“고속 주행에 윈드실드 튜닝은 기본이다. 순정으로 달려있는 윈드 실드는 평평하고 각도가 낮다. 안그래도 속도가 빨라지면 시야가 좁아지는데, 바람이 더 깊이 얼굴로 파고들면서 시야를 방해한다.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땐 자세를 더 많이 숙여야 하지만 이걸 가운데가 볼록하게 되어있어서 바람을 더 높이 보내주기 때문에 자세를 좀 덜 숙여도 얼굴에 바람을 맞지 않는다.”  
가격 17만 원대

센들 슈즈원

FILM 김성수 HAIR&MAKEUP 정혜민 ASSISTANT 정혜민  
COOPERATION 슈즈원



# Motor / Event

## 독자의 차 화보 촬영 프로젝트 This is My Car

오너드라이버 독자를 위한 MAXIM Motor의 메가톤급 이벤트! 당신의 자동차를 사진으로 찍어 MAXIM 편집부로 보내라. 한 명(또는 한 팀)의 독자를 선정하여 당신의 자동차를 주인공으로 한 MAXIM 화보를 촬영하겠다! 당신의 애마에게 지상 최고의 호강을 시켜줘라!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는 바로 '내 차' 입니다.



배기량, 최고속도, 마력 등... 수많은 기준을 놓고 서로 최고의 차라며 떠들어대지만 '내 차'라는 특별한 존재 앞에선 모두 무의미한 숫자일 뿐이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수많은 추억을 담고 달리는 '내 차'. 심지어 나를 먹여살리는 것도 '내 차' 뿐이니까. 이 화보의 주인공은 어느 자동차 잡지처럼, 자동차 회사의 신차 홍보를 위해 제공된 '남의 차'가 아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실 새 없이 달려준 바로 '당신의 차'다.



### “타 본 중에 제일 좋은 차는 무엇이었나요?”

지난 5년간 수십 종의 신차를 시승해 온 MAXIM의 자동차 전문 에디터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 MISS MAXIM을 만나다!

잡지로만 만났던 미스맥심을 양팔에 끼고 잊을 수 없는 기념 촬영을! 간직해 뒀다가 아들에게 보여줘라.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다.”

### 당신의 차를 MAXIM 화보에 영원히 남기다!

레이싱걸을 거느린 모터쇼 슈퍼카처럼! 당신 자동차 인생의 한 페이지를 MAXIM에 영원히 남겨주자.

### 당신의 자동차를 전국에 뽐내라!

열심히 튜닝하고 꾸민 당신의 자동차를 SNS 외엔 마땅히 자랑할 데가 없었나? MAXIM이 대신 전국에 자랑해주겠다!

### 이게 정말 내 차 맞아?!

최고 수준의 MAXIM 포토그래퍼, 조영팀, 에디터가 당신의 자동차를 멋진 화보로 남기기 위해 총 출동한다!

### 덤으로 1년 정기 구독까지!

당신의 차가 곧바로 구독 혜택도 안겨줄 거다. 당신의 애마가 실린 MAXIM 다음호가 정기 구독 첫 호!

#### 응모 요령

- 당신의 자동차를 직접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 당신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차종(모델명)/ 구입연도도 적어라.
- 메일 보낼 곳: [event@maximkorea.net](mailto:event@maximkorea.net)

#### 당첨 확률을 높이는 Tip

- 당신 차에 얽힌 재미진 사연을 적으면 더 유리하다.
- 안전한 차보다는 당신만의 개성으로 튜닝한 차가 더 유리하다. 갓 뽑은 새 차라면 튜닝 안 해도 된다.
- 같은 차를 모는 동호회 친구가 있다면 함께 신청해도 좋다. 자동차 2대면 미스맥심도 2명 데리고 나갈테니!



미스맥심과 만나려고 남의 차를 찍어서 보내면 큰 화를 입을 것이야!



MAXIM  
시승기  
#31

## FORD All-New ESCAPE

원래 바람 피워서 낚은 자식이  
큰 인물 되는 법일세 BY 유승민

3,800 만 원

### 터프가이? 너나 많이 해라

이 달에 MAXIM에선 전혀 다른 두 에디터가, 전혀 다른 두 대의 SUV를 시승했다(내 밑에 하나 들어왔어 유후~). 맞상대는 JEEP 랭글러. 시승자인 후배 녀석은 랭글러만큼이나 험기왕성하고,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질질 흘리는 20대다. 30대 중반을 향해가며 '은화 앤 자상'한 어른으로 다듬어진 나뉘에겐(성육은 좀 감퇴) 포드 이스케이프의 키가 맡겨졌다. 이스케이프의 직전 모델인 2011년형이 이렇게 무지 막지하게 생겼던 걸 떠올리면 지금의 2013년형은 이스케이프 특유의 마초적인 요소를 상당 부분 거세하고 나왔다.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저하되기 시작한 에디터와 똑 닮은 셈이다.

2,500cc에 달하던 배기량은 1,600cc까지 힘을 쭉 뺐다. 후배 녀석의 랭글러나, 구형 이스케이프처럼 에디터도 한때는 "남자는 힘!" 하며 깨기 부리고 무모했던(월이 없었던 게 아니고) 적이 있었다. 지나고 보니 그런 거 다 소용없다. 형이 살아보니 오프로드 같은 데 나갈 일 1년에 한두 번도 없더라 임마. 형 나이 되면 애인이랑 도시적으로다가 홈플러스 가서 양 손 가득 장 봐오는 가정적인 남자가 더 먹여주는 거야. 획기적인 다운사이징으로 연비는 확실히 좋아졌다. 변한 게 없는 10.1km/L의 연비는 종전 모델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신연비 측정 기준이 엄격해지면 걸 감안하면 상당한 개선이다.



### 출생의 비밀:

#### 애가 나를 안담고 옆집 박가눔을 빼담았어

쪽 빨아 놓은 듯한 지금의 이스케이프는 에디터가 '거세'라는 극악무도한 표현을 쓸 정도로 날렵해졌다. 네모지고 단순무식해 보이던 아버지(종전 모델)와 비교하면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다. '올 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 다른 차다. 같은 시리즈의 차가 부자시간에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그게 사실은 이 녀석이 이름만 이스케이프지, 다른 집안의 씨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이다. 갑자기 웬 아침드라마 시츄에이션이냐고? 진실은 이렇다. 2008년경에 유럽에서만 팔던 '쿠가'라는 이름의

포드차가 있었다. 포드가 그 '쿠가'의 신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마치 '이스케이프'의 신형인 것처럼 이름을 바꿔 달고 나온 거다. 우리가 원래 일던 이스케이프는 사실상 단종되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아들이 당신의 성을 따지만 얼굴은 옆집 박가눔을 썩 빼담은 거지. 그래도 어쨌거나 내 마누라한테 씨 뿌리게 박가눔인 건 있지만 어쨌거나 대는 이어야하지 않겠어? 내 자식이라고 우겨야지. 아마 포드는 오랜 기간 인지도가 쌓인 '이스케이프'의 브랜드 가치마저 단종시키긴 아까웠나보다.



## 시련은 포드를 변신시킨다

10여 년 전의 포드는 여전히 안일했다. 미국 기품값은 여전히 싹고, 미국 국민들은 '그냥' 다들 포드를 탔으니(우리로 치면 현대차), 곧 악몽이 찾아왔다. 언제까지나 포드의 차지일 것만 같던 미국 중형 세단 시장이 캠리를 선봉에 세운 일본 차에 허우하게 점령당하고 만 거다. 포드는 '미국 국민차'라는 타이틀을 잃었다. 대개 잘나가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는 안방에서의 탄탄한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지만, 미국의 서민/중산층이란 거대한 시장을 빼앗기며 '본진'을 침탈당한 포드는 '내몰리듯' 세계 시장에 던져졌다.

벤츠나 아우디, BMW가 경쟁하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건 가격이 아니다. '얼마나 더 럭셔리한 차로 돈 있는 자의 허세를 충족시켜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포드는 원체 비싼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다. 중저가로 대중을 공략해야 했다. 중산층의 자동차 시장은 가격경쟁력을 조금만 잃어도 패하는 가혹한 무대다. 포드는 그런 무대에서 싸워야만 했다. 가격경쟁력에 치명적인 각국의 보호 무역 조치와 높은 관세 장벽 또한 항상 포드가 이겨내야 할 헨디캡이었다.

경쟁 상대도 더욱 버거워졌다. 고급차 시장은 동등한 조건에 놓인 글로벌 브랜드끼리 벌이는 경쟁이지만, 포드는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은 국민차를 상대로 간근일척의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자국 시장을 빼앗기고 정글에 던져진 포드는 지난 10년 간 언제나 사활을 걸고 진화를 거듭해야만 했다. 세계 시장 속 다양한 나라의 대중적 기호에 맞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매년 각국의 터웃대감과 싸우면서, 가격경쟁력까지 갖춰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됐다. 한 때 광활한 미국 시장에 인주했던 포드는 이제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 토달 리콜

출시 첫 해인 작년에 이스케이프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충분히 먹힐 만한 아이템이었지만 자기 안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무려 세 번이나 리콜 조치를 겪은 거다. 한 번은 엔진 화재 위험이라는 무시무시한 설명도 뒤따랐다. 항상 그렇듯 자동차 리콜 뉴스가 뜨면 언론이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발견한 듯 호들갑을 떨어대니, 차를 사는 입장에선 어디 무서워서 포드차 타겠나 싶다. 하지만 단언컨대 리콜은 결점이 아니다. 브랜드 이미지의 치명적인 타격과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용기있게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 포드는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3번의 자발적 리콜 조치는, 차를 세상에 내놓은 후에도 그에 결함이 있던 않은지 되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그렇게 세 번 찾아낸 결함을 모두 극복해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급발진이 되고 사람이 죽어도 차체 결함을 부인하고 감추는 데만 급급한 회사도 있거든.



## 내가 1빠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이스케이프는 평범하지 않다. 'SUV는 오프로드도 잘 가고 토코도 좋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을까? 지금껏 국산, 수입차를 통틀어 2,000cc 이하의 저배기량 SUV 따위는 없었다. 그렇기에 1,600cc의 저배기량 SUV 이스케이프는 독보적인 존재다. 최근에 쉐보레에서 트랙스라는 1,400cc의 실용작(최대 140마력)을 내놨고, 내년엔 르노삼성에서 부라부라 1,200cc의 QM3를 내놓는다고 한다. 저배기량 SUV 장르가 블루오션임을 이제야 모두 깨닫기 시작한 거다. 하지만 단순히 콤팩트 SUV의 몸통에 소형 엔진을 넣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스케이프를 독보적이라 하는 이유는 배기량이 겨우 1,600cc인 주제에 최대 출력은 180마력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배기량이 2,200cc에 달했던 2011 이스케이프도 최대 출력은 173마력에 그쳤다. 심지어 연비는 훨씬 더 좋아졌다. 사기 유닛이라고 하지 이런 걸?

## 가격으로 국산차와 맞짱피기

한국에선 뭐든 비싸야 잘 팔린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많은 수입차에 '호구 권장 가격'을 매기지만 포드차는 가격에 있어 매우 개성 충만하다. 포드에서 제일 싼 포커스는 2천만 원 대이고, 포드에서 제일 비싼 익스플로러도 4천만 원 대에 구입 가능하다(진짜?). 앞서 말했듯 한국에서 포드의 상대는 일본 차도 유럽 차도 아닌 한국 차다. 그럼 비슷한 값의 국산 4륜 SUV는 뭐가 있나 한 번 볼까?



## ★수입차 할부/리스★

10년경력 믿을 수 있는 딜러  
김맥심 팀장

신용대출/신체담보/자동차광/정기구독/직업알선  
민간조사/유혹알바/채권추심/사업자리스/싸알리스  
친절 상담 ☎010-0069-69XX  
www.facebook.com/editors.maxim



기아 모하비 JV300	3,830만 원
쌍용 렉스턴W Noblesse	3,813만 원
<b>포드 이스케이프 1.6 SEL</b>	<b>3,800만 원</b>
현대 맥스크루즈 2.2	3,715만 원
기아 쏘렌토R 2.2디젤(플옵)	3,682만 원
현대 싼타페 e-VGT R2.2	3,637만 원
쉐보레 캡티바 2.2디젤(플옵)	3,576만 원

무슨 시승기가 이렇게 끝나나고?

어찌 이 좁은 지면에 가벼운 활자를 늘어놓고 자동차의 주행을 논할 수 있겠나.

자, 이제 차에 올라타라. 에디터가 옆에 앉아 차를 몰면서 진짜 이스케이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차 안도 구석구석 디버 봐야하지 않겠어?

QR코드 스캔 실시! 📱



Motor

Girl Talk

5,270 만 원

MAXIM  
시승기  
#32

## Jeep Wrangler Sahara

개나 소나 짐차라 부르지 마라  
듣는 오리지널 지프, 기가 차서 웃는다

BY 김희성 손안나 박정국

에디터의  
히치하이킹  
실력



여행가방 만다리나덕  
시즌 비키 크리에어샵





자, 아리따운 선배님을, 어서 차에 오르시죠. 오늘은 제가 회사까지 모시겠습니다.

**정옥 씨,** 차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짧치 입은 여자는 올라타기 힘들겠다. 설마 일부러... 키가 레인지로버보다도 높은 184cm예요. 딱 제 키네요. 조심하지 않으면 팬티 보이니까 사이드스텝 밟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꼭 마을버스 타는 것 같죠?

**변태가** 키까지 속이네! 그나저나 이 차는 사이드스텝이 있네? 내가 예전에 타 본 랭글러는 사이드스텝이 없어서 차에 오르기가 더 힘들었는데.

**안나 씨,** 또 언제 루비콘 타는 남자를 만났어? 사하라보다 오프로드에 더 최적화된 게 루비콘인데 개가 사이드스텝이 없어. 거친 바위산을 달리면 사이드스텝이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이 차랑** 다른 거예요? 생긴 건 똑같은데.

**잘 보면** 달라. 루비콘은 투톤이고 사하라는 원톤이야. 이 녀석은 사하라니까 지붕과 바퀴를 덮고 있는 펜더랑 차체 색상이 같지. 자세히 봐 바. 그때 단 차랑 조금 다른 게 느껴지지 않아?

**오, 그리고** 보니 그 차는 직물 시트였는데 이 차는 가죽 시트네요?

**복잡한 거 싫어하는** 랭글러와 달리 사하라는 승차감을 높이는 18인치 휠을 사용했고, 열선 가죽 시트, DMB,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등 오프로드 주행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다 갖췄어요. 오프로드는 물론이고, 온로드의 안락한 주행도 문제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루비콘이 터프가이 그 자체라면 사하라는 와일드하면서도 젠틀한 남자라는 거지. 그리고 뭐랄까? 루비콘을 타는 남자가 '차랑'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라면, 사하리를 타는 남자는 '차에서' 데이트하는 걸 즐기는 남자일 것 같아.

**실제로** 그 루비콘 타는 남자가 딱 그랬어요.

주말에는 열 일 제치고 무조건 차 끌고 산에 가더라도, 주말에 여자 안 만나고 차만 타는 거 보면 차랑 데이트한다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선배는 이 차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좀 거칠고 박력 있는 걸 좋아하거든.

**여기** 뭐 부수거나 때릴 거 없어요? 제 거칠고 박력 있는 면모를 노출하고 싶은데, 그나저나 회성 선배 쪽 문이 덜 닫혔어요. 문 좀 세게 닫아주세요.

**어?** 이상하네. 잘 닫은 것 같은데 덜 닫혔네. 역시 상남자를 위한 차네. '퐁!' 소리가 나게 세게 닫지 않으면 문도 잘 안 닫히고 말이야.

**맞아요.** 정말 투박해요. 보닛도 걸쇠를 풀고 힘차게 연 다음 지지대로 고정해야 해요. 그 흔한 펌프식 고정이나 열림 버튼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날로그** 같아서 오히려 터프하고 남자다워 보여서 좋은데? 아참, 회성 선배, 두껍 열리는 차 좋아하죠? 이 차 두껍 열리는 거 알고 있어요?

**오!** 두껍도 열려? 정옥 씨 두껍 좀 열어줘!

**저...**도 그리고 싶은데 이 차 두껍이 무거워서 열려면 장정 셋은 필요할 거예요. 한 번 열려면 풀고 조이고 얼마나 힘들다고요. 게다가 뒤편 하드톱은 전용 공구가 없으면 열지도 못해요.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녜요.

**정말** 사나이의 차라는 말이 딱 맞네. 이래저래 차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차는 왜 변속 레버가 두 개나 있어?

**왼쪽에** 있는 건 변속 레버가 아니라 트랜스퍼 레버라는 거예요. 도로 사정에 따라 2H, 4H, N, 4L의 4개 모드를 선택하는 레버예요.

**이건** 내가 잘 알아. 4륜 SUV를 많이

## Jeep의 전우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 1 기아 레토나

일명 '군토나'라고 불리는 한국군 대표 군용차다. 군대에 있으면 맨날 보는 차라 만만히 봤지만 미사일 발진 시 8초 이내에 17m를 회피할 수 있는 날쌔 녀석이다.



### 2 랜드로버 시리즈1

영국 SUV의 자존심 랜드로버도 지프처럼 군용차에서 시작했다. 영국이 독일군의 포격으로 폐허가 되자 영국 정부가 랜드로버에 4륜 군용차 생산을 주문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차가 랜드로버 시리즈1이다.



### 3 람보르기니 LM002

슈퍼카만 만드는 줄 알았던 람보르기니가 만든 비운의 군용차. 미군 다목적 군용차량에서 허머와 경쟁했지만 높은 가격과 낮은 실용성 때문에 301대를 생산하고 단종되고 만다.



### 4 허머 H1

1991년 미국의 걸프전 발발과 동시에 주목받게 된 미국의 험비차량을 민간용으로 개조한 차량이 바로 허머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민수용 허머 H1 1호차를 선물받기도 했다.

타봤거든. 2H는 온로드에서 후륜으로 달릴 때, 4H는 사륜으로 악천후 도로를 달릴 때, 4L은 토크를 높여 극심한 오프로드를 4륜으로 달릴 때 사용하는 거야. 지난번 강원도 워크숍 갈 때 계속 진흙탕에 바퀴 빠지고 고생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만약 사하라를 타고 4H나 4L로 달렸으면 그 개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지.

**그런 정말 너무 자주 빠지더라. 혼나야겠어! 그런데 이 차 잘 나가는 것 같아? 솔직히 덩치에 비해 그렇게 힘이 좋은 것 같진 않아. 몸매는 추성훈인데 힘은 그냥 비리비리한 남자랄까? 지도 몰아보니 스펙이 좀 달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실망스러웠어요. 5단 변속이라니... 티코도 요즘 나오면 6단으로 나올 판인데 말이지.**

**엔진 배기량도 2.8리터인데, 최대 출력이 200마력밖에 안 돼요. 대신 디젤이라 토크는 좋구요. 최대 토크 46.9kg.m이면 나쁘지 않죠. 파워 넘치는 남자가 지구력 좋은 남자보다 끌리지 않아요?**

**둘다 좋으면 더 좋잖아.**

사하라는 순간적인 힘이 참 좋아요. 레인지로버가 엔진 회전수 2,500~5,500rpm에서 최대 토크 63.8kg.m를 뽑는 반면, 랭글러는 1,600~2,600 rpm의 낮은 엔진 회전수에서도 최대 토크를 뽑으니까 단박에 튀어나가는 힘이 엄청나요. 안나 선배가 점심 시간 되자마자 튀어나가는 기적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죠.

**시끄러워 그나저나 이 차 소음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처럼 조신하고 목소리 작은 여자는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을 것 같아.**

**난 이 그르렁거리는 디젤엔진 소리가 좋아. 포효하는 수사자 같아. 지프 브랜드에 정말 어울리지. 운전자도 그런 남자일 것 같고.**

**그런데 나 좀 앉자리로 옮기면 안 돼요? 뒷좌석 너무 불편해요. 허리 아파서 할머니 되겠어요. 차가 이렇게 큰데 뒷좌석이 너무 작은 거 아녜요? 게다가 뒤로 젖혀지지도 않아요. 뒷좌석이 좁은 건 트렁크가 넓어서 아닐까요? 사하라의 트렁크 용량이 1,310리터래요. 셋이 누워서 자도 되겠네요. 한 숨 주무시고 가실래요?**

**뒷좌석이 좁고 트렁크 용량이 큰 걸 보면 가족형 SUV라기보다 딱 레저를 위한 남자의 장난감이네. 예고가 강하겠는 걸?**

**정욱 씨는 이 거대하고 비싼 장난감을 운전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전방 시야가 탁 트여 도심 주행하는 기분이 아주 죽어줘요. 딱 막힌 강변북로에서도 어느 차선이 잘 나가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다른 차를 내리깔고 보는 맛도 있고요. 후훗, 여자가 보기엔 어때요?**

**사하라를 모는 남자가 소개팅에 나온다면 아무리 별로라도 두 번 이상은 만나보고 싶은 것 같아. 모험심이 많고, 진취적인 일을 할 것 같거든. 그리고 왠지 몸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희성 선배는 어때요?**

**지프 랭글러라는 고유명사가 왜 지프차라는 보통명사가 됐는지 알 것 같아. 직사각형 보디, 원형 헤드램프, 7개의 슬롯 그릴... 한결같이도 볼 때마다 매료된달까? 나도 지프를 타는 남자라면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 같아.**



BY 김태성, 송연나 박정욱 PHOTOGRAPHI ZHO HAIR&MAKEUP 정혜민 ASSISTANT 이호진 FILM 김성수 COOPERATION 크라이슬러 코리아 미디어센터(02-546-776) 바이프라이머서(02-546-7764) 현의영술법리(010-6235-8808)

# Motor Extreme Bike



## 레드불 X 파이터스 똥줄 타는 모터크로스 경기

지난 6월 1~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레드불 X 파이터스 모터사이클 경기. 어디 레드불만큼 마치게 하는지 볼까?

### 편집장님, 방사는 정말 없...없는 거죠?

아싸, 레드불 X 파이터스 취재라니! 풍문으로만 들어온 화려한 모터스포츠 취재에 반가움도 잠시, 하필 개최지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방사는 구름이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일본, 그 중에서도 망언이 범람하는 우경화의 핵심 지대 오사카! 거기에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축한 오사카성. 그 안에서 하는 모터사이클 대회라니, 아무리 마감 때면 레드불을 물처럼 위장에 쏟아 부어 '간버레 레드불'을 외치던 레덕이지만

취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지금 일본에선 아이패드 미니를 한국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편집장님의 유혹만 아니었으면...

### FMX가 뭐예요?

FMX는 조금 생소한 스포츠 분야이다. 'Freestyle Motorcross'의 약자로 '모터사이클을 이용해 경기장을 휘젓는 경기 장르'를 말하는데 레드불 X 파이터스 경기는 바로 이 FMX의 국제 대회 중 하나. 모터사이클은 주로 묘기를 부리거나 익스트림한 스포츠에 적합한 바이크의 종류로 스쿠터처럼

실용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리 데이비슨처럼 간지 작살이지도 않아서 한국에서 인기는 시들한 편.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바이크 기종으로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타고 묘기를 부리는 FMX 국제 대회가 열릴 정도이다.

### 레드불 X 파이터스 IN OSAKA

국제 대회가 본격화된 것은 2001년 이후로, 매년 새로운 코스와 경기장, 채점 시스템이 진화해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지난 6월 1일에 열린 오사카 경기는 2013년 레드불이 주최한 세 번째 FMX 대회



10마디  
말보다  
10초의  
동영상!



(원래 예정되어 있던 미국 대회는 기상 악화로 취소되었다). 3월 멕시코시티와 4월 두바이 경기에 이어 오사카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아시아 최초의 경기로 시작 전부터 아시아 FMX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12명의 FMX 선수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 경기 당일 경기장은 만 명이 넘는 관객으로 가득 찼으니 FMX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 간단한 롤, 위험한 스포츠

경기의 룰은 간단하다. 경기장에 마련된 언덕을 모터사이클을 타고 점프해 공중에서 모기를 부린

후에 땅에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이 전부. 그 다음 도약대, 다음 언덕, 다음 도약대, 다음 언덕. 한 코스가 끝날 때까지 15개가 넘는 모기를 보여야 한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에 잠기거나 비상(飛上)을 두려워 해 머뭇거리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함정. 실제로 이번 경기를 일본 오사카에서 유치하는 공을 세운 유명 일본 FMX 선수는 유치 성공 후 한창 연습을 하다가 목이 꺾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1년에 한 명 이상은 꼬박꼬박 연습이나 경기 중에 사고로 죽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 역시 만만한 스포츠는 아니다.

## Battle Entry

본선에 진출한 8인. 누가 잘할지 살펴볼까?  
자 어서어서 돈 걸어!



**1. 애덤 존스**  
**Adam Jones**  
2008년 모터크로스 종합 우승을 이뤘다. 10세 전부터 바이클을 탔다. 꼬마 폭주족 출신.



**2. 대니 토레스**  
**Dany Torres**  
번번히 결승에서 지다가 2011년도에 우승. 방구가 찢으면 똥이 나온다는 옛말을 입증했다.



**3. 데이비드 리날도**  
**David Rinaldo**  
2011년 데뷔. 8위가 역대 최고 성적. 올 시즌에도 종합 점수 8위에 랭크되고 있다.



**4. 자비에르 빌레가스**  
**Javier Villegas**  
4위까지 입상한 것이 최고 성적. 질레 출신으로 2001년도부터 출전 중. 바이크 기종은 Honda CRF 450R.



**5. 레비 셔우드**  
**Levi Sherwood**  
22세의 어린 나이에 2012년 대회를 제패했다. 별명은 Rubber Kid. 우리말로 고무 아이.



**6. 로브 에이델버그**  
**Rob Adelberg**  
2010년 런던 레드볼 X 파이터스에서 데뷔했다. 작년 두바이 2위가 최고 성적.



**7. 다카 히가시노**  
**Taka Higashino**  
지난 2012년 X-GAME MOTO 대회에서 프리스타일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8. 토마스 파제스**  
**Thomas Pages**  
2012년 준우승. 플립 트릭(Flip Trick)이 특기다. 2013년도 멕시코시티 경기 우승을 시작으로 이번 시즌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강력한 우승 후보.

# Motor

## Extreme Bike



**데드 보디 (DEAD BODY)**  
 바이크 앞에서 핸들 바를 뒤쪽으로 잡는다. 몸을 최대한 쭉 펴 하늘 위에 떠 있는 한 마리 좀비처럼 보이는 것이 포인트.



**하트 어택 플립 (HART ATTACK FLIP)**  
 바이크를 거꾸로 뒤집은 상태에서 한 손은 핸들 바에 한 손은 안장에 짚은 후 몸을 활처럼 뒤로 꺾는다. 이 때 다리를 모아야 한다. 아...하어튼 사진으로 보면 이해할거야.

### 동춘 서커스단 In Osaka

동춘 서커스단 단원의 싸다구를 마구 날릴 만큼 화려한 기술들(Tricks). 그 중에서 아홉 가지를 뽑아봤다.



**록 솔리드 (ROCK SOLID)**  
 공중에 떠서 바이크를 아래에 두고 바이크와 몸을 완전히 분리해 새처럼 나는 동작을 취한다.

### FMX 평가는 어떻게 하죠?

예술 부분과 기술 부분으로 나눠 종합 점수 합산 방식으로 채점한다. 예선전까지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고 준준결승(Quarter Finals)부터 1:1 배틀 방식으로 채점한다. 다음 다섯 가지가 채점의 기준.

- 1. 다양성(Variety):** 기술의 다양성을 평가한다. 채워도 한 가지만 추구장창하면 재미없잖아.
- 2. 라이딩 능력(Execution):** 착지나 주행 등의 일반적인 능력도 평가 대상이다.
- 3. 스타일(Form and Flow):** 기술의 정확성과 멋. 주행의 흐름을 얼마나 잘 타는지도 본다.
- 4. 코스 활용도(Use of Course):** 매번 달라지는 코스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는지 점수를 매긴다.
- 5. 에너지(Energy, Excitement and Entertainment):** 관객의 호응도와 흥행성, 그리고 적극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주관성이 큰 기준.



**클리프 행어(CLIFF HANGER)**  
 두 다리를 핸들 바와 몸체 사이에 끼우고 몸을 젖혀 대한민국 만세 동작을 만든다. 마치 사람이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모습과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스페셜 플립(SPECIAL FLIP)**  
 바이크가 공중에 있을 때 손을 안장 위에 놓고 물구나무를 서서 옆으로 회전했다가 다시 안착하는 기술이다.



### 볼트(VOLT)

선수가 바이크 옆쪽에서 바이크와 몸을 분리한 채로 재빨리 몸을 회전하는 기술. 회전을 하면서 바이크의 주행거리를 계산해 바이크를 다시 잡아야 하므로 순발력이 뛰어나야 한다.



### 록솔리드 플립(ROCKSOLID FLIP)

록 솔리드 기술이 날다람쥐 포즈라면 록솔리드 플립은 박쥐처럼 뒤집혀서 난다. 뒤집힌 상태로 날다가 다시 바이크를 잡고 뒤집어서 착지해야 되는 고난이도 기술이다.



### 나인나크(9NAC)

바이크 핸들 바를 잡고 몸을 수직으로 세워 몸을 90도 비튼다. 옆에서 보면 바이크는 사침, 선수의 몸은 분침이 되어 마치 시계의 9시를 가리키는 모양이 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 이름 하나에도 깨알 같은 의미를 담았다.



### 플레어(FLARE)

도약대를 뛰어 직선 방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옆 쪽 언덕에 회전해서 착지한다. 이 때 공중에서 수직 방향으로 한 바퀴 반을 회전한다. 토마스 파제스의 특기. 기술의 디테일은 바로 앞 쪽 큰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자.

## 정말 일본다운, 신파적인 우승 스토리

이번 경기의 우승자는 일본인 다카 히가시노. 이어서 토마스 파제스가 2위로 은메달을, 애덤 존스가 3위를 차지했다. 다카 히가시노는 예선에서 86.9점으로 토마스 파제스에 이어 2위였지만 준결승에서 상대 로브 에이델버그를 다섯 항목에서 모두 발라버리는 압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선 예선 1위인 토마스 파제스를 만나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 평가 기준인 에너지 항목에서 이겨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어때, 설명만으로도 극적이하지? 문제는 그렇게 압승을 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길 만큼 경기 내용이 탁월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관객의 호응도와 흥행성을 묻는 에너지 항목은 일본 흥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주관적인 점수로 인상을 받았다. 이를 의식했던지 다카 히가시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승을 얼떨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했다. 토마스 파제스는? 당연히 푹 씹은 얼굴로 인터뷰를 진행했지.

### 그래도 필약근이 풀릴만큼 확실한 전율

결과의 정당성을 떠나서 FMX는 확실히 매력적인 스포츠다. 경기 내내 모터사이클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광경만으로도 오줌을 지릴 지경이니. F1 포뮬러 대회가 선수의 운전 실력과 머신의 능력으로 코스를 누가 더 빠르게 도는지가 관건인 모터스포츠라면, FMX는 어떤 선수가 공중에서 바이크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는지가 관건

포인트. 뉴질랜드의 레비 서우드 선수는 착지를 하다가 땅하고 덤피스를 나누었지만 이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어나 관중의 박수를 받았다(아무리 봐도 아파 보이는데... 빙판에서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쪽팔려서 벌떡 일어나는 심리가 아닐지). 그는 마치 바이크가 잘못했다는 듯이 바이크를 때리며 양탈을 부렸다. 창피해서기도 하지만 그만큼 바이크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은 아닐까? 바이크 라이더가 늘어나고 아마카시나 BMX 등의 익스트림한 레저가 늘어나는 한국. 바이크 폭주의 시대가 가면 이렇게 바이크를 가지고 노는 인구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런 규모의 FMX 국제 대회를 눈 앞에서 보는 날이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자. 🏍️

# Motor news

## 럭셔리 스포츠 세단의 미래 인피니티 Q50 첫 생산

인피니티가 올 뉴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 인피니티 Q50의 첫 양산형 모델을 생산한다. 인피니티 Q50은 감성적인 스타일링, 진보된 기술과 퍼포먼스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인다. 328마력의 3.7L V6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모델과 3.5L 엔진의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탑재되어 운전의 재미를 높였다. 인피니티 Q50의 날렵한 디자인은 질주 본능을 자극한다.

인피니티([www.infiniti.co.kr](http://www.infiniti.co.kr))



## 기아 2014 뉴 쏘렌토R 출시

월드 클래스 프리미엄 SUV 뉴 쏘렌토R이 진화했다. 새롭게 태어난 2014 뉴 쏘렌토R은 19인치 크롬 스퍼터링 알루미늄 휠과 알루미늄 페달을 장착해 고급스러움을 한층 향상시켰다. 반면 가격은 낮추고 다양한 옵션 사양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경제성과 선택폭을 넓혔다. 2.0디젤과 2.2디젤의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최대 토크는 각각 41.0kg/m과 44.5kg/m이다. 기능은 추가되고 가격은 낮아졌는데 아직도 고민할게 남아있나?!

기아자동차주식회사([www.kia.co.kr](http://www.kia.co.kr))



## MINI 브릭 레인 에디션 출시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로 유명한 MINI의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 모델 MINI 브릭 레인 에디션이 국내에 상륙했다. 예술가의 거리로 유명한 영국의 브릭 레인 지역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모델로 젊은 감성과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인다. 특히 다채로운 색채의 미러캡과 보닛은 MINI만의 세련된 매력을 내뿜는다. 프론트 그릴에 장착된 배지는 기존 모델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최고속도 197Km/h이며 제로백은 10.4초이다. 복합 연비 12.7Km/L의 연료 효율성을 자랑한다. MINI의 사랑스러움은 끝이 없다.

BMW미니([www.mini.co.kr](http://www.mini.co.kr))



## 렉서스 New Generation IS 국내 상륙

스포츠 세단의 전설, 렉서스 IS가 New Generation IS로 진화하여 복귀했다. 퍼포먼스, 민첩한 핸들링, 정확한 응답과 즉각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New Generation IS는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강조한다. 또한 렉서스 고유의 정숙함과 안락한 승차감에 차체의 강성을 향상시켜 안정성을 더했다. 기본형의 250 Supreme, 고급형의 Executive, 그리고 스포츠 드라이빙의 F SPORT로 총 3가지 모델로 생산된다. 연료 효율성은 250 Supreme 기준 복합연비 10.2Km/L이다. 렉서스의 귀환, 과연 그 승부는?!

렉서스([www.lexus.co.kr](http://www.lexus.co.kr))



## 벤츠, The New E-Class 국내 공식 출시

The New E-Class가 4년 만에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다. 한층 모던하고 스포티해진 디자인과 첨단 기술들을 대거 탑재한 The New E-Class는 동급 세그먼트에서 독보적인 기술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싱글 헤드램프를 사용한 Full-LED 라이트는 운전자에게 시인성과 주행 안정성을 보장한다. ECO Start/Stop 기능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고려했다. 더불어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을 동시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리니 다들 벤츠를 외치는 것 아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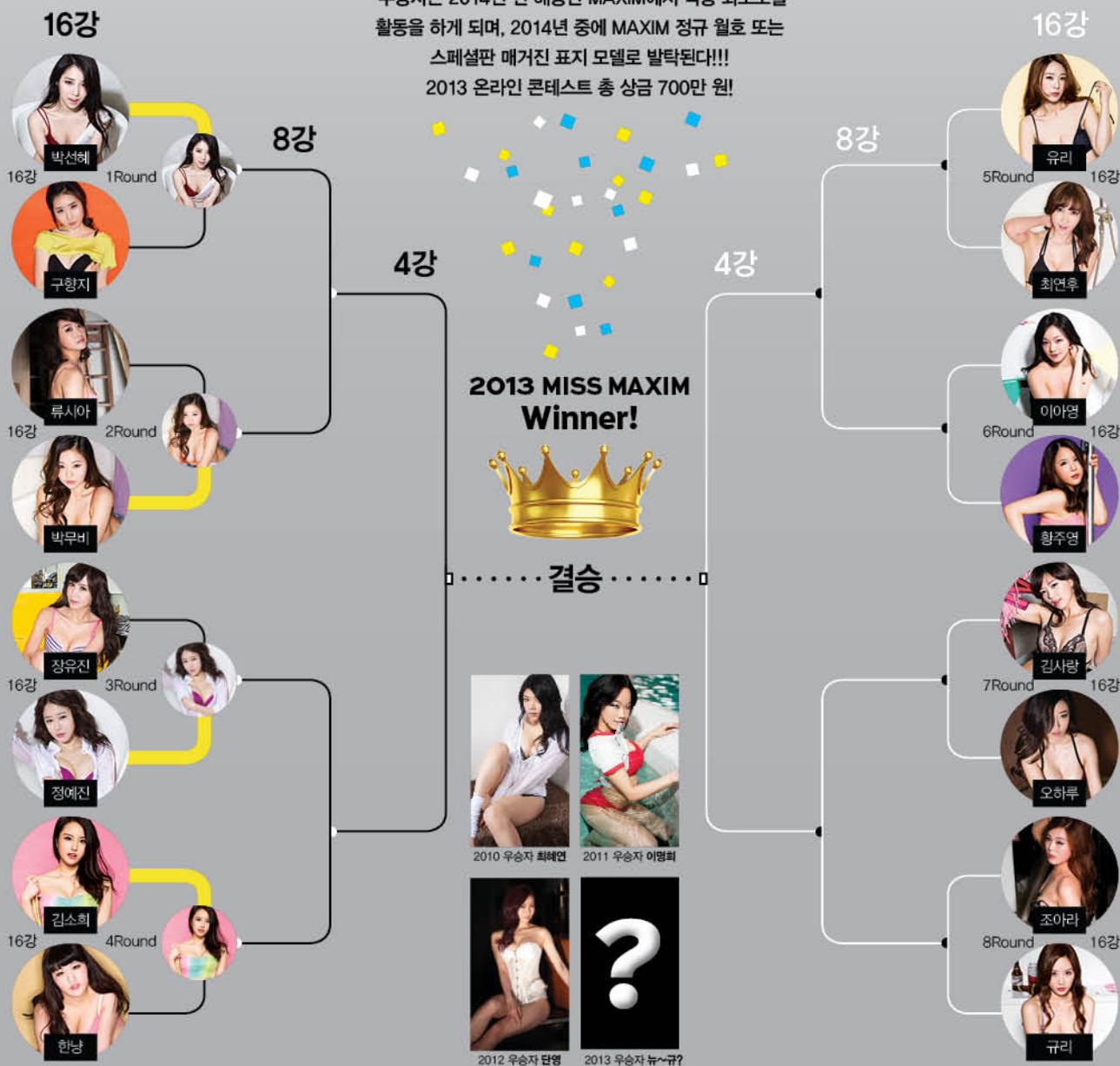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www.mercedes-benz.co.kr](http://www.mercedes-benz.co.kr))

# MISS MAXIM CONTEST

## TOP 16 Tournament Battle Start!

드디어 MISS MAXIM이 16강전에 돌입했다!  
당신의 한 표가 MAXIM의 간판 미녀를 좌우한다!

우승자는 2014년 한 해동안 MAXIM에서 각종 화보모델 활동을 하게 되며, 2014년 중에 MAXIM 정규 월호 또는 스페셜판 매거진 표지 모델로 발탁된다!!!  
2013 온라인 콘테스트 총 상금 700만 원!



### YOUR CHOICE!

MAXIM이 사랑하는, 그리고 MAXIM을 사랑하는 매력녀 중 최강자 1명을 선발하는 2013 MISS MAXIM 콘테스트 16강전이 시작됐다. 이미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본선진출자 16인과 MAXIM이 그동안 함께 작업한 화보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 감상하고,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라! 그러려면 그녀들을 더 깊이 알아야겠지? 21세기식 최첨단 하이테크 사이언스에 기반한 '무작위 뽑기'로 MISS MAXIM 배를 대진표를 선사할 테니 복습, 또 복습하도록!

8강, 4강, 결승으로 올라갈수록 더 핫한 화보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또 화보로 만나고픈 그녀에게 어서 한 표 선사하라고!

### 투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 접속해 16강 진출자들의 이질한 매력을 감상한 뒤 투표한다.
2. 여기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투표한다!



# MISS M

## 2013 MISS MAXIM CONTEST

열세 번째 본선 진출자

### 이아영

모델 비주얼의 소유자 이아영이  
MAXIM 직원이 될 뻔했다고?  
아오, 아까워 죽겠네!

BY 김희성 WORDS 조웅재  
PHOTOGRAPH YuD

이름 이아영  
주량 소주 한 병  
특기 눈웃음  
이상형 재미있는 남자  
매력 포인트 기나긴 속눈썹  
FACEBOOK  
[www.facebook.com/lay0430](http://www.facebook.com/lay0430)

팬티 르페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 낮이 좀 익은데?**

사실 지난 공채 때 비서직에 지원했다. 하필이면 필기시험 보는 날 촬영이 생겨 시험 보러 못 갔다.

**내년에 또 지원할 생각은 없나?**

난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직장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할 거다.

**좋은 생각이다. 이번 여름엔 뭐 하고 놀 건가?**

얼마 전 세부에 갔다 왔는데 너무 고생을 해서 아직은 좀... 남자친구도 없고(웃음).

**당신처럼 예쁜 여자는 바닷가에 갈 때 뭘 챙겨 가나?**

비키니, 선크림, 돈(웃음). 배고프면 뭐라도 사 먹어야 하지 않겠어?

**그런 건 이 오빠가 다 사줄 수 있다. 뭐가 먹고 싶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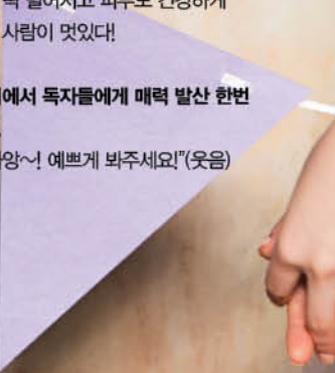
회. 바닷가에 가면 역시 회를 먹고 와야지!

**나도 회 좋아한다. 바닷가에서는 어떤 스타일의 남자한테 끌리나?**

어깨가 떡 벌어지고 피부도 건강하게 그을린 사람이 멋있다!

**이 자리에서 독자들에게 매력 발산 한번 해보자.**

“오빠야~! 예쁘게 봐주세요!”(웃음)



브라 킬라짱

아고 저는 촬영 현장



MISS MAXIM



# 2013 MISS MAXIM CONTEST

열네 번째 본선 진출자

## 조아라

촬영 현장에서 그녀의  
숨막히는 뒤태를 지켜보던  
남자 에디터들의 콧속  
모세혈관이 급기야  
폭발하고자 말았다.



이름 조아라  
취미 클럽에서 놀기  
특기 요리  
이상할 수염 있는 마조남  
매력 포인트 입술  
FACEBOOK [www.facebook.com/ladyhachi](http://www.facebook.com/ladyhachi)

섹시 본능  
본격 발사!



속옷 르페  
구두 슈즈원  
맥주 레드독  
맥주 칼스버그



**MAXIM을 본 적이 있나?**

애독자대! 개인적으로 독자 사연 코너를 가장 좋아한다. 에디터들이 답변해주는 게 재미있어서 볼 때마다 엄청 웃는다(웃음).

**외모도 끝내주는데 교양 수준도 높은 여성이로군! 오늘 촬영은 어땠나?**

원래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해서 다른 촬영도 몇 번 했는데, 오늘이 여태껏 한 촬영 중 가장 재미있었다.

**의상 수위가 아슬아슬하더라!**

내가 직접 준비해 온 거대(웃음).

**여름휴가는 어떻게 보낼 건가?**

여름 페스티벌은 전부 가볼 예정이다. 안산 벨리, UMF까지 말이다.

**그런 곳에 가면 어떻게 노나?**

록 페스티벌에 가면 항상 코스프레를 한다. 튀는 걸 좋아해서 지난번엔 간호사 코스튬을 했고, 바니 걸 의상도 입고 간 적이 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반드시 필요한 것 세 가지는?**

비키니는 필수! 그리고 태닝을 많이 하니까 태닝 정기관?(웃음) 그리고.. 약상!

**하루 중 자신이 가장 섹시해 보일 때는?**

클럽에서 뽕춤 출 때?(웃음)

**그럼 마지막으로 뽕춤을 추며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촬영 한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뽑아주세요! 쇼~! 쇼~!”



# 2013 MISS MAXIM CONTEST

열다섯 번째 본선 진출자

## 김사랑

촬영 도중 갑자기 허리와 골반을  
신들린 듯 흔들며 댄스 삼매경에  
빠진 그녀의 화끈함에 넋이 나간  
스태프가 한 둘이 아니었다!



**촬영 중에 춤추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몸놀림이 그냥...**

다들 편하게 대해줘서 나도 모르게  
그만...

**직업이 댄스 강사인가?**

아니다(웃음). 브랜드 전시회나 백화점  
등의 행사에서 MC로 활동한다.

**공포 영화 한 편 추천해달라.**

공포 영화라네! 절대 못 본다. 영화가  
끝날 때쯤엔 거의 바닥에 쓰러져 있을  
정도(대웃음).

**요리를 잘한다고 들었다.**

호텔외식학과를 복수 전공했으니  
말 다했지. 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심지어 조주까지 다 배웠다!

**그 중에서 필살 메뉴를 꼽자면?**

갈비찜!

**당신이 받고 싶은 프리포즈는?**

진짜로 사랑한다면 굳이 화려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설레지 않을까?

**독자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최근 페이스북을 시작했어요. 많이  
놀러 오세요!”



이름 김사랑  
취미 공원에서 산책하기  
특기 춤추기, 요리  
이상형 다크  
매력 포인트 허리

FACEBOOK [www.facebook.com/shinhanjenny](http://www.facebook.com/shinhanjenny)

맥주 레드독  
맥주 칼스버그

김사랑의  
댄스 감상  
↓



MISS MAXIM



# 2013 MISS MAXIM CONTEST

열여섯 번째 본선 진출자

## 규리

미모의 한화 배트걸이었던  
그녀가 MISS MAXIM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  
이름 규리  
취미 집에서 쉬기  
특기 컴퓨터, 피아노  
이상형 귀여운 남자  
매력 포인트 새글

맥주 레드독  
맥주 써머스비  
맥주 칼스버그

인형이  
걸어다니네



브라 색시쿠키  
맥주 레드독  
맥주 캡스버그

→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예쁘다!  
고맙대! 그런 소리 많이 듣는다(웃음)

오늘 화보 촬영은 어땠나?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엔 많이 긴장했다.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찍었지 전신 촬영은 처음이었거든.

한화 배트걸은 왜 그만뒀나?  
같이 배트걸 하던 동생이 점수를 낸 상대 팀  
선수랑 하이파이브를 하는 바람에... 하필이면  
그 사진에 내 사진이 같이 나와서 내가  
하이파이브했다고 오해도 받고 욕도 엄청  
먹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아아, 아쉽다. 좋아하는 남성상을 알려달라.  
귀여운 남자! 애교가 많으면서도 남자다운?  
어렵다(웃음).

원래 아기자기하게 생긴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던데, 당신은 어떨까?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진다.  
그래서 술은 잘 못한다.

남자를 유혹하는 당신만의 방법이 있나?  
은근히 여우 짓을 한다. 귀여운 척하고, 내숭  
떨고, 허 찢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처음엔 다들  
적응 못 하더라(웃음)☺

# 대전 괴물의 LA 몬스터 진화기 류현진

정확히 2년 전인 2010년 7월호에서  
MAXIM은 대한민국 최고의 좌완 투수인 그를  
ICON으로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3년 7월, MAXIM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최강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류현진을 다시 한 번  
ICON으로 선정했다. 피카추가 라이추로 진화하듯,  
거침없이 질주하는 '몬스터' 류현진의 행보를 함께 살펴보자.

BY 강산(엑스포츠)

# ICON



류현진  
코믹 웅장



# ICON

## 3,600만 달러의 사나이

2,573만 7,737달러 33센트, '몬스터' 류현진을 잡기 위해 메이저리그 명문 구단 LA 다저스가 배팅한 포스팅 금액이다. 이후 한 달여에 걸친 협상 끝에 6년간 3,600만 달러 계약을 이끌어냈다.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탄생한 것이다.

사실 시즌 전만 해도 그의 역할은 최대 '5선발'로 보였다.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에 자유 계약 선수로 영입한 잭 그레인키, 지난해 나란히 10승 이상을 올린 애런 하랑과 크리스 카푸아노, 조시 벡트, 테드 릴리, 채드 빌링슬리까지, 류현진은 무려 8명의 선발 요원과 경쟁해야 했다. 당초 커쇼-그레인키-벡케이 1~3선발을 맡고 경쟁을 거쳐 나머지 두 자리가 결정될 듯 보였다.

하지만 류현진이 누구인가. 이미 국내 무대 통산 7시즌 동안 190경기에서 98승 5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80을 기록한 리그 최정상급 투수였다. 한 야구인은 "류현진이라는 상품은 이미 국내 무대에서 감증을 마쳤다. 이제 세계무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류현진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세계적인 투수의 반열에 올라설 준비를 마쳤다. 5선발 경쟁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이제 당당한 팀의 주축 선발 삼총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빅 리그에 처음 입성한 신인 투수가 13경기에서 6승 2패 평균자책점 2.85, 75탈삼진 20사사구를 기록 중이다. 믿어지는가. 게다가 류현진이 소화한 85.1이닝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신인 가운데 최다 이닝이다. 내셔널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14위(6월 9일 기준)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류현진이 기록한 6승은 팀 내 최다 기록이다. 에이스 커쇼보다도 많다. "타자들이 잘 쳤는지"라고 웃어넘긴다면 오산이다. 올 시즌 1경기당 평균 6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10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선발투수가 6이닝을 3자책 이내로 막아내는 것)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 출동! 베이브 '류'스!

놀림게도 투구뿐 아니라 타격에서도 류현진은 발군이다. 다저스가 속한 내셔널리그에는 지명타자제가 없어 투수도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상대 투수에게는 '거저먹는 아웃카운트'나 다름없다. 투수의 타격 실력이 타자보다 뛰어난 리 만무하기 때문. 스프링캠프에서도 타격 연습에 따로 신경 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현진은 올 시즌 타율 2할 5푼 9리(27타수 7안타) 3타점을 기록 중이다. 웬만한 타자들의 평균 타율 정도다. 외야수 키를 넘는 2루타도 두 개나 만들어냈다(땅볼로 운 좋게 거둔 2루타가 아니다). 홈런은 없지만 3루타도 한 개 쳐내는 등 장타도 간간히 뿜어내고 있다. 동산고 시절 4번 타자로 활약하기도 한 그의 타격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 특히 류현진은 6월 13일, 경기에서 팀이 1 대 3으로



박찬호도 메이저리그 통산 홈런을 3개나 때렸다. "류현진이 홈런 쳤다"는 소식 들을 날이 곧 올지도.

뒤진 5회 말 애리조나 선발 패트릭 코빈의 4구 93마일 직구를 노려 쳐 우측 담장까지 굴러가는 3루타로 시즌 세 번째 타점을 올렸다. 우익수 글러브를 피해가는 행운도 있었지만, 상대 투수의 직구를 기막히게 밀어친 류현진의 타격이 돋보인 대목이었다. 현저에서는 그에게 베이브 '류'스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 류현진의 3루타는 빅 리그를 거쳐한 한국인 투수로는 두 번째 기록이다. 1998년 '코리안 특급' 박찬호 이후 15년 만에 나온 기록이기도 하다. 박찬호는 LA 다저스에서 활약하던 1998년 3루타를 기록한 바 있다. 박찬호는 빅 리그 통산 382경기에서 타율 1할 7푼 9리 3홈런 31타점을 기록하며 만만치 않은 타격 실력을 과시했다. 2루타도 15개나 있었다. 김병현(넥센)과 서재응(KIA), 김선우(두산), 구대성(시드니 블루삭스)도 2루타는 있었지만 3루타는 단 한 차례도 쳐내지 못했다.





## 류현진

생년월일: 1987년 3월 25일  
 태어난 곳: 대한민국 인천  
 체격: 188cm, 116kg  
 포지션: 투수(좌투우타)  
 데뷔: 2006년 한화이글스  
 현재: 2013년~LA 다저스



### LA발 류현진 신드롬

5월 29일,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은 90이닝 전체를 혼자 책임지며 안타 2개만을 내줬다. 그리고 강타자들이 포진한 에인절스 타선을 무실점으로 틀어막고 데뷔 11경기 만에 완봉승을 따냈다. 4회 초, 수비 도중 마크 트림보의 타구에 발등을 맞는 불운도 있었지만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경기를 혼자 책임졌다. 현지 언론은 온갖 수식어를 다 동원해 그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발등 부상 여파로 6월 3일 콜로라도전 등판이 연기되었지만, 류현진은 5일 뒤인 8일 애틀랜타전에서 부상 후유증이나 등판 간격에 대한 우려를 모두 날려버렸다. 7.2이닝 동안 1점만을 내주며 홈런 타자가 즐비한 애틀랜타 타선을 요리했다. 7승 달성은 미뤄졌지만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은 경기였다.

현지에서도 류현진의 위상은 대단하다. 현지 언론에서는 연일 류현진의 신인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미국 FOX스포츠는 "류현진이 유력한 신인왕 후보"라며 엄지를 치켜들었고, <LA타임스> 등 현지 유력 일간지들도 신인 선수 관련 기사에서 류현진의 이름을 빼놓지 않는다. 물론 시즌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벌써부터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는 자체가 대단할 따름이다. 고인 사이에서도 '류현진 신드롬'

이 한창이다. LA뿐 아니라 볼티모어 같은 동부 지역 원정을 떠나도 많은 고인이 그의 투구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다. 구단 습에서도 류현진 유니폼은 인기 상품이다.

### '대전 괴물'에서 'LA Monster'로

지난해까지 한화이글스에서 뛰던 류현진은 '불운의 아이콘'으로 통했다. 2012년 27경기에서 183쪽이닝을 소화하며 무려 210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다. 평균자책점도 2.66이었다. 90이닝을 소화하면서 3점도 내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그런데도 9승을 올리는 데 그쳤다. 한화 팬들을 부처님 가운데 토막으로 만들어버린 타선 침묵과 수비 불안, 구원투수들의 방화로, 류현진의 승수 쌓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통산 100승에 2승이 모자란 98승을 거두고 그는 LA로 떠났다. 메이저리그에서는 13경기 중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10경기에서 6승을 챙기고 있다.

한화 김응룡 감독은 류현진의 활약에 기뻐하면서도 마음 한편엔 아쉬움이 가득한 듯하다. 류현진이 완봉승을 거둔 날 "현진이가 잘 던지더라. 내가 한화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류현진이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다. 류현진 믿고 왔는데 다른 데 가버렸다"라며 김 감독은 웃었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류현진만 한 에이스가 없으니 속이 쓰릴 만하다. 김 감독은 "내가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20승 한다고 했을 때 다 비웃지 않았느냐. 최소한 10승 이상은 할 것이다"라며 웃음 짓기도 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정상급 선발투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류현진. 한화이글스의 에이스로, 한국 최정상급 투수로 맹위를 떨치던 류현진은 이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정상급 선발투수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대전의 '괴물'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몬스터'가 됐다. "류현진은 5선발 경쟁을 해야 한다", "외국인 투수에게 너무 많은 돈을 썼다"고 말하던 전문가들을 완전히 비웃고 있다. 지금의 류현진에겐 어떤 찬사도 아깝지 않다.

## 양키들 지리게 만든 한국인 메이저리거 투수 활약상 Top 3

우리 이정도야. 너네 디펜스는 차고 왔나? BY MAXIM

### 대성불패 구대성

뉴욕 메츠 시절, 구대성이 메이저리그 특급 투수 랜디 존슨의 공을 담장까지 날리는 2루타를 쳤다. 이어 홈으로 접사게 슬라이드하여 점수도 올렸다. 팀 동료들이 엄청 좋아하며 그를 칭찬했는데, 정작 구대성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었다고.



### 코리아특급 박찬호

1999년 6월 6일, 애너하임 에인절스와의 경기 도중 박찬호가 팀 벨처와 몸싸움이 붙었는데 일순간 박찬호가 봉 뜨더니 기가 막힌 이단연타기를 날렸다. 7경기 출장 정지에 벌금 3천 달러란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 장면은 메이저리그 10대 닉투구 6위의 레전드로 남았다.



### 법규 김병현

최근 심판한테 공 던져서 징계 먹은 김병현. 정말 강 하나는 최고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랬다. 빈볼은 기본이고, 노모 히데오 투구 폼 따라하면서 타석에 선 이치로 능숙하기, 심판 먹살 잡기... 그중 미국인에게 가장 큰 멘붕을 준 사건은 자신을 아우하던 보스턴 홈팬에게 딱큐를 날린 일. 동양인 중저 하나에 보스턴 팬 여럿 뒷목 잡았다.



▶법규: 보스턴 딱큐 사건 말고도,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을 때 V대신 중지를 날려 온 신문을 그의 딱큐로 도배한 적도 있다. '딱큐'가 남들보다 좀 찾기에 야구 팬들은 김병현을 '법규'라 부른다.

# Hit Your Heart and Run!

## 공서영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진정한 야구 여신,  
공서영이 사직구장도, 문학구장도 아닌  
MAXIM에 강림했다!

BY 김희성 WORDS 조웅재 PHOTOGRAPH YuD



프로용 베트와 1루 미트,  
야구공, 루베이스 모두 골드이스트



**오늘 촬영은 어땠나?**

원래 이런 촬영을 하러 오면 긴장을 많이 하게 마련인데, 야구용품들과 같이 촬영을 하니 익숙하고 재미있게 촬영한 것 같다.

**야구 소품들이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진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갑자기 야구공이 되고 싶군. 우린 예전에 MBC 스포츠플러스의 김민아 아나운서와도 화보를 찍은 적이 있다.**

알고 있다. 아마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의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고 그냥 야구 팬이었다. 그때 인터넷에서 사진을 본 기억이 있다.

**원래 야구를 좋아했다는 말인가? 야구 팬이었다고?**

그렇다. 설마 당신..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

**사, 사실 야구는 너무 길고 지루한 것 같아서 잘 안 본다. 좋아하는 팀도 없고...**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잘 모른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내 주변에서는 내가 '야구 전도사'로 불리거든.

**뭐가 그렇게 안타까운 건가?**

순수한 팬의 마음이다. 야구 경기를 챙겨본 지 이미 몇 년 정도 됐는데, 내가 못 본 한창 때의 예전 경기를 라이브로 보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울 때가 있다.

**당신에게 야구란 무엇인가?**

매번 듣는 질문이지만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이다. 남자친구라고 할 때도 있고 베프라고 할 때도 있고.. 사실 엄청 식상한 멘트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니다. 나에겐 야구가 내 일생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타용 타자 헬멧과 루베이스  
모두 골드이스트  
유니폼 네포스  
신발 슈즈원

너무 예뻐서  
숨막히는 영상





**그렇게 야구만 볼려고 하면 연애는 대체 언제 하려고 그러나?**

연애 뿐인가. 요즘 들어 항상 야구만 보고 다니니까 친구들도 다 빠지더라. 지금은 일이라고 봐주긴 하는데, 그 전에도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에 경기가 있으면 우르르 야구장에 데려가서 치맥하고 그러니... 잘 모르겠다.(웃음)

**스포츠 아나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하겠지만, 솔직히 어디 팬인가?**

사실 일 시작하기 전에는 응원하는 팀이 있었지. 지금은 정말로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느 팀도 응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9개 팀을 모두 응원하면 된다(웃음).

**결국은 우리 편끼리 싸우는 기분이지.**

그렇대. 그래서 원래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었는데, 느긋하게 변한 것 같다(웃음).

**원조 걸그룹 '클레오' 출신이다. 걸그룹 출신 아나운서라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서러웠던 적은 없었나?**

처음엔 '제가 연예인 짓 더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 하는구나'라고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하는 짓을 보니 야구 덕후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 재 정말 좋아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신다.

**XTM으로 옮긴 후부터 미모 포텐이 터졌다는 얘기가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 PD님이 조명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것 같다(웃음). 진짜로, PD님한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 PD님 사랑합니다!

**얼마 전 정인영 아나운서의 물벼락 사건이 있었다.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 원래 세리머니를 좋아하는 편이다. 팬일 때부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물벼락을 맞았을 때도 그저 재미있었다(웃음). 얼마 전 엘지가 대 역전을 하고 내야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고 투수가 대주자가 돼서 나갔는데... 이런 이벤트도 좋아한다. 아무튼 누군가에게 피해만 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야구는 좋지만 야구선수사는 사절이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아나운서 입장에서 속상한 댓글들이 많다. "재도 잘나가는 애 꼬셔서 잡아보려고 애쓰는구나"같은 글들 말이다. 물론 일반 팬들보다 우리들이 선수들을 더 자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 또래 선수들 다 장가 가고 다른 선수들은 정말 한참 연하다. 나도 양심이 있다(웃음)

내야수 글러브 골드리스트  
구두 슈즈원



“

난 야구 덕후다. 야구에 관심 없다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







**요즘 류현진 선수 경기도 챙겨보고 있지?**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보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좋다. 특정 팀을 응원하던 그 시절 말이다. 국내 팀끼리의 매치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우리 팀 이겨라'를 하다 보면 기분이 좋지.

**XTM <베이스볼 워너비>같은 생방송을 하다보면, 실수도 많이 할 것 같다.**

원래 잘 까먹는 편이라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매 경기를 보면서 꾸준히 메모를 하는데, 글씨가 과발개발이라서 나중에 못 써 먹는다(웃음). 멘트에 감정이 섞이고 목소리도 꽤 높낮이가 있는 편이지만 오히려 내 목소리가 스포츠의 역동성이랑 잘 어울린다는 칭찬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 감사할 따름이다.

**당신같은 미녀 야구 아나운서들을 더러 우리는 보통 '야구 여신'이라고 부른다. 알고 있다(웃음). 여신이러니.**

**당신과 친한 여신들은 누구인가?**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 있었던 최희 아나운서랑 친하지. 처음엔 나보다 어린 선배라서 조금 불편했는데, 회사를 옮기고 나서부터 친해졌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얼굴만큼 사람 자체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다.

**야구 말고 다른 스포츠로 눈 돌린 적은 없었나?**

어릴 땐 축구를 좋아했다. 그때 뭘 안다고 새벽에 축구한다고 하면 일람 맞춰 일어나서 열심히 보고 그랬다. 스포츠는 어떤 종목이든지 나를 들었다 놔다 한다.

야구 모자 뉴에라  
 유니폼 네포스  
 베트와 배팅장갑  
 골드이스트  
 신발 슈즈원



**트위터에서 다이어트 한다는 글을 봤는데...  
 한 대 때려도 되나?**

아, 그거 겨울에 써 놓았던 거대(웃음).  
 지금보다 한 3~4kg 정도 더 나갔었다.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 친한 선수들이랑  
 밥을 먹으면 그들도 놀랄 정도다. 야구  
 아나운서계의 식신이라 불린다.

**대체 얼마나 먹길래?**

그러게,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요즘  
 사람들 입이 짝아진 게 아닐까? 올 봄에는  
 스프링캠프를 갔는데 이대호 선수가 PD  
 남한테 "공서영 아나 맞아요? 왜 저렇게  
 살이 찘어요?"라고 말했다더라! 그 정도는  
 아닌데!(웃음)

**자신의 매력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나?**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당신이 봐 달라  
 (웃음). 되게 솔직한 거 정도?

**무슨 소리! 이렇게나 매력덩어리인데?**

매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덩어리랄까?(웃음)

**연애하고 싶은 남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려 달라.**

믿음직하고 따뜻한 등직한 남자가 좋다.  
 사실 내가 연애를 정말 잘 못해서 나를  
 리드해 주며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고 있을 독자들에게  
 한 마디!**

처음엔 그저 막연히 'MAXIM 표지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용기를 내서 한 촬영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것도 나름대로의 야구 전도사 활동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결론은 이거다.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

MAXIM 표지 모델이  
되고 싶었는데  
진짜로 촬영을 하게 돼  
신기하다

”

ASSISTANT 김세형 김소윤 장해민 FILM 김상수 LAYOUT 서윤정  
COOPERATION 골드이스트(www.goldeast.co.kr) 네포스(www.nepos.co.kr) 뉴에라(02-547-5950) 슈주원(02-3443-1703)



**공서영**

생일 8월 9일  
신체 166cm, 47kg  
특기 노래  
취미 음악 감상  
진행 중인 프로그램  
XTM 《베이스볼 워너비》



주의: 당신이 갱스터 힙합 뮤지션이 아닌 이상, 돈을 이렇게 들고 다니지는 마. 쪽팔리니까.

\$848

# The Maxim Money Challenge

Featuring  
Snoop Lion

# Rollin' With Snoop



흥미로운 사실:  
'Snoop'이라는  
단어 위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약에 취한  
기분이 드는데?

스누의 돈지랄 계획과 MAXIM 편집부의 피같은 예산이 만났다. 웨스트 코스트 힙합의 아이콘에게 848달러를 주고 어떤 짓을 벌이는지 지켜봤다.

BY JULIAN STERN PHOTOGRAPH TURE LILLEGRAVEN

LA의 쌀쌀한 월요일 밤. 빨간 캐딜락이 우리를 싣고 달리기 시작했다. 애초에 스누이랑 한바탕 질펀하게 놀아보자고 시작한 유쾌한 밤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공포의 밤으로 변해가고 있다. "엉덩이 살점을 발라 버릴까보다! 그 입 좀 닦치라고!" 운전기사가 잭나이프를 들고 위협한다. 기사의 이름은 조 쿨 (Joe Cool). 불행히도 그가 욕박지르는 대상은 나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불멸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아티스트 스누 독. 그는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나? 이게 즐겁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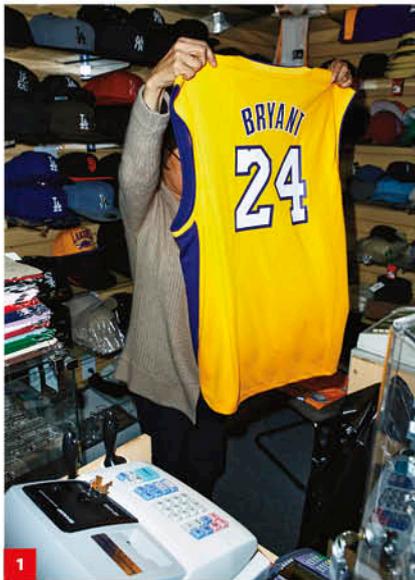
이 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벌했던 건 아니다. 우리는 스누, 스누의 매니저, 그리고 MAXIM이 스누에게 맘대로 쓰라고 내준 848달러와 함께 LA의 밤을 즐기러 출발했다. 스누는 우선 온 가게에 가서 총동구매를 할 생각이었다. 슈퍼스타 래퍼는 어디서 옷을 사 입을까? 백화점? 명품 샵?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싸구려 패스트푸드 가게와 미용실 사이에 자리 잡은 코딱지만한 가게 '티셔츠 플러스'. 버럭시장에서 제일 잘나가는 물건들을 진열해 놓은 가게이다. 스누는 몇 년째 여기 단골 고객이다. 그의 패션은 어딜 가나 시선을 끈다. 오늘 캘리포니아 출신 '독(Dogg)'은 체크무늬 남방과 배기 바지를

매치한 시크한 패션을 선택했다. 거기에 흰색 비니, 블링블링한 사자 메달 목걸이를 착용해 레게펠 총만한 '라이언(Lion)' 스타일을 더했다. 그의 키는 193cm나 된다. 진짜 X나 튼다. 아니나 다를까. 스누 이 등장하자 다른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아까 나에게 쌍욕을 퍼부었던 조 쿨이 들어와서 물려드는 사람들을 저지한다. 그리고 스누는 알 그린의 'Let's Stay Together'를 흥얼거리며 매장을 살살이 뒤지더니 결국 맘에 드는 검정색 재킷 하나를 발견한다. "이런 거 필요했는데! X나 좋네." "저 코비(LA 레이커스의 가드 코비 브라이언트) 저지 좀 볼 수 있나요?" 그가 조그만 아시아인에게 진열장에 걸린 등번호 '24'의 유니폼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이 가게 운영자다. 스누는 그녀를 애정을 담아 '엄마'라고 부른다. 스누이 지른 물건의 값은 총 108달러. "근데 엄마가 100달러만 내래. 여기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흘러." 8달러 할인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스누가 말한다. "여긴 진짜 내 집처럼 편한해. 봐, 얼마나 평화로워!" 요즘 사랑과 평화가 유행이다. 스누는 4월 23일 자신의 첫 번째 레게 앨범 〈Reincarnated〉를 발매했다. 같은 이름을 단 다큐 영화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영화는 스누의 자메이카 녹음 작업과 라스타파리안고(Rastafarian, 예수가 흑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종교) 개종 과정을 다룬다. 웨스트 코스트 최고의 랍퍼가 웨스트 코스트를 배신하고 자메이카로 갈아탔다는 소리는 아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지. '난 다음 작업에서 뭘 원하지?' 자메이카는 내가 물리적, 정신적, 영적으로 존재하고 싶은 곳이고, 내가 있어야만 하는 곳이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 장이나 되는 앨범을 팔아치운 아티스트였기에 가능한 전향이었다. 개종 부분은 합리화하려고 들지도 않는다. "라스타파리한테 물어봐. 내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렇다나?"

티셔츠 플러스에서 나오려는 중에, 스누는 수십 명이 넘는 팬들(팬들 중 하나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연스럽게 마리화나 한 대를 맡아준다)과 사진을 찍는다. 그러곤 신나게 총동구매를 해대기 시작한다. 20달러짜리 백팩과 40달러짜리 녹색 리바이스, 트렁크도 사려고 뒤적거린다. "에이, 엄마, 좀 싸게 줘봐." '엄마'는 이 단골 고객에게 공짜 속옷까지 덤으로 준다. 스누가 미소 짓는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건강하쇼, 엄마. 또 올게."

애초에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여기서 몇 km 떨어진 마리화나 가게에 가야 한다. 하지만 스누는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다. 갑자기 "봉사 활동 좀 해볼까"라며 길가로 나선다. "여기 안 온 지 꽤 됐는데." 스누가 하는 말에 따르면, 5km 남짓한 이 길은 그가 무명 시절 닥터드레의 동생 워렌 지(Warren G)와 함께 매일 스튜디오로 걸어가던 길이였다. 이제는 그가 거리에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물려드는 바람에 차 안에 은밀히 숨어서 가야하지만, 그 길에 있는 노숙자들은 무시하기 힘들다. "그 때는 나도 굶어 죽을 판이어서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



1. '엄마'가 NBA 유니폼을 보여주고 있다. 스눴이 쇼부친 가격: 20달러
2. 장물 검사 전문가로 변신한 D-O-더블G
3. (중앙)갓 감옥에서 나온 롤로, (오른쪽) 나한테 책나이프 휘두르기 전의 조 콜
4. 다시 만나 기쁜 우리
5. 스눴 라이언(안전한 게이샤 흥내 내는 중) 이 마지막 MAXIM 잔고로 사고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6. 스킵드 로우: 1980년대 스타일 장발을 휘둘러대던 헤비메탈 밴드와 동명인 동네

줬지만, 이제는 다르잖아.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 사먹을 돈을 줘야겠군."

그 말을 하고 스눴은 거리로 나선다. 당연히 그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다. 그 중에는 팬들도 있고, 친절한 랍퍼 이웃에게 동정을 구하는 이들도 있다. 스눴은 20달러 지폐를 한 무더기를 들고 사람들에게 한 장씩 나눠준다. 그중에는 '롤로'라는 남자도 있다. 그는 버스에서 내려 이쪽으로 걸어왔다. 교도소에서 출발한 버스였다. "이 양반 방금 빵에서 나왔네!" 조 콜이 외친다. 롤로의 수의를 보고 한 말이다. "나올 때 딱 저런 거 입히지!" 롤로는 바깥세상에서 처음 접한 의외의 인간에게 활짝 웃어 보인다. "빵에서 나올 때 돈은 좀 주나?" 스눴이 묻는다.

"돈은 안 주고 버스표만 두 개 주는데." 스눴이 돈뭉치를 꺼내더니 롤로에게 20달러 몇 장을 건넨다. 갑작스런 행운에 놀랐는지, 이제 막 자유의 몸이 된 남자가 외친다. "와씨 존나 고미워, 스누..." 그는 '스눴 독'이라고 말할 뻔 하다 멈춘다. "형씨,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름을 '라이언'으로 바꾼 거요, 아니면 계속 독인 거요?"

잠시 세상에 정적이 흐른다. "지금도 독 맞아. 라이언은 레게 음반 낼 때 쓰는 이름이고." 아하! "어이, 쿨 조, 이제 여길 떠도 되겠다." 스눴은 여정을 또 바꾼다. 길 건너 마약 가게 점원 하나가 혼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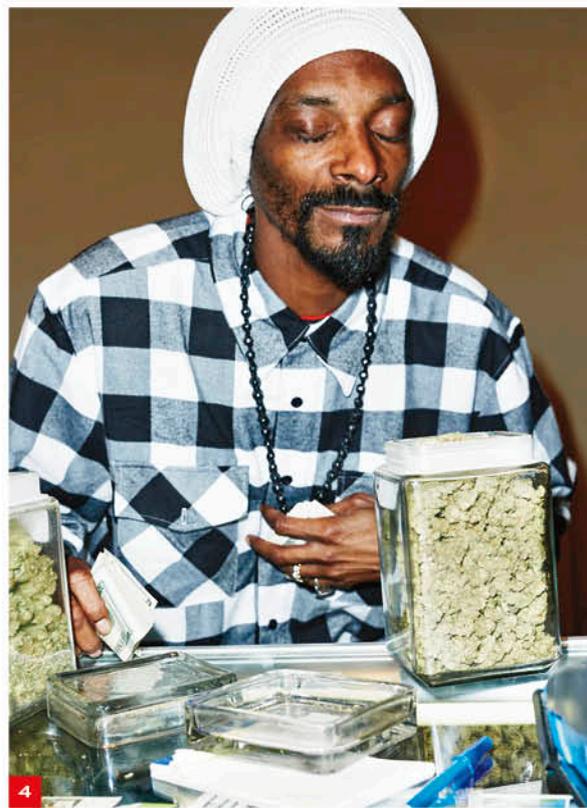


**MAXIM \$848 RECEIPT FOR: Snoop Lion**

<b>T-Shirts Plus</b>	
Jacket and Kobe shirt:	\$100.00
Levi's:	\$40.00
Backpack:	\$20.00
<b>Street</b>	
For homeless:	\$135.00
<b>Dispensary</b>	
Skywalker weed:	\$400.00
Skid Row	\$152.00
Making it rain:	-\$153.00
<b>TOTAL:</b>	<del>\$625.00</del>

*\$847.00*  
*Damn!*

힘을 다해 우리를 안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스눴과 함께 마약 가게에 간다는 건, 마치 재벌 친구와 외제차를 타고 왕 대접을 받으며 최고급 오성급 호텔에 저녁 식사를 하러간 것과 같다. 점원은 엄청 즐거워 보인다. "21세 이상 맞으십니까?" 그가 엄격히 척 묻는다. 스눴도 맞장구를 친다. "넵, 그렇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 스눴은 주위를 둘러본다. 축축한 초록 이파리로 가득 찬 진열장이 보인다. 다른 진열장에는 갖가지 유리관, 물파이프와 기화기 같은 마리화나용 물품들이 있다. 마리화나를 하루에 80개비 이상 피는 스눴은 마치 성냥팔이소년 같은 자세로 진열장 유리를 들여다보고는, 헬륨 가스를 마신 듯한 요상한 목소리를 쏜다. "오, 와! 우우우우~!"



직원이 추천 메뉴 두 가지를 가져온다. '스카이워커'와 '요다'. 스눴은 쿵쿵 냄새도 맡아보고 매의 눈으로 요리조리 살피더니, 스카이워커에 400달러를 쓴다. 그는 내가 눈으로 쫓아가지기도 전에 벌써 스카이워커를 피워대고 있다. 스눴이 '약'을 섭취하는 바람에 잔고가 좀 더 줄어들었다. 스눴은 남은 돈을 쓰기 위해 캐딜락 뒷자리에 올라탄다. 어찌려고? "스킵드 로우(LA의 빈민가)로 넘어가서 공중에서 돈다발을 집어던질 거야." 스킵드 로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스눴이 스테레오 음량을 한껏 높인다. 음악은 힙합 트랙에서 축음기어나 어울릴 느리거리는 복고풍 멜로디로 바뀐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스눴이 말한다. 샘플 음악인가? 무슨 요상한 새 언더그라운드



장르인가? “어이, 형씨 <꾸러기 클럽(아름머리를 한 주인공이 나오는 미국의 유명한 어린이 영화)> 주제곡도 몰라?” 아, 미안. 추억의 1990년대 가족 코미디 영화 삽입곡을, 스눕이 부르기 시작한다.

나와 스눕이 탄 차를 뒤따르던 MAXIM팀의 취재 차량이 뒤쳐졌다. 이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포토그래퍼가 나한테 전화를 한다. 차를 잠깐 길가에 대놓고 뒤차가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란다. 운전 중인 조한테 부탁을 했더니, 나를 개무시한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재차 부탁했다. 이번에는 대답을 해줬지만, 내가 기대하던 대답은 아니었다. “아 씨발, 시끄러우니까 좀 닥쳐줄래!?” 조 쿨은 왼손으로 운전을 계속하는 채로 오른손을 중앙 콘솔에 놓더니 잭나이프를 꺼내들었다. “확, 엉덩이 살을 발라 버릴까보대!” 내 얼굴 앞에서 잭나이프 칼날이 찢히고 튀어나온다. 조 쿨은 잭나이프를 위협적으로 휘둘러대다 내 허벅지에 곧장 쏘서 박는다. 나는 다리를 쳐들고 성인 남자라면 결코 내지 말아야 할 목소리로 비명을 지른다. 조 쿨과 스눕은 낄낄거린다. 나는 내 다리를 확인한다. 멀쩡하다. 조는 날랜 손재주를 부려서 마지막 순간에 잭나이프 칼날을 집어 넣었던 거다. “우리 보다가드가 에디터 양반한테 장난 좀 쳤네.” 웃던 스눕은 갑자기 정색하더니 이렇게 말한다. “일어나면 차 시트 좀 닦고 가쇼. 지린 것 같으니까.” 장난인 건 알지만, 스눕이 갱스터 출신이라는 사실이 새삼 떠오른다. 스눕 라이언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스눕 독은 과거에 크리스(여전히 일수를 견고 다니는 흑인 갱단)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쿨이 지금 멎으로 달리는지 아니?” 스눕이 묻는다. “이 차는 나쁜 놈들이 타던 속도위반을 하지. 그리고 우리는 나쁜 놈들 맞나봐.” 스킵드 로우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남들이라면 피하고



## 이제 스킵드 로우로 가서 공중에다 돈다발을 뿌릴 거야.

싫은 동네겠지만, 내 마음 속에는 행복이 숨겨져 있다. 심적으로 지친 데다, 얼른 아들의 돈을 다 써버리고 이 위험한 모험을 끝내고 싶다. 인도를 따라 텐트가 늘어서 있고, 차도에는 쓰레기가 나뉘고 있다.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스눕은 이 광경이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한 남자가 마리화나를 맡고 있다. 그 옆에 걸어가면 남자는 다른 남자는 휠체어 하나에 자기 살림살이를 몽땅 쏘서 넣고 다닌다. 사람들은 차도가 보도블록인 줄 이는지 도로 위에서 어슬렁거린다. 차도에서 차를 몰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하긴, 굳이 차를 끌고 여기에 오는 사람은 없겠지. 스눕의 계획은 간단하다.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는 곳을 찾아서, 남은 돈을 공중에다 던지고, 사라지는 거다. 스눕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빠르고, 신속하고, 위험하니까.”라고 대답한다. 차를 멈추고 스눕과 조는 밖으로 나간다. 내가 차문을 미처 열기 전에, 돈이 이미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든다. 스눕이 차 안에 뛰어든다. 꾸역꾸역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조가

소리친다. “꺼져! 내 차에서 꺼지라고! 씨발!” 비틀스 팬들이 재림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비틀스 팬들보다 개인위생 상태가 훨씬 더 안 좋다. “조 쿨, 그냥 가자!” 스눕이 소리친다. “차로 들어와!” 마침내 조가 차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군중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는 다 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망할, 스눕!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조 쿨이 말한다. 스눕이 달랜다. “방금 진짜 멋졌어. 딱 내가 원하던 그대로야.” 그 순간 나는 뭔가를 발견한다. 그 난장판 와중에 창문 틈새로 1달러가 떨어 들어온 거다. 스눕에게 그걸 건넸다. 뚱어저려 1달러를 노려보던 스눕이 실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아 씨발, 겨우 847달러밖에 못 썼네...”

독&라이언  
뮤직비디오  
감상





→ 후드 Opening Ceremony  
보디슈트 American Apparel  
브라 La Perla

PAIN&GAIN'S

# BAR PALY

여름을 맞아 몸 만들기에 돌입했다면,  
건강미 넘치는 미녀 바 팔리의 섹시 보디를  
감상하는 건 어떨까? 보는 것만으로  
후끈해신 나머지 맘 좀 빼게 될 테니까.

FEEL  
THE  
BURN

by  
JULIAN STERN  
photographs by  
JAMES MACARI

흥행의 아이콘 마이클 베이 감독은 범죄를 저지르는 보디빌더들의 실화를 영화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평소처럼 전쟁 로봇, 섹시한 미녀를 함께 출연시키려다... 이번엔 꼭 참고 미녀만 간택했다. 메간 폭스, 로지 헌팅턴휘틀리처럼 그동안 마이클 베이를 거친 미녀는 다 뜯다는 속설을 이어갈 새 베이걸은 '바 팔리'. 섹시한 그녀의 이름을 검색창에 치면 러시아-이스라엘 혈통의 끝내주는 여배우의 사진이 폭풍처럼 쏟아지며 당신의 심장을 발떡발떡 뛰게 만들 거다.



**오늘 MAXIM 촬영은 어땠나?**

엄청 재미있었다. 진짜로 운동을 시키다니! 런닝머신 위에서 16cm짜리 힐을 신고 있었는데, 그만한 운동이 어디 있겠어?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뭐 괜찮다. 사진은 괜찮게 나온 것 같으니까.

**영화 <페인 앤 게인>은 보디빌더들이 어찌어찌하다 남치에 연루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혹시 남치 사건에 연루된 적은 없었나?**

범인으로 연루된 적을 말하는 건가? 내가 러시아-이스라엘계 사람이어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웃음)

**인기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댄서 '소리나' 역을 아주 훌륭히 소화했다. 스트리퍼 교육이라든가 따로 받은 건가?**

폴 댄스 선생님을 붙여주더라. 봉춤은 보기보다 어렵다. 봉에 몸을 부딪혀 이곳저곳 명이 들기 때문에 무릎보호대는 필수다. 댄서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

**새 '베이걸'이 되었으니 앞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겠군. 본드걸 뺨칠 각오는 되어 있겠지?**

물론! 아직 실감할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엔 러브레터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나를 태양과 달에 비유하는 시를 써 보내더라고(웃음) 이 자리를 빌어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드웨인 존슨과 마약을 하고 후배위를 하는 장면도 있던데, 몇 테이크 찍었나?**

그 장면 그렇게 많이 찍지 않았다! 대체 왜 남자들은 그 장면만 꼭 집어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영화에서는 아주 잠깐 나올 뿐인데.

**그러게 말이다. 그렇다면 드웨인과 마크 월버그 위에서 램댄스를 추는 기분은 어땠나?**

기분이 묘했다! 게다가 마크와 함께 한 장면은 촬영 초반에 찍은 거였는데, 마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내 머리칼로 그의 얼굴을 쓸어댔으니 말이다.(웃음)

**영화 속에서 남자들이 당신을 꼬시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한다. 당신의 관심을 사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는 남자가 실제로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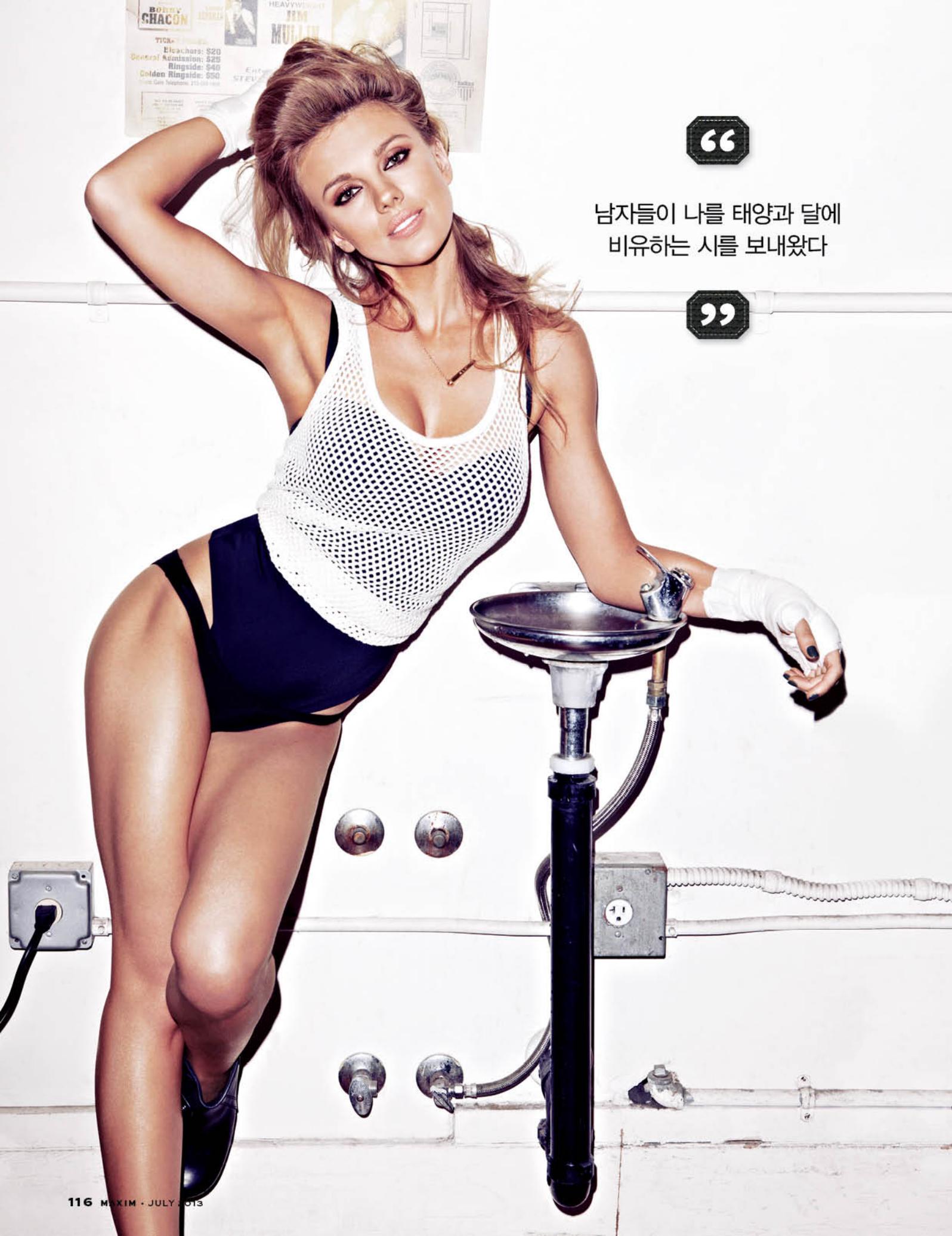
코감기 약을 사러 약국에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오더니 "저기요, 요즘 내가 메간 폭스와 영화를 찍고 있는데 당신도 함께 해볼래요?"라고 물었다. 나한테 그런 방법이 통할 리가 있나?

**설마 그 남자가 마이클 베이 감독?**

무슨 소리... 당연히 아니지. ☹



브라 La Perla  
팬크탑 Vince  
보디슈트 American Apparel  
구두 Rick Owens



“

남자들이 나를 태양과 달에  
비유하는 시를 보내왔다

”



보디슈트 Wolford  
탱크탑 Isabel Marant  
속옷 Eres  
구두 Rick Owens



**Bar Paly**

태어난 곳  
이스라엘 텔아비브  
생일  
4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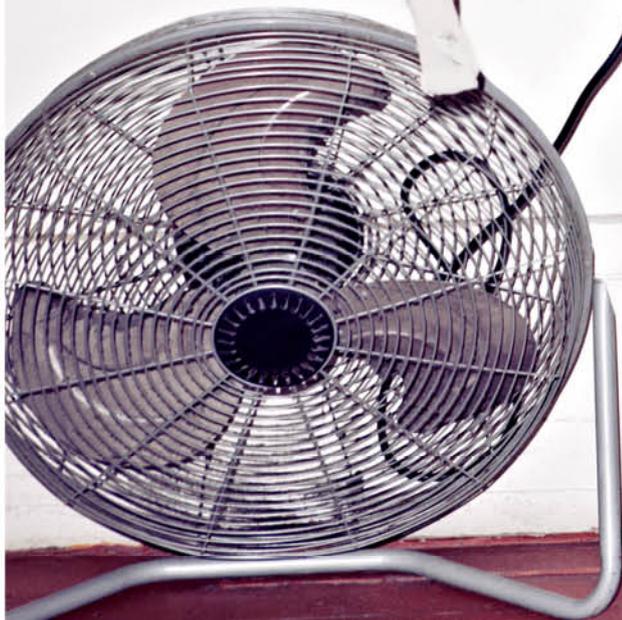
STYLING KARLA WELCH/THE WALL GROUP HAIR JEN ATKIN/THE WALL GROUP MAKEUP KAYLEEN MCADAMS/THE WALL GROUP  
MANICURIST TRACEY SUTTER/CLOUTIER REMIX USING SALLY HANSEN LOCATION CLASSIC KICKBOXING GYM, PASADENA, CALIFORNIA



폴 댄스는 보기보다  
어려운 춤이다



NO  
SPITTING IN  
FOUNTAIN



후끈한  
필링 현장



# Fight

## ‘코리안 좀비’ 정찬성

1987년생(만26세) | 13승 3패 3KO 8SUB  
 오소독스 | 강한 멧집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난타전에 능한 공격적인 파이터  
**키:** 170cm | **리치:** 182.88cm | **체중:** 66kg

다른 프로필엔 좀비의 키와 리치가 각각  
 175cm, 195cm로 나와있으나 이 기사에선  
 '파이트메트릭'의 수치를 따랐다.

### 허파(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국내 선수 중 단연 최고  
 레벨. 격렬한 경기를 치러도 상대가  
 먼저 지친다. 여자한테 인기 많았었!

### 팔(레슬링/주짓수)

완력이 대단하진 않지만  
 팔이 길고 힘을 잘 사용하여  
 그레플링도 상당히 잘함.

### 허리(레슬링)

경력 초중반엔 레슬링이 약했으나  
 요즘 굉장히 좋아짐.

### 오른 주먹

훅과 어퍼컷이 많다. 특기이자 가장  
 기대되는 공격은 오른손 카운터.  
 리치가 워낙 길고 맞는 것을  
 개의치 않으며 과감하게 나가니까  
 보이긴 좀 투박해도 엄청 위험한  
 절기다. 호미덕이 왼손으로 들어대다가  
 이거 먹고 한방에 잠들었다. 알도가 왼손이  
 좋는데 자기 왼손 믿고 함부로 하다가는 이  
 기술에 먹힐 수 있다. 공수전환이 부족한 것이  
 흠이나, 이 주먹은 그라운드에서 파운딩을 칠  
 때에 상당히 위력적.

### 머리

영리하다. 의외의 변주를 할 줄 알며,  
 알도와 마찬가지로 상황 대응이 빠르다.  
 조금 걱정적이라 가끔 너무 무리하기도  
 하지만 멘탈은 최최최최최최.

### 턱(멧집)

금속성 두개골과  
 초합금 턱. 최강!

### 심장(용기, 과감성)

UFC 전체에서도 으뜸가는  
 탈심장. 용기와 과감성  
 최고! 최근엔 콘트를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임.

### 피부

난타전 중에서도 심한  
 커트(상처)가 나지 않고  
 출혈도 심하지 않음. 진짜  
 언데드인가?

### 영양(주짓수)

긴 사지로 조르기류를  
 능숙하게 구사.  
 타격가인데  
 서브미션승이 훨씬 많다.

### 무릎

양쪽 무릎으로 연속 니킥을 아주  
 능숙하게 구사. 난타전 중에 짧고  
 간결한 니킥을 어퍼컷 대신 가끔  
 사용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스킬이다.

## 조제, 좀비 그리고 타이틀전

8월 4일, 정찬성이 한국인 최초로 UFC 챔피언 타이틀에 도전한다.  
 상대는 머리만 안 세웠지 초사이어인임에 틀림없는 챔피언 알도.  
 하지만 정찬성의 플레이는 늘 상상 그 이상이다. 우린 아마 이날 인간  
 이상의 플레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총평	정찬성	조제 알도
강점	강철 턱과 사자의 심장, 타이틀을 향한 강한 열망, 오른손 카운터펀치	존나 센, 너무 잘함, 다 잘함.
약점	방어가 다소 부족, 1년 3개월의 공백, 알도의 홈 브라질에서 열리는 경기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스테미너, 다소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한 스타일

## 🇧🇷 조제 '스카페이스' 알도

1986년생(만26세) | 23승 1패 13KO 2SUB  
 오스독스 | 모든 테크닉이 절정이며  
 공수 모두 뛰어난 만능형 파이터  
 키: 170cm | 리치: 177.8cm | 체중: 66kg

### 두개골&턱

큰 공격에 잘 안 당하니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절대 안 넘어간다.

### 허파

유일한 약점. 마크 호미닉이 알도에게 존내 맞으면서도 약착같이 들러붙어 힘을 빼니 5라운드에 방진된 적이 있음. 준비의 주요 공략포인트.

### 오른 주먹

존나 빠르고 대박 위력적이며 너무나 우수하다. 스피드와 파워, 정확성이 극에 달함. 최근엔 정교함까지 물이 올랐다. 실상력은 다소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방어가 부실하면 정말 많이 처맞고 아주 딱이 된다.

### 오른발

정찬성이 가장 조심해야할 기술. 알도의 오른쪽 로키는 현 MMA를 대표하는 최고의 테크닉으로 스피드, 파워, 정확성이 모두 만렙이다. 직격 당하면 다리가 막 하늘로 들린다.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로きを 자주 허용하면 경기가 힘들어진다.

### 니키키

명품 중의 명품. 2단 점핑니키키나, 한 바퀴 돌아 치는 니키키를 보면 무릎에 눈이 달렸나 심을 정도로 정확하다. 원샷 원킬의 위력도 있다. 알도의 무릎은 무척 위험하니 조심할 것.

### 두뇌/멘탈

머리가 좋고 상황 대응도 매우 빠름. 냉정과 열정을 공유한 이상적인 파이터의 성격을 가졌다. 무리하지 않되 몰아칠 때는 아수로 돌변하는 타입인데, 최근에는 타이틀 방어에 집중에 집중해서인지 냉정한 면이 두드러진다. 멘탈이 좋은 편이나 좀비 쪽이 더 강함.

### 안력

힘이 장사세! 서브미션 패를 한 번 당한 이후 세 경기에서 거의 그라운드링 위주로 싸웠는데 힘이 무지하게 세다는 게 확인됐다.

### 심장

과감한 편이나 최근 차갑게 변했음. 물론 언제 본색을 드러낼지 모른다.

### 원주먹

젼, 훅, 어퍼 다 기가막힘. 특히 젼은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찬성이 테이크다운이나 전진 압박을 구사하면 알도는 젼을 더 많이 낼 거다. 정찬성은 이를 오른손으로 카운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영성이

주짓수 블랙벨트. 알도가 못 하는 게 있을라고. 주짓수도 존나 잘하겠지.



## 지키려는 자와 오르려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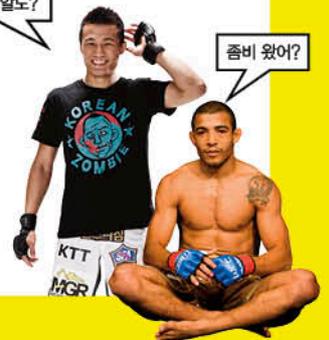
이 챔피언은 강하다. 진짜 강하다. 하지만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이고 정밀한 파이트를 하다 보면 정찬성 같이 공격적인 타입에게 약점을 보일 수 있다. 료토 마치다가 쇼군한테 잡힌 것처럼 정밀 기계는 역시 거친 도구로

두들겨 부셔야 하는 법. 물론 알도도 본성은 아수다. 워낙 잘 때린다. 방어에서 빼앗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명백히 정찬성이 언더독이다. 냉정히 말하면 정찬성이 이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정찬성은 가르시아와 2차전을 할

때도, 마크 호미닉, 더스틴 포이리에랑 할 때도 언더독이었지만 멋지게 승리했다. 정찬성에게는 전문가조차 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다. 그것의 요체를 알도가 파악하지 못한다면 알도 역시 좀비에게 먹힐 가능성이 있다. 🤖

규적규적, 언녕, 알도?

좀비 왔어?



웃어, 웃어.

### 강한 남자 #1. 코리아 탐팀 전찬열 관장

MAXIM이 존나 센 수컷을 만나는 '강한 남자' 시리즈를 시작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종합격투기계에 탐FC란 새 판을 짠 코리아 탐팀의 전찬열 관장이다. 같이 스타트 끊었으니 잘해보자고!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 KEY WORD: 레슬링 기대주, 스승, 도전

"노기"로는 전찬열 관장님이 1인자예요."

UFC 파이터 김동현이 말했다. 유도 선수 출신에 세계적인 레벨의 그레플러\* 김동현이 고개를 숙이고 1인자로 꼽을 정도면 대체 얼마나 세단 말인가? 전찬열 관장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한다.

\* 그레플링: 레슬링이나 유도, MMA에서 양 선수가 서로 단단히 붙잡은 상태로 겨루는 것

\* 노기: 도복 없이 대전하는 그레플링

초등학교 시절부터 힘과 운동신경이 남달랐던 전찬열은 씨름으로 그를 발굴한 스승의 권유로 레슬링을 시작한다. 그의 성장 속도는 놀라웠다. 비교적 늦게 시작했음에도 전찬열은 U16 카넷 선수권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부분의 또래들이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통해 여러 나라 캐릭터와 싸우던 시절, 그는 진짜 세계와 겨뤘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전찬열은 "중학 시절 내내 구로 집에서 목동 학교까지 1시간 거리를 매일 달려 등-하교를 했다"고 했다. 잘나가던 고교 시절, 그는 U19 세계청소년선수권에서 다시 한 번 우승했다. 주변에선 '전찬열은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체육대학에 진학했고 태릉과 한체대를 오가며 올림픽을 향해 전진했다. 군 입대 시기가 오자 그는 상무에 입대한다. 하지만 목에 부상을 입은 전찬열에게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폭탄을 안고 계속 경기를 뛰었다.



손 치워, 손, 다친다.

부상은 점점 심해졌고 그는 제대와 동시에 레슬링을 은퇴하게 된다. 1년의 재활과 휴식으로 건강은 회복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올림픽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진 않았다. 부상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전찬열은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다.

스포츠 해설가 김남훈의 블로그에는 전찬열이 고교 교사 시절에 칼 든 강도를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전찬열에게 그 일을 묻자 "별일 아니다"며 대답을 피했다. 집요하게 캐물으니 그가 말했다. "그 강도 아이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 칼끝이 덜덜 떨리더라. 그 틈에 아이를 제압했다." 다음에 이어질 통쾌한 무협활극을 기대하며 더 자세히 물었다. "경찰에 아이를 넘길 때 얼굴을 봤는데 땀에 흠뻑 젖어 세상 다 포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도 잡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이런 아이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교사' 전찬열은 제자 또래의 청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했다.

전찬열은 학교에선 제자를 가르치고 서울대 레슬링 동아리도 지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수련생 2명이 바닥에 누워서 기괴한 동작을 취하는 것을 목격한다. "레슬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냐.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다. 그들이 연습하고 있던 건 바로 서브미션 테크닉이었다. 전찬열에게 새 도전 목표가 생겼다. 그는 인터넷으로 영상과 강좌를 찾아다니며 서브미션기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결국 서브미션기라는 새 영역과의 융합에 성공한 전찬열의 레슬링은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매일 오랜 시간 남자들끼리 옷 벗고 튕구는 영상을 보고 있는 전찬열을 두고 그의 어머니는 "혹시 애가..." 하는 오해를 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통해 일부 가르침을 얻기도 했지만 거의 독학으로 그레플링-서브미션기 체계를 확립한 그는 국내 노기 그레플링 1인자가 됐다.

### 기대되는 탐FC 경기 TOP 3

#### 양동이 vs. 김재영

일본 무대 점령 후, UFC에 진출한 양동이와 미들급 토종 강자 김재영이 붙는다. -84kg급 국내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최강 카드.

#### 양해준 vs. 김두환

190cm 이상의 두 거구가 맞붙는다. 국내에선 쉽게 볼 수 없는 헤비급 경기.

#### 방태현 vs. 황주동

타격이 특기인 귀환마초 방태현과 그라운드 실력자 황주동이 영토 전쟁을 벌인다.

6월 29일 | 서울KBS스포츠월드



#### KEY WORD: 코리아 탐팀, 동지, 탐FC

전찬열 관장이 코리아 탐팀(이하 탐팀)을 결성한 것은 2003년. 평생 동지 하동진과 이용훈 관장이 그와 도원결의하고 탐팀에 합류했다. 탐팀은 정찬성(코리안준비MMA로 소속 변경), UFC 미들급에서 뛰던 국내로 U턴한 양동이, 최근 UFC에 진출해 승리한 임현규 등 좋은 파이터들을 길러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격투 지도자와 유명 선수 중 탐팀의 세례를 받은 이는 많다. 길현권, 위승배, 남의철, 이재선, 유우성, 김지훈, 정찬성, 서두원 등이 모두 탐팀 출신의 유명 격투인이다. 탐팀은 명실공히 국내 MMA의 명문이다. 종합격투기계 먹이사슬의 최상층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과 힘이다. 선수가 강한 힘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련법 부분에서 태릉의 레슬링 지도자들은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자랑한다. 태릉에서, 그리고 씨름, 유도, 레슬링을 거치면서 스승으로부터 사사받은 노하우를 가진 전찬열 관장의 트레이닝 테크닉은 탐팀 제자들을 통해 대한민국 MMA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국내 MMA 선수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크게 높이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

전찬열의 탐팀은 최근 또 새로운 도전을 했다. "국내 선수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회가 가야한다는 신념"으로 전찬열 관장은 6월 29일 한국에 새로운 격투 대회 '탐FC'를 개최한다. 씨름에서 시작되어 레슬링을 거쳐 교사, 종합격투기 지도자를 지나 이제 그는 프로모터의 세계라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전진을 개시했다. W

#1.  
무서운 이야기의  
10가지 단골 소재

앞으로 3개월 동안 연재될 MAXIM  
납량 특집 기사 시리즈. 그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주제는 바로 '무서운 이야기'.  
바람 솔솔 불어오는 무더운 여름밤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무서운 이야기의  
단골 소재 10가지를 MAXIM이 추려 본다.

2013  
Summer Special

horror  
10

BY 조용재 MODEL 장혜민 PHOTOGRAPH Zoo LAYOUT 서윤정

치녀  
귀신의  
정체는



**첫 번째 유형:**  
**한밤중의 드라이브**

어두운 밑실, 사방이 뚫려 있는 유리창, 그리고 무엇이 비칠지 모르는 백미러들. 한밤중의 드라이브라는 소재는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중고차의 내비게이션>**

남자는 값싼 중고차를 구입했다. 만족스러운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건졌다고 생각했지만 더 기분이 좋았던 것은, 차 안에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차를 구매한 날 밤, 홀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결심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장소를 찍으려 하자, 전 주인이 즐겨찾기를 해놓았는지 딱 한 장소만 행선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마침 그 장소가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 딱히 가려고 마음먹은 곳도 없었기에 남자는 행선지를 그곳으로 정해 드라이브를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50미터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립니다.”

30분 정도를 달리다 보니 목적지에 꽤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방은 아무것도 없는 산간의 고갯길. 폭도 무척 좁다. 기분이 이상했지만 어차피 내비게이션이 지정한 곳이 맞았기에 그대로 차를 몰았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감정 따위 실리지 않은 내비게이션의 컴퓨터 음성이 흘러나왔다.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일단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 정차한 도로 바로 옆에 마른 국화꽃과 향을 피운 재의 흔적이 있었다.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차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차 문을 열었다. 순간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사고로...”

**Editor's comment:**

보배드림에서 읽는다면 두 배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 중고 거래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교훈, 산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차창의 손자국>**

밤만 되면 원인 모를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터널이 있었다. 터널 중간만 지나면 잘 가던 차들이 갑자기 회전을 하고, 벽을 들이받는다가나 접촉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A는 촬영 일이 끝나 이젠 수 없이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이미 A에게 “밤에는 절대 그 터널을 지나가지 마라”고 얘기한 바 있지만, 깊은 새벽이라 귀가가 늦어 하는 수 없이 지나가야 했다.

“다 미신이야.”

그렇게 터널 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A.

하지만 터널 중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져버렸다.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찰나, 갑자기 터널 속 조명이 하나 둘 꺼져갔다고, 터널이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으로 덮인 순간,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무시위전 A는 그대로 자동차의 모든 문을 잠가버렸다. 몇 분쯤 지났을까, 소리가 멈추더니 이내 터널의 불이 전부 들어왔다. A가 시동을 걸자 다시 시동이 걸렸다. 혼비백산한 A는 바로 그 터널을 빠져나와 재빨리 귀가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차를 확인하고 있던 A는 차창에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몸서 기분이 나빠, 세차장에 차를 끌고 간 A는 현창 손바닥을 지우려 하던 정비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손님, 이거 밖에서 찍힌 손자국이 아닌데요.”

**Editor's comment:**

차 안에 타고 있던 천수관음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을거야. 그런데 문을 잠그다니, 말 그대로 '지리는 이야기'네.



**이누나키 터널**

일본 최대의 심령 스폿, 터널 관련 과담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으로, 항상 이곳을 지나가거나 들른 사람들은 저주를 받거나 죽는다는 얘기가 든다. 현재 터널은 콘크리트 블록으로 봉쇄돼 있다. 실제로 잦은 교통사고와 살인 사건 때문에 현재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 두 번째 유형: 수상한 점쟁이류

결국 인간은 운명을 피해갈 수 없다.  
불안한 점괘 때문에 똥줄이 타는 공포를 느껴야만 하는  
인간의 숙명에 대한 이야기들.

### 〈5년 전 운명〉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남자가 걸어가며 문득 옆을 보니, 5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 있는 책상에는 '점'이라고 쓰인 종이의 수정 구슬이 있었다. 점쟁이인가 보다. 남자는 호기심이 생겨 점을 보기로 했다.

“제 동생의 운명을 보고 싶는데요.”

점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다.

장난기가 생긴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5년 뒤 자신의 나이를 말했다.

사실 남자에게 동생은 없었다.

“XXX씨, 스물여덟 살, 맞습니까?” 점쟁이는 재차 확인하며 수정 구슬에 손을 얹더니 점을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놀란 표정으로 남자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실례지만, XXX씨는 아직 살아 계신가요?”

“당연하죠, 무서운 소리하지 마세요.”

그러자 점쟁이는 “동생분께 몸 조심하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몇 번을 부탁했다.

“왜 그러시죠?”

“당신의 동생 분, 5년 전 오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 Editor's comment:

용한 점쟁이가 동생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합정, 혹은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까. 아마 지금쯤 먼 곳에 있는 배다른 쌍둥이 형제...

### 〈사실 그의 운명은...〉

한 여자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와 공함을 보러 갔다. 워낙에 용한 점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잔뜩 짜증이 난 남자와 여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점쟁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점쟁이가 감탄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재물 복도 좋고, 여자 복도 있고, 장수할 운이구먼.”

점 같은 걸 믿지 않던 남자는 그 얘기에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점쟁이는 여자의 점을 봐주지 않았다. 살짝 기분이 나빠진 여자가 남자를 재촉해 그대로 돌아가려 하자, 점쟁이는 복채를 넘겨주던 남자의 손을 그대로 뿌리치며 돌아가라고 말했다.

“복채도 안 받으시고, 이유가 뭐니까?”

“아니, 나도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은 처음 봐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남자는 여자를 달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순간, 갑자기 달려 나온 트럭이 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자를 그대로 받아버렸고, 남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슬픔에 빠진 여자는 남자의 장례식이 끝나고 지난 번 점을 보러 갔던 점집에 다시 찾아가 따지기로 했다.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작정 점쟁이의 방에 그녀가 들어닥치자 점쟁이는 그녀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영혼이 뒤집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당신들이 내 방에 들어오던 그날, 당신 약혼남은 불구나무를 서서 들어오고 있었어.”

### Editor's comment:

원래 우리 그이는 등춘서커스단 출신이란 말이에요, 흑흑.

### 추억의 방송 3사 호러 프로그램



### 이야기 속으로(MBC)

시기상으로는 〈토요 미스터리 극장〉보다 앞서 있지만, 딱히 심하게 무섭지 않다는 이유로 항상 2인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실은 무서운 이야기보다 시연이 있는 이러한 얘기가 더 많았다. 내용도 탄탄해 현재 방송하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전신이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 토요 미스터리 극장(SBS)

MC 전무송의 진행이 돋보인 프로그램. 〈이야기 속으로〉보다 귀신의 퀄리티가 높았으며, 조명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무서운 신을 잘 연출했다. 다만 MC들을 영매처럼 행동하게 한다든가, 어설픈 그래픽으로 배경을 처리하는 등, 오그라드는 장면이 하도 많아 후에는 무리수 취급을 받고 종영했다.



### 무서운 스펀지(KBS)

우러먹고 우러먹고 스펀지가 해질 정도로 또 우러먹은 스펀지의 후기 부제, 원래 신기한 사실 위주로 보여주던 프로그램이 시들해지자 조금 더 자극적인 소재로 재기하려던 의도가 보인다. 이쪽은 괴담보다도 도시 전설, 미신, 위험한 실험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 심령 사진 BEST 3

당신의 방을 설치해 할 심령사진들



### 제주도 심령사진

비교적 최근 발견된 국내판 심령사진. 남자의 오른쪽 어깨 뒤에 마치 모나리자같이 생긴 남자의 얼굴이 비친다. 사진 각도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TV에 소개된 바 있는데, 절대 조작 사진이 아니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 일본 드라마 속 심령체

일본의 하이틴 드라마에 등장한 수상한 여자의 얼굴. 분명 어떤 물건이 착시 현상에 의해 사람 얼굴처럼 보인 것이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해 감독의 고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다.



### 양키관 주은

친정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모녀가 각각 두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앉은 사진 옆으로 거꾸로 매달린 남자의 형상이 보인다. 꽤 연식이 있는 사진임에도 선명하게 형상이 드러나 공포심을 자극하는 사진이다.

## 세 번째 유형: 심령사진류

직접 보는 심령사진도 무섭지만, 그 사진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텍스트로 그려냈을 때 상상해 보는 심령사진의 장면도 만만치 않다.

### <그게 문제가 아냐>

친구 네 명이 담력 시험을 하러 가기로 계획했다. 그중 귀신을 볼 줄 아는 친구 A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은 기대를 했으나 "역시, 그냥 안 가는 편이 낫겠어"라며 A가 포기하는 바람에 셋이서 가기로 했다.

세 명은 담력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와 A에게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세 친구, 그리고 그 뒤쪽에서 스산하게 생긴 여자가 눈을 부릅뜬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을 보던 A가 전혀 반응이 없자, 친구들은 "이 사진 안 무서워?"라며 A를 독촉했다. 이윽고 입을 다물고 있던 A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사진, 근데 누가 찍은 거야?"

### Editor's comment:

인터뷰 때도 최신 기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A는 요즘 카메라의 '타임머' 기능을 잘 모르고 있었다. 멍청한 녀석.

## 네 번째 유형: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류

짤막한 이야기가 많은 유형이다. 별 단서도 남기지 않고 이야기가 끝났음이 마무리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름이 짝 들으면서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괴담이다.

### <잠시>

여중생이 학교 지하실에 있는 도서실에서 열심히 책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문을 걸어 잠근 채로 돌아가버렸다. 그날은 종업식, 그리고 내일부터 여름방학... 안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는 무섭지 않았다. 좋아하는 책이 있었으니까. 아이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여름방학이 끝난 후 선생님이 지하실 문을 여니 여자아이의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그 아래에 떨어져 있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다. 열쇠 구멍으로 바라보는 경비원의 눈 말고는."

### Editor's comment:

그래서 요즘은 열쇠 방식을 버리고 도어 락을 설치합니다. 이런 일을 사진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 아이, 휴대폰도 없었나요?

### <사진 속의 마을 사람들>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 친구가 있었다. 얼마 전, 휴가 때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는지 선물과 사진을 갖고 왔다. 워낙 좋은 사진기를 쓰고 있던 친구라, A4 용지에 출력되어 있었지만 꽤 화질이 좋았다.

"오, 굉장한데? 잘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이 사진 조금 이상해."

그가 보여준 사진은 어떤 농촌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러게, 요즘도 모내기를 기계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곳이 있구나."

"그게 아냐. 마을 사람들이 웃고 있잖아."

"아아, 그러네. 기념사진처럼 여길 보고 웃고 있어."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 이 사진, 망원렌즈로 산 너머에서 무심코 찍은 건데."

### Editor's comment:

이 괴담이 수록되어있던 사이트마다 항상 이런 댓글이 하나씩은 달려 있다. "겨, 마을 사람들 시력이 엄청 좋네."

### 〈CCTV〉

자취를 하는 직장인 A에게 요즘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항상 집 안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 것이었다. 테이블 위에 방금까지 먹다 만 음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분명 끄고 나간 TV가 켜진 채 뉴스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스토커라도 있는 것일까 생각한 그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방 안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퇴근 후, A는 집에 돌아와 열쇠로 문을 열고 방안에 설치해둔 CCTV를 빼내어 기록된 영상을 보기로 했다. TV에 CCTV에 들어 있던 테이프를 꺼내어 비디오 데크에 넣고 재생을 시작한다.

A가 회사에 나가 뒤, 몇 분 후 문이 덜그럭거리더니 이윽고 검고 긴 머리를 한 지저분한 여성이 들어왔다.

여성은 냉장고를 열고 각종 재료들을 꺼내어 음식을 만들더니 TV를 틀고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음식을 다 먹은 여자는 A의 침대 위에서 뒹굴거리며 침대 위에서 방방 뛰기도 하고 배꼽을 잡고 구르며 웃기도 한다.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순간, 여자가 멈칫하더니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어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재빠르게 불박이장 안으로 들어가 숨는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A의 모습.

곧 A는 CCTV에 다가와 손을 뻗는다. 비디오는 거기서 끝났다.

### Editor's comment:

그리고 A는 만면에 미소를 띠운다. CCTV는 다 오늘 밤 거사를 위한 것이었다...!

### 편집작품

야근을 하다가 배가 고파  
창장을 뒤져봤더니 떡볶이 있다.  
맛있게 먹었지만, 기분이 이상하다.  
먹고 나서 포장지를 보니  
이렇게 써 있었다...

### 「편집장끼」

### Editor's comment:

어우, 상상도 하기 싫다.

## 다섯 번째 유형:

### 나폴리탄류

일본의 밀도 끝도 없는 괴담, '나폴리탄' 이야기에서 차용된 괴담의 한 부류. 유명한 작품으로는 한때 인터넷을 강타했던 '스타워피츠'나 '빨간 당구공 이야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주인공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데, 결국 이야기가 끝날 때 까지 비밀은 밝혀지지 않는다는 짝퐁한 유형의 괴담. 사실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심지어 작가조차도 몰라, 쉽게 말해 그냥 '늪시 글'.

창장을 뒤져 보니 떡볶이 있다.  
맛이 좀 이상했지만  
먹고 나 뒤 포장지를 보니  
이렇게 써 있었다.

### 「공떡」

### Editor's comment: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므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흰 공떡이 녹색  
썩떡처럼 변했다는 이야기. 유통기한  
엄수합시다.

### 〈소의 목〉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다. 봄 소풍을 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따라 아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몰입하고 있었는데, 이윽고 교사는 마지막 비장의 괴담 '소의 목'을 꺼내들기로 한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소의 목'이라는 괴담이다, 여기서 '소의 목'이란..." 그가 이야기를 얼마쯤 진행하자 버스 안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들던 아이들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저마다 "선생님! 제발 그만하세요!"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귀를 막았고, 다른 아이는 울부짖었다. 그래도 교사는 짓궂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마치 신이 들린 사람 같았다. 잠시 후 버스가 정차했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교사가 운전석을 보자 운전기사가 비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학생들은 당황한 나머지 실신한 아이도 있었다.

이후로 그가 두 번 다시 '소의 목' 이야기를 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 Editor's comment:

인터넷에 '소의 목'을 검색하면 몇 가지 관련 실화가 나오긴 한다. 전쟁 당시 대가근으로 인해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 등. 하지만 별로 안 무서운 걸 보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나폴리탄 류의 괴담은 주요 소재의 정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아니,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 여섯 번째 유형: 혐오스러운 벌레 이야기

귀신을 마주칠래, 바퀴벌레를 먹을까? 라고 묻는다면, 바퀴벌레를 먹는다고 말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창조주는 귀신보다 무서운 녀석들을 세상에 풀어놓았다.

### <키보드 아래에는...>

반년 전쯤? 엔터 키와 시프트 키 사이에 두 가닥의 실이 빠져 나와 있었다. 나는 그때 '웬 머리카락?' 하며 실을 속 뽑았다. 그런데 방금 전, 엔터 키가 자꾸 덜컥거리길래 엔터 키를 뽑고 그 뒤를 보자, 더듬이가 없는 바퀴벌레의 시체가 들어 있었다. 즉 나는 반년간이나 엔터키 뒤에 바퀴벌레 시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긴 시간 동안 수천, 수만 번이나 바퀴벌레의 머리를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타닥 ...

### Editor's comment:

키보드 자판에 맛있는 걸 흘리지 말라는 얘기다. 아마 굉장히 슬림한 녀석이었나 보네.



### 틈새녀 괴담

흔한 생활 속 공포 중에는 '틈새녀'라는 괴담이 있다.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살면서 흔히 볼 수 있는 틈새. 예컨대 문이나 장롱, 찬장이나 창문 틈 사이에서 누군가가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일종의 '주시'형 괴담이다. 외진으로는 '지하철 승강장 틈새남'도 있다. 말 그대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를 잘 쳐다보면 아래에서 이쪽을 쳐다보는 남자가 있다는 도시 괴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글을 읽은 순간부터 당신은 당분간 눈에 보이는 모든 '틈새'를 신경 쓰게 될 거다.

### <오래된 식용유>

대학에 입학한 뒤 자취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엔 음식을 해 먹기도 했으나, 2년이 지난 무렵엔 거의 밖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다 대학 4년쯤 되었을 당시, 우연히 입학할 당시 구입한 1리터 정도 되는 네모난 깡통 안에 든 식용유를 발견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보니, 기름은 탁한 갈색빛을 띠고 있었다. "아... 4년이나 지났으니 그럴 만도 하네. 익혀서 먹으면 되겠지!"라고 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먹었다. 얼마 후 졸업이 다가왔을 때쯤, 그 식용유도 거의 다 먹어갔고, 캔을 거의 바닥까지 기울여야 기름이 거의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깡통 입구에서 기름과 함께 팔 껍질 같은 것이 2~3장 나왔다. '안에 먼지라도 들어갔나?'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캔을 기울일 때마다 팔 껍질 같은 것이 계속 나왔다. 이상하게 여긴 나는 식용유 캔 뚜껑 자체를 깡통 파개로 파버렸는데...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거의 수십 마리에 달하는 바퀴벌레의 시체들.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 놈들은 아직 숨이 붙어서 꿈틀대고 있었다. 4년 사이 식용유 통은 이미 바퀴벌레 소굴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 Editor's comment:

그러니까 오래 된 음식은 빨리빨리 처리하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 하지만 좋은 단백질원이 되었군요!

## 일곱 번째 유형: TV, 라디오 등 방송류

무서운 이야기 혹은 귀신은 혼자 보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함께 목격했을 때 공포감이 배가 된다. 잘못 보거나 듣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즐기는 '방송에 나온 괴담'은 더욱 무섭다.

### <의문의 비디오>

어느 날, 학교 동아리방에 알 수 없는 비디오 하나가 배달됐다. 궁금해진 우리는 다 함께 동아리방 TV에 테크를 연결하고 비디오를 재생했다. 그러자, 방 안에 벌거벗은 남자가 서 있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이윽고 남자는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한다. 기괴하지만 웃긴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폭소했다. 그런데 함께 영상을 지켜보던 여자 후배 하나가 혼자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 제 방이에요."

### Editor's comment:

민약 남자 후배의 방에서 벌거벗은 미녀가 춤을 추는 비디오였다면...? 자취방에서 [몰래 스트립쇼.avi](#)

## 〈녹음된 이야기〉

얼마 전 라디오에서 특집 심야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다. 〈100인의 무서운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일반인, 연예인, MC 등이 모여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하며 100개의 컷들을 하나씩 꺼나가는 것이었다.

방송 당일, 출연진 100인이 모두 모였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회자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야기가 줄을 지었다. 구십 팔, 구십 구, 백 번째 이야기까지. 결국 별 특별한 이야기도, 사건도 없이 프로그램이 끝났다.

100명의 출연진은 “뭘, 특별한 건 없었네”라고 살짝 아쉬워하며 방송이 끝난 후 가볍게 뒤풀이를 하러 술집으로 향했다. 다들 술에 취해 왁자지껄 떠들며 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정적을 깼다. “젠장, 나도 진짜 무서운 얘기 알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딱 100명이 있었는데 당신이 알 뻔했어 리가?” 순간 이상한 기미를 눈치챈 사람들은 얼마 후 방송으로 나간 라디오의 녹음테이프를 들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56번째,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3년 전 사고로 내가 죽었을 때 이야기인데 말이죠...”

### Editor's comment:

“...그래서 결국 난 죽었어. 하지만 최고급 제세동기를 가져온 응급차 덕에 내 심장은 다시 뛰었지. 꺾꺾.”

## 〈특집 생방송 중〉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1999년에, 잘나가던 MC 임백천이 진행하는 심야 토크쇼 중 〈윈디폴 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특이하게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너 중에서 이름은 가물까불하지만, 테마 하나를 주제로 전국의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 게스트 연예인 몇 명과 토크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날 주제는 ‘귀신을 본 사람들’이었는데, 택시기사, 의사, 학교 수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편한 장소에서 귀신을 본 사람들이 자신이 귀신을 본 장소와 당시 본 귀신의 생김새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토크쇼가 마무리될 즈음,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머리가 조금 벗어진 아저씨인 걸로 기억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MC: 선생님은 어떤 귀신을 보셨나요?

남자: 그냥 귀신인데, 집 앞 가로등에 있는 걸 봤어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MC: 엄청 무섭게 생긴 귀신이었나 보네요?

남자: 아뇨, 그냥 일반 사람과 다를 것 없는 남자였습니다.

MC: 구체적으로 어떤...?

남자: 그냥 아저씨였는데, 옷도 입고, 팔다리도 다 있었어요. 근데 가로등 아래에서 기어 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MC: 아... 뭐 그냥 기어 다니는 게 뭐가 무서웠던 건지 모르겠네요. 약주라도 하신 게 아닐까요?(웃음)

남자: 근데, 공중에 떠서 기어 다니고 있더라니까요.

### Editor's comment:

이마 그 문, 돌아가시기 전에 렌즈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싶다.

## TV 공포

라이브로 봤다간 애 떨어지겠네.



## 영화 〈주은〉

주인공 홀로 원형에 남아 있는 장면은 영화 〈주은〉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생활 공포’ 신이다. 특히 TV를 보던 중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기괴한 소리가 나오는 장면은 이 영화의 최고의 백미.

##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일본의 브라운관 파괴 사건

일본 NTV의 프로그램 〈오모이키리 돈〉의 생방송 중 갑자기 엔딩 코멘트와 동시에 영상이 정지하고 소음과 함께 화면이 마구 흔들리는 방송 사고가 일어났다. 심지어 모 신문은 이를 ‘심령 사건’이라고 보도했다고.



## 수림할수림할수림할 사건

2004년 MBC 〈심야 스페셜〉 ‘웰빙 우유’ 편에서 인터뷰를 하던 김초일 박사가 “보건 정책을 수립할”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무한 반복되며 화면이 옆으로 길게 늘어지는 방송 사고가 있었다.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에 많은 형의가 들어왔다고.



여덟 번째 유형: **반전류**

이런 괴담은 대부분 긴장감을 밀도 끝도 없이 유지하다가, 기운 짝 빠지는 코믹한 결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괴담계의 '기승전병' 유형.

〈지주의 머리카락〉

회사에 나를 몹시도 괴롭히는 부장이 있다.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 심하게 나온 배, 기분 나쁜 냄새,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 이상으로 이상한 성격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로부터 싫어하는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저주를 배울 수 있었다. 밀짚으로 된 인형을 만들고, 그 안에 저주를 받을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아 넣은 뒤 불에 태워 버리면 그 사람은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내로 죽게 된다. 그리고 나는 부장이 책상에 엎드려 자는 사이, 그의 뒤편으로 다가가 머리카락을 한 가닥 뽑아냈다. 집에 돌아와 미리 만들어둔 인형에 그의 머리카락을 넣고 라이트로 불을 붙여 흔적도 없이 태워버렸다. 이제 됐다. 그 자식, 죽어버릴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살아 있다.

Editor's comment:

그렇다. 부장은 가발 덕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홉 번째 유형: **가까운 사람의 배신**

가장 다정하고 가까워야 할 사람들을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무감각한 존재로 그려내기 때문에 섬뜩하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교훈을 준다고 해야 하나...

〈당신의 아이가 했던 무서운 이야기〉

얼마 전 미국의 모 사이트에서 '당신의 어린 아이가 했던 말 중 가장 소름끼쳤던 말은 무엇이었나'라는 주제 아래 달린 댓글 중 인상 깊은 한 가지. 두 살 반인 딸이랑 딸 친구랑 같이 놀아주고 있던 중 어쩐지 티라노사우루스 얘기가 나오게 됐다. 나: 만약 네가 티라노사우루스라면 뭘 하고 놀 거야? 딸 친구: 초식동물들을 쫓아다닐 거예요! 나: 그럴 만약 네가 티라노사우루스라면 뭘 먹을까? 그러자 딸이 매우 진지해진 표정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 아이들을 먹을 거예요."

Editor's comment:

때로는 지나친 순수함이 의도된 진흙함보다 더 무서운 때가 있다.

〈화장실의 바퀴벌레〉

이사 온 후 옆집에 사는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도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며칠 후 그녀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자"며 나를 초대했다. 그녀는 쑥스러운지 자꾸 내 눈을 피한다. 귀여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나와 그녀가 저녁을 먹고 난 뒤, 갑자기 찾아온 야릇한 분위기. 갑자기 그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잠시 후, "까악!" 하는 소리에 놀라 나는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갔다. 화장실 문을 열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변 보려고 변기 커버를 올렸는데, 가운데에 바퀴벌레가 있었어...!" 에이, 뭐야. 바퀴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다니... 역시 귀엽잖아.

Editor's comment:

잠깐... 그런데 변기 커버를 올리는 것은...? 이쪽과 뒤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 왔다. "등짝! 등짝을 보재!"

〈어머니의 쪽지〉

학교에서 돌아온 유미. 한 여름 피야법의 시골길을 한참 걸었더니 무척 목이 말라 집에 오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마시려고 보니 부엌 한쪽 구석의 공간에... 엄마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깜짝 놀라 겁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려던 그 순간, 옆방에서 아빠가 걸어 나왔다. "유미? 침착하게 잘 듣거라. 엄마가 바람을 피웠단다. 너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나가려고 했어. 그래서 싸우다가... 이 애비가 그만 엄마를 죽여버리고 말았단다"라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도를 넘은 충격적인 상황에 유미는 침착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버지를 교도소에 보냈다가는 친척도 없는 자신은 교아원에 맡겨질 것이 분명했다. 유미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아버지를 경찰에 보내지 않기로. 이대로 돌아 함께 살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교복을 갈아입으려 하는 순간, 방구석에 작은 메모 종이 가 떨어져 있었다.

*유미 단장치거나 아버지가 이혼하면*

Editor's comment: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상황에서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시체 유기를 도우려 했던 유미가 더 무서워...



# Gu Ji Swung

19금 공포 영화 <꼭두각시>의  
호러 퀸으로 돌아온 구지성.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사람을  
홀리는 이 여인의 치명적인 매력에  
우리는 이미 헤어 나올 수 없다.

BY 손안나

PHOTOGRAPH **Zho**





구두 스타일 마리오  
팔찌 먼데이 에디션

골드 팔찌 JEM&PEBBLES  
진주 팔찌 먼데이 에디션



**공포 영화 <꼭두각시>에서 첫 주연  
신고식을 치렀다. 어떤 캐릭터를  
맡았나?**

평소에는 조용하고 조신한데, 최면에  
걸리면 섹시하면서도 광기 어린  
캐릭터로 변하는 다소 몽환적인  
여자다. 오늘 촬영한 화보 콘셉트랑  
똑같지?

**평범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

한동안 많이 우울했다. 술은 입에도 못  
댔는데 하도 마셔서 지금은 맥주 두어  
잔은 문제없다. 그런데 함정이 있었다.  
술을 마시니 더 우울해지더라.

**공포 영화 찍다 보면 가위눌리고  
그런다면데?**

실제로 놀리더라. 엄마가 침대에

가위를 두고 자라고 해서 그대로  
해봤다. 그런데 가위가 옆에 있으니 더  
무섭더라. 하지만 진짜 효과 있던데?

**영화를 찍으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는 없나?**

원래 최면을 안 믿었는데, 이번 영화  
촬영 중에 최면에 걸려서 대사도 못  
하고 NG가 났다. 정신 차려야 겠다는  
생각에 흔들리는 추는 안 보고 벽만  
뚫어지게 응시했다.

**실제로 최면에 걸려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

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추억은  
소중한 거다.

**영화에 함께 출연한 한소영이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누가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가?**

누구나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 소영 씨도 매력 있지만 아직은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웃음)

**우리로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신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딘가?**

짜깁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었을 때  
드러나는 라인.

**믿을 수 없지만 벌써 서른이 훌쩍  
넘었다. 동안의 비결은?**

철없이 사는 게 중요하다. 사실 할머니  
같은 소리를 많이 하고, 꽤 보수적이다.  
하지만 나이는 들었어도 철없이 살려고

노력한다. 절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보니 나는 아이들하고 말이 더 잘  
통한다.

**그렇다면 몸매 관리하는 어떻게 하나?**  
할 땀 하고 안 할 땀 아예 놓는다. 어제  
새벽에도 촬영 걱정 안 하고 쇠고기랑  
육회를 먹었다. 먹을 땀 먹어야지.  
하지만 관리할 땀 확실하게!

**당신과 사랑에 빠지고픈 MAXIM  
독자들에게 팁을 주도록 하자.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인가?**

한눈에 뽕 간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외모를 보는 신경이 무딘 것 같다.  
나보다 키 작은 남자친구도 만난 적  
있다.



구두 STARLET ASH

**구지성과 사귀려면 꼭 갖춰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센식 내가 "애!"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방도 "애!"라고 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라거나 "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예상치 못한 매력?

**구지성과 사귀려면 꼭 버려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가식과 허세. 정말 싫다!

**함께 연기한 이종수와 원기준 중 어떤 스타일이 더 좋나?**

두 사람의 매력이 완전히 다르다. 원기준 선배님은 섬세하게 챙겨준다. 종수 오빠는 참 밝다. 대화가 잘 통해서 안 지 오래된 것 같은 느낌? 둘을 섞어서 딱 반으로 떼면 좋겠다.

**최근에 한 연애는 언제인가?**

오래됐다. 지금이 2013년이니까... 6년이 넘었다!!

**소개팅은 안 하나?**

소개팅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어색한 자리가 너무 싫다. 거기에 영혼 없는 리액션까지.. 이제는 좀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해준다.

**MAXIM과는 전에도 만난 적이 있다.**

**2008년 8월에 표지 모델이었지?**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달라졌나?**

그때는 마냥 어릴 때였다. 지금은 많이 성숙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정말 여자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촬영 콘셉트는 마음에 들었나?**

5년 전 MAXIM과 작업할 때는 코스프레 콘셉트였다. 그런데 나이 앞자리가 3이 되다 보니 이제 귀여운 게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이미지가 바뀌더라. 많이 여성스러워지지 않았나?

**구지성은 청순한가? 섹시한가?**

원래 털털한 성격이다. 주변에선 내가 섹시한 캐릭터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섹시해지는 것 같다. 여성스러워졌다는 말은 섹시해졌다는 의미도 포함되잖아?

**‘다람지성’, ‘초딩 대통령’, ‘바비인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다람지성’이 가장 익숙하다. 팬들이 도토리 모양의 MP3를 제작해서 선물한 적도 있고, 산에서 도토리를 직접 따다 주기도 한다. 정말 다람쥐를 닮았나? 🐿



“

이제 정말  
여자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



## 구지성

생년월일: 1983년 1월 7일  
출생지: 부산  
출연작: 드라마 <대물>, 영화 <공모자들>, <꼭두각시>

취미: 네일 아트  
자주 가는 곳: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 집 앞 헬스장  
추천하는 여름 피서지: 부산 해운대

목걸이 멘데이 에디션

WORDS 박정숙 HAIR/MAKEUP 장혜민 FILM 김상수 ASSISTANT 이윤선  
COOPERATION 루이비통(02-2252-9787) 현대이 에이전시(070-4412-5922) 스타일 마린드(02-3443-1703) STARLET ASH(02-3443-1703) JEM&PEBBLES(070-7518-7954)



그녀의  
최면에  
취해보자



# Military



거기 감발천국 아니예요?

영화 속 인터넷 전쟁!



## 전세를 뒤집은 세기의 네트워크 전쟁 TOP3

BY 군사전문가 김대영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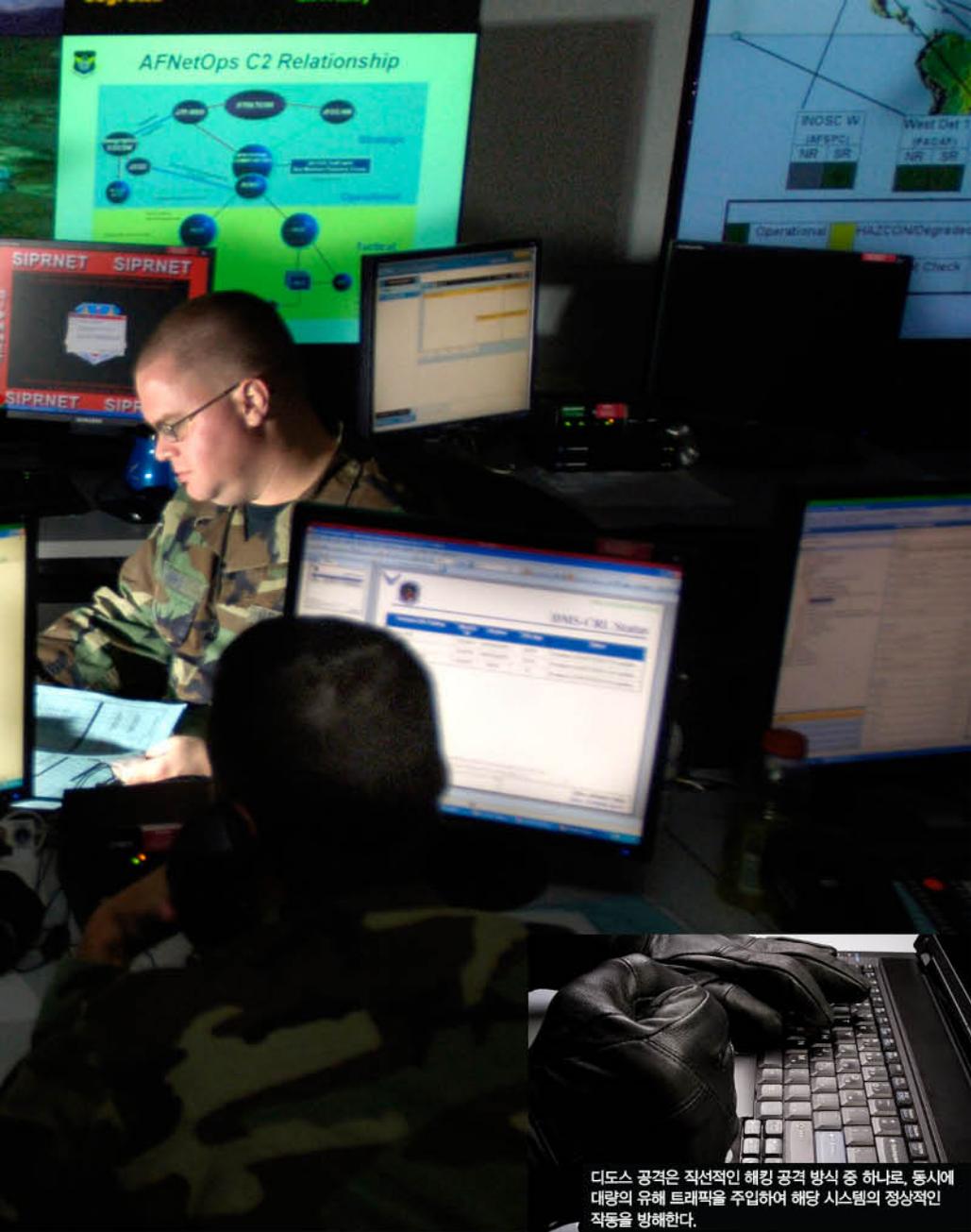
인터넷은 무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류가 누리고 있던 삶의 방식을 풍요롭게 바꾸어 놓았지만 이를 악용한 문제점과 신중 범죄도 수없이 탄생시켰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킹이다. 해킹이란 컴퓨터 혹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하거나 혹은 재설정을 가해 상대 진영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오늘날 새로운 전쟁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해킹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대를 창설 중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이 접속하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인터넷 대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7·7 디도스 대란

지난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그리고 네이버 등 국내·외의 주요 대형 인터넷 사이트들이 동시에 해킹을 당해 접속되지 않는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디도스(DDoS) 즉,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실시되었고, 전 세계 61개국 435대의 서버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의 중요기관 총 35개의 주요 사이트가 공격당했다. 이날 사용된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은 동시에 대량의 유해 트래픽을 공격 대상 시스템에 전송하여 해당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뒤, 국가정보원은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진원지는 북한의 체신청이었다”는 공식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디도스 공격은 직선적인 해킹 공격 방식 중 하나로, 동시에 대량의 유해 트래픽을 주입하여 해당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

## 유명한 해커 집단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커 집단'이라고 쓰고 '재능 낭비 단체'라고 읽는다.



### 홍객연맹(Red Hacker Alliance)

중국 최대의 해커조직이자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해커들이 다수 몸담은 단체. 다만 전세계의 수많은 해커 집단 중에서도 사상이 좋지 않기로 손꼽힐 정도다.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주로 일삼는데, 무차별한 행동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했다.

### 어나니머스(Anonymous)

한국에 디씨인사이드, 일본에 2ch가 있다면, 미국엔 넷시빅의 양덕후 양성소 4chan이 있다. 어나니머스는 이 4chan에서 결성된 해커 집단으로, 장난으로 시작하게 믿기지 않을 만큼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다.

### 룰즈섹(LulzSec)

어나니머스의 일부 멤버들이 만든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체포되어 해산했다. 이에 어나니머스는 보복성 공격으로 스페인 보안업체(판다 시큐리티)를 공격했다.

## 방송사를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

### 3·20 전산망 대란

지난 2011년에도 북한은 사이버공격을 감행했다. 3·4 디도스 공격 당시 북한은 해외 70개국 746대 서버를 활용해 청와대와 국회, 언론사 등 총 40개 주요 사이트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해 6월 9일에 발생한 중앙일보 해킹 사건도 사이버공격의 근원지가 북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0일, 발생한 '전산망 대란'은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날 공격을 위해 북한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최소한 6대의 PC를 이용해 피해 기관에 1,590회 접속을 시도했으며,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PC 저장 자료를 훔쳤다. 그뿐 아니라 올해 2월부터는 북한 내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에서 감염 PC의 원격 조작 등 명령을 내리기 위해 국내 경유지에 시험 목적으로 접속했던 사실도 파악되었다.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분석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정보를 빼내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한 점이 이번 공격의 특징이라고 한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 3위, 남한에 PC방 줄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었다.

크고 아름답군요.

저희 신제품  
'오빠의 불기둥'  
입니다.



이란은 핵 개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 이란의 핵 시설을 마비시킨 스텍스넷

### 세계의 골칫덩이 이란의 핵 개발

이란은 북한과 함께 핵 개발로 전 세계의 주목과 감시를 받고 있는 나라이다. 그들은 핵 개발이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반 서방주의 국가들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들어 가동 중이다. 그뿐 아니라 이와 동시에 핵무기를 먼 곳으로 투하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경제 제재와 함께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사항은 북핵과 마찬가지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다. 국제사회의 갖은 노력에도 이란의 핵 개발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한때 악성코드 하나로 인해 뒤집어질 뻔한 적이 있었다.

### 지멘스사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만을 공격하는 악성코드

악성 컴퓨터 웜(Computer Worm) 중 하나인 스텍스넷(Stuxnet)은 지난 2010년 6월, 벨라루스에서 처음 확인된 악성코드다. 스텍스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코드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 악성코드는 보통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를 통해 감염되지만, 윈도우를



스텍스넷(Stuxnet)은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지멘스사의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주된 타겟으로 삼은 악성코드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지멘스사의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목표로 공격을 감행한다. 스텍스넷의 공격을 받은 장비들은 작동되지 않으며, 순식간에 먹통이 되어 버린다. 이란은 자국에 판매가 금지된 지멘스 제품을 비밀리에 입수해 이란의 핵 시설에 사용하고 있었다. 지난 2009년부터 이란의 비밀 핵 시설에 스텍스넷이 침입하여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 1,000여 개를 차례차례 파괴하였다. 스텍스넷은 비록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일정 기간 지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많은 전문가가 스텍스넷 공격을 주도한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은 한때 악성코드 하나 때문에 주춤한 적이 있었다.



중국의 해킹 군단 61398부대는 사이버 해킹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10년 이상 컴퓨터 전문가를 충원해 왔다.

## 중국의 사이버 해킹

### 중국군의 비밀 해커부대 61398부대

지난 6월 8일, 미 캘리포니아의 휴양지 란초 미라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수많은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사이버 해킹이었다. 중국의 사이버 해킹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지난 2월에 미국의 주요 언론을 통해 중국 해커 부대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면서 더욱 불거지게 된다. 컴퓨터 보안업체인 맨디언트(Mandiant)는 6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올 초부터 급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정부, 에너지업체,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의 배후에 중국 인민해방군 61398부대가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61398 부대는 중국군 총 참모부 산하의 특수부대이며 중국군의 공식 편제상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 부대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에도 중국이 자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사이버 해킹은 지난 6월 8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정도의 큰 안건으로 자리잡았다.



61398부대의 해킹 실력 덕에 중국은 미군의 록히드 마틴사가 제조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만큼 이 부대가 대단히 비밀스러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미국의 최신 무기들을 해킹하다

중국 상하이 푸둥 지역의 12층짜리 건물에 본부를 둔 61398부대는 사이버 해킹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한 10년 넘게 컴퓨터 전문가들을 충원해 왔다. 신규 인력은 군 인사기관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선발했다. 2003년, 저장성 항저우의 저장대에서 정보기술(IT) 분야 전공의 석사를 모집했다는 기록도 있다. 졸업 후 이 부대에 입대하겠다고 약속하면 대학원 재학 기간에 장학금도 지급했다. 61398 부대의 가장 큰 성과는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및 제작하고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를 해킹한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각종 기술은 중국의 청두항공공사와 선양항공공사에 제공되었고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밑거름이 된다. 🇺🇸

## 영화로 만나보는 네트워크 전쟁

배우들이 정말 독특해 보이는 게 특징



잘못된 접속이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만든다  
영화 <위험한 게임>

1983년 개봉된 영화 <위험한 게임>은 컴퓨터 천재 소년이 새로 출시되는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해킹으로 입수하려다 영동하게 노라드(NORAD) 즉, 북미방공사령부에 설치된 주 컴퓨터로 들어가 그 안에 내장된 전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연결되면서 발생한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국가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토니 스콧 감독의 1998년작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미국의 정보기관인 NSA(National Security Agency) 즉, 국가안보국이 첨단 도청장치와 해킹 그리고 위성추적기로 주인공인 변호사와 주변 인물들 사회에서 매장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당신의 뇌가 해킹당한다면...?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2002년작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는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2029년 '공각기동대'라는 별명을 가진 공안 9과의 활약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뇌를 컴퓨터 혹은 디지털화시키는 '전뇌화'를 그리고 있는데, 작중에서는 이 전뇌가 해킹을 당해 타인에 조종당하는 암울한 미래가 등장하기도 한다.

# Classic Beauty Jenna Jenovich

역대급 가슴 사이즈의 제나 제노비츠 란제리만 걸친 그녀의 보디라인은  
실로 압도적이었다. 거기에 MAXIM KOREA 에디터와 나눈 솔직 발랄한 인터뷰까지!  
카... 누나,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화보는  
여기에





**와우! 한국 독자들이 열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고맙다. 언젠가 아시아를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그중 한국은 단연 1순위다. 한국 친구도 많다. 나에게 항상 한국 전통과 음식을 소개하면서 꼭 방문해보라고 권한다. 불국사, 심학산 앙귀비 숲, 해운대, 아침고요수목원, 삼광사 연등축제... 다 가보고 싶다.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 그래야 한국 팬들에게 말을 걸 수 있지 않겠어?

**바스트가 정말 훌륭하다. 가슴이 커서 불편한 점은 없나?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대신 가는 곳에 한국식 스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마사지를 좋아한다. 근데 마사지를 받을 때 가슴 안매, 베개를 받쳐놓아야 한다. 베개를 받쳐놓지 않으면 다음 가슴 아래에 베개가 닿아서 가슴이 굉장히 쳐다보더라.



**운동할 때는 괜찮나?**

러닝머신을 뒀 때 문제 많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문제 때문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라(웃음). 문제는 남자들이 너무 쳐다본다는 거다. 그럴 때마다 웃음이 터지곤 한다. 웃으면서 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런데 그거... 진편가?**

'의학의 기적', 뭐 그런 걸 말하는 건가? 숙녀한테 그런 걸 묻다니, 절대 대답 안 한다!

**미안해! 기억에 남는 작업 멘트는?**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지. 그중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여기 자주 오세요?" 다. 불쾌한 멘트는 아니지만, 너무 진부하지 않나? 가장 좋았던 멘트는 파티장에서, 잘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오더니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 모두를 초대했나요? 내 생각에 우리 둘만을 위한 파티 같은데"라고 속삭였다. 배시시 미소가 흘러나오더라.

**기분 좋았겠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8학년 때 어떤 남자애를 짝사랑했다. 하루는 그 아이에게 "나랑 데이트할래? '예/아니오'에 동그라미 쳐서 대답해"라고 쓴 쪽지를 건넸는데 나한테 쪽지를 돌려주지도 않았다!!

**남자를 미치게 하는 필살 수영복이 있는가?**

정해진 건 없지만, 섹시하고 컬러풀한 비키니를 입는 게 좋다. 하지만 내놓고 노출만 하는 건 별로다. 난 절대 해변에서 상의를 벗지 않는다. 남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자를 남겨둬야 하는 법!

**남자가 울여름 해변에서 입을 만한 수영복을 추천해달라. 딱 달라붙는 수영복은 별론가?**

딱 달라붙는 남자 수영복? 난 좋아한다! 내 친구들은 그런 나를 매번 놀리지만, 스피도를 입은 남자라니 사랑스럽지 않나?

**남자를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나?**

눈을 보면 그 남자의 성격이 보인다. 그리고 치아. 그 남자의 습관을 추측할 수 있거든.

**슈퍼맨, 아이언맨, 배트맨 중 누구랑 사귀고 싶나?**

매력 덩어리 아이언맨이제! 자신감 넘치고, 재미있고, 창의적이잖아. 슈퍼맨은 유머 감각이 부족하고, 배트맨은 너무 진지하다.

**좀비, 뱀파이어, 늑대 인간, 에일리언 중 한 놈과 싸워야 한다면 누구와 싸울 건가?**

좀비! 멍청하고 느리잖아. 그 비참한 인생을 내가 끝내주겠다! 🍷



“  
딱 달리붙는 스피도 수영복을  
입은 남자가 사랑스럽다  
”



PHOTOGRAPH CARTER JUNG WORDS 01841  
HAIR ALYSSA GONZALEZ MAKEUP ARIANNA JIMENEZ STYLING NOVELLA GENELZA PRODUCE THE GREAT VALENTINO BOOKED VMG



## Jenna Jenovich

출신지: 세르비아  
사는 곳: 미국 텍사스 주

취미:  
발리볼, 롤러블레이드 타기  
가장 무서웠던 호러 영화:  
(장화홍련)

제니와 친구가 되자:  
[twitter.com/JennaJenovich](https://twitter.com/JennaJenovich)

Warning!

# TOP GUEST



Case #1

### 생일빵? 우린 생일똥!

**장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4명의 십대 소녀가 친구 생일에 케이크를 만들었다. 케이크 장식은 천연 유기농 소재인 '인간 똥' 생일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케이크를 한 입 먹었다. 그 디저트가 남의 궁둥이에서 뽑은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녀는 남은 케이크를 집으로 가져와 가족과 나누어 먹었다.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 케이크의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과학자들은 이 희한한 맛의 비결이 인분임을 밝혀냈다. 인간사 똥수래 똥수거.

**처벌:** 이 못되게먹은 친구녀들은 22개월의 보호관찰과, 요양원 똥 기저귀와 똥 침대를 치우고 개똥도 치우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그녀들에게 그 시간이 식량 채집하는 의미있는 수확의 시간이었으리라.



Case #2

### 진짜로 인생 풍난 강의 쫄파티

**장난:** 콜로라도 볼더 대학교의 역사 강의실에서 파티가 열렸다. 21세의 토마스 커닝햄 군과 19세 매리 예사 양은 그 자리에서 마리화나를 가미한 브라우니를 돌렸다. 불행히 브라우니를 먹은 사람 중 3명이 병원에 실려갔으며, 그중엔 교수도 있었다. 교수는 어지럽고 의식이 혼미해지며 미친 듯이 붕괴(작은 드림)를 두드리고 싶은 격정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처벌:** 경찰에 붙잡힌 커닝햄과 예사, 이 두 철없는 젊은이는 2급 폭행죄와 마약류 흡입을 유도한 혐의를 포함해 총 18개의 중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단순하고 명청했던 그들의 장난 때문에 각각 징역 78년형이란 판결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약도 안 했는데 기분이 아주 그냥 일팔팔하겠어?



Case #3

### 폭발적인 섹스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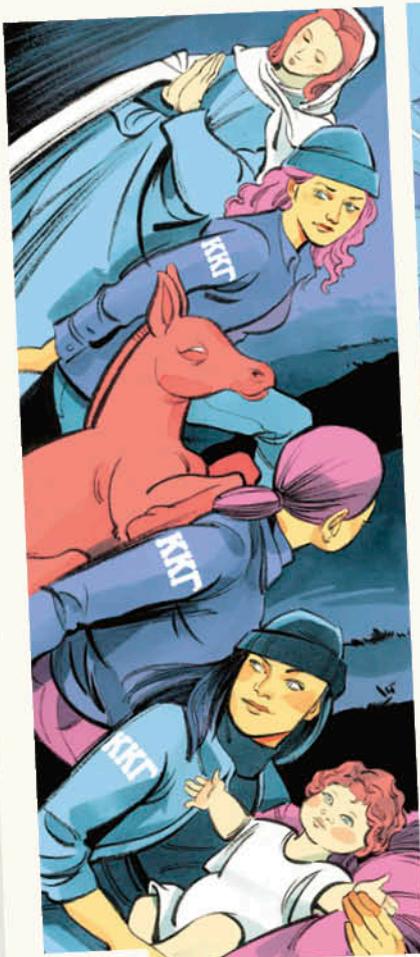
**장난:** 18세 고등학생 타일 모튼 군이 장난으로 학교 화장실 안에 풍선 섹스돌을 가져다냈다. 불행히도 이를 발견한 교직원들은 '물건'을 수납하는 구멍까지 친절하게 달린 이 섹스돌에 어떤 물건을 수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섹스돌의 외모도 몹시 맘에 안 들었는지 폭탄제거반을 불러버렸다. 내내 입을 벌리고 있는 이 폭탄녀의 상태가 해도 해도 너무 심하게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처벌:** 이후 감옥에서 5일을 보낸 모튼은 반사회적인 장난을 친 중범죄자가 될 뻔 했지만, 법원은 소를 취하고 그의 범죄 기록을 없애주는 대신 사회봉사 8시간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소년과 섹스돌은 행복하게 결혼하여 반-인간, 반-풍선의 어여쁜 두 아이를 낳았...

# FOOL'S

장난 한 번 대차게 쳤다가  
감옥, 재판장 또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된 실제 바보들  
이야기. 남의 병맛짓은 언제  
들어도 역시 즐거워!

BY LAURA LEU ILLUSTRATION KAGAN MCLEOD



Case #4

## 앵그리 자저스

**장난:** 미국 일리노이주 먼마우스 대학의 여학생 클럽 멤버들이 모여 멍청한 계획을 세웠다. 성모상, 요셉상과 동물 몇 마리에 둘러싸여서 제단에 누워있는 아기예수상을 납치한 것. 그녀들은 과감하게도 훔친 아기예수상을 대학 총장 집 잔디밭에 놓고 도망친다. 목격자들이 그녀들의 도주 차량을 자세히 기억하여 경찰에 신고했는데, 체포 당시 그녀들은 근처 타코벨에서 짬짬거리며 패스트푸드를 폭풍흡입하고 있었다.

**처벌:** 이 철없는 여학생들은 사회봉사 25시간의 처벌을 받았고... 아마 그날 자옥행 급행 편도 티켓도 발급됐을 거다. 오, 자저스 크라이스트, 자바블!



Case #5

## 아임러빙잇!

**장난:** 텍사스에 사는 열아홉 살 제임스 마를 군은 맥도날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맥도날드 본사 관리자라고 속이고, 전화를 받은 맥도날드 직원에게 방화 시스템을 당장 끄라고 명령했다. 마를은 이어 물이 독극물로 오염되었으니 '환기를 위해 모든 유리창을 깨부셔야 한다고 했다. 직원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4장의 유리창까지 깨부셨다. 그 결과, 5천 달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이와 더불어 신 메뉴가 탄생했다. 유리가루 토핑 맥너겟.

**처벌:** 하지만 법의 여신이 보시기에 마를의 '장난'은 '심각한 테러 위협'이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새 메뉴가 후시 앞에 안 드셨나.

## 장난의 신

하드코어 병맛짓 전문 리얼리티 쇼 <잭엑스>의 밤 맡게라. 그가 장난으로 친구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 먹잇감의 심리를 파악할 것!

"장난칠 대상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미리 조사해라. 나도 당한 적이 있다"



멍청하게도 <잭엑스> 프로듀서에게 내가 뱀을 무서워한다는 애길 한 적이 있다. 그들 귀엔 '뱀을 사용해서 재를 X되게 하자'는 얘기로 들렸겠지. 당연한 결과지만, 그들은 내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뱀이 가득 든 구렁이 안에 날 쳐넣었다."

### 잘 속는 사람을 찾을 것!

"스케이트보드이자 TV 스타인 랍 듀릭에게 물레카메라를 하려고 했는데, 그는 주위를 보더니 이내 뭔가 수상하다는 낱새를 채버렸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니 장난은 잘 속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 그리고 세상 끝날 것처럼 리액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재미가 배가 된다. 친척 어른신이 딱이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은 목표물이다."

### 냉정할 것!

"오버액션 하지 마라. 당신이 속이고 있는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동절해 하라."

### 철저히 준비할 것!

"우리 엄마가 무방비 상태일 때 고릴라를 갑자기 등장시킨 적이 있다. 물론 고릴라 슈트를 입은 동료였다. 이 장난을 위해 고릴라 조련사에게 그가 진짜 고릴라처럼 보이도록 움직이는 특별 훈련을 맡겼지. 엄마는 그걸 보고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버렸고, 내 생각에 우리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약간 통을 지리신 것 같았다."

레전드 장난 (저러다 죽지 싶다...)



# Party

## Miller Music Tour in New York

 뉴욕에서 5박 6일 동안 파티만 즐기다 온 에디터의 뉴욕커 체험기.  
BY 김희성

전 세계 19개국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200명이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뉴욕으로 밀러 뮤직 투어를 떠났다. 파티 즐 다녀 봤다는 에디터도 이번 투어의 한국 대표 멤버로 합류했다. 서울, 대구, 부산 찍고 도쿄, 상해 클럽에 이어 이번엔 뉴욕에서 열리는 파티라니! 그동안 사재기 해두었던 필살 원피스들을 캐리어에 우겨 넣었다.



### DAY 1

장장 열세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하니 금발 미녀 언니가 'SOUTH KOREA'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티셔츠를 입어도 감출 수 없는 티질 듯한 습가의 소유자였다. 공항에서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 우주대스타라도 된 기분이었었는데, 밀러에서는 한술 더 떠서 전용밴으로 우리를 맨해튼에 있는 5성급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니 미모의 모델이 한 쟁반 가득 밀러를 받쳐 들고 우리를 환영했다. 음식도, 미녀도, 술도 다 있었다. 투어 기간 내내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것이 무제한 공급된다고 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파티 파플들이 '싸우쓰 코리아'를 외치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참가자들의 직업도 다양했다. DJ, 패션블로거, 포토그래퍼, 에디터, 마케터 등 트렌디한 직군의 종사자가 많았다. 좀 있으면 맨해튼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호텔 꼭대기층 PhD Rooftop Bar에서 파티가 있을 거라고 했다. 에디터는 파티 원피스로 갈아입고 뉴욕에서의 첫 번째 파티장으로 향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 살짝 피곤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레드불 한 캔이 날개를 달아줬고, 밀러 몇 병에 잠자코 있던 다른 인격이 깨어났다. 그리고 시작된 It's Miller Time.





## DAY 2

둘째 날, 호텔 수영장에서 브런치 파티가 있었다. 맨해튼 수영장 선베드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자니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이었다. 그곳엔 아슬아슬한 비키니 차림의 미녀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다. 선글라스 안에서 초속 20km로 굴러가는 수컷들의 안구 운동이 감지됐다. '저것은 모유를 공급하는 수단일 뿐'이라며 억지 최면을 걸고 있는 듯 했다.

브런치 파티 후 호텔로 들어가니 '다음 목적지는 비밀, 18시 30분까지 호텔 로비로 올 것'이라는 미션지가 방문 앞에 떨어져 있었다. 리무진을 타고 이동한 곳은 세계 최대 음반사 중 하나인 EMI 건물이었다. 옥상으로 올라가니 영국 4인조 밴드 레이저 라이트의 조니 보렐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는 석양에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어우러진 'America'가 울려 퍼지니 그렇게 낭만적인 수가 없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뉴욕의 유명 클럽 'Marquee'로 향했다. 하늘에서 미녀들이 천을 온몸에 휘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아찔한 댄스를 선보이고 있었다. 뉴욕 만세

# Party



## DAY 3

3일 째 브런치 파티는 뉴욕의 패션 중심가로 떠오르고 있는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의 STK rooftop에서 있었다. 뮤직 투어 답게 점심 하나를 먹는데도 맥주와 DJ가 빠지지 않았다. 브런치를 먹는 도중 참가자 중에서도 가장 파티를 신나게 즐긴 '락스타'가 호명됐다. 밀러 뮤직 투어에서는 하루에 한 명씩 락스타를 선정하는데, 락스타가 되면 다음 파티 장소까지 전용 헬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며, 투어 내내 개인 경호원이 붙는다. 밀러의 남다른 이벤트 스케일에 입이 떡 벌어졌다.



이 날 락스타는 러시아에서 온 참가자가 차지했다. 에디터도 기를 쓰고 눌렀지만 날 때부터 흥이 많은 민족들을 제치긴 역부족이었다. 브런치가 끝나고 매년 6월에 열리는 거버너스 볼 뮤직 페스티벌로 향했다. 뉴욕 뮤직 페스티벌의 광활한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종이가 모자리니 다음 호에 플드록 하겠다. 커밍 쏘.





#### DAY 4

뉴욕에서의 네 번째 아침이 밝았다. 오늘 점심은 또 얼마나 요란스레 먹을지 잔뜩 기대가 됐다. 이 날의 브런치 장소는 핏스 에비뉴에 위치한 LAVO 였다. 투어에서 만난 뉴욕커가 "여기가 요즘 뉴욕에서 제일 핫한 곳"이라고 귀띔했다. 역시 그의 말이 맞았다. 식사를 마칠 때쯤 어디선가 비키니 차림의 미녀들이 나타나 붐뚴을 추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브런치 파티가 새벽 두 시를 방불케 하는 클럽으로 변했다. PSY의 '강남 스타일'도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죄다 우리를 향해 '싸우쓰 코리아!'를 연호했고 낮부터 밀러를 마셔댄 사람들이 합동 말춤을 쳤다. 아, 이게 정경 오후 1시의 점심식사 풍경이란 말인가! 광란의 브런치 파티를 마친 후 또 다시 드레스로 갈아입고 다음 파티로 향했다. 이날은 데이비드 게타, 아비치와 함께 세계 최정상급 DJ인 前 스웨디시 하우스 마피아의 멤버 세바스티안 잉그로스의 디제이가 있는 날이었다. 뉴욕 최고의 클럽 Highline Ballroom은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 했고 이윽고 그의 신들린 디제이가 펼쳐졌다. 자신의 음악에 심취한 클러버들 앞에 우뚝 선 세바스티안 잉그로스는 마치 신이라도 된 듯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투어 내내 밀러를 마셨는데도 아쉬움 때문인지 술이 무한대로 들어갔다. 우리는 내년 라스베이거스 투어를 예약하며 마지막 광란의 밤을 보냈다. 뉴욕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라더니 그 말이 참말이더라. 🍷

# Party

# REMY SODA

## REMY SODA ONE NIGHT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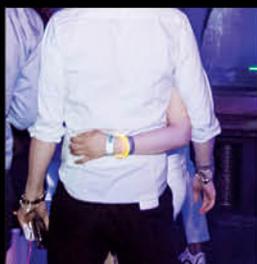
### : 2013. 6.14



클럽에서 멋있어 보이는 남자는 대체로 세 종류다.  
원래 멋있는 남자, 담배 멋있게 피우는 남자,  
술 잘 섞는 남자. BY 김희성



6월 14일, UMF에서 혼을  
볼테우고 나니 그냥 집에 가기가  
못내 아쉬워 (구)88 자리에 문을  
연 CLUB TRIPLE CROWN  
(트리플 크라운)으로 향했다. 마침  
UMF 입장 팔찌를 찬 사람은 무료  
입장이었다. 화려한 페스티벌  
차림 그대로 직행한 사람들이  
클럽 안은 일찍부터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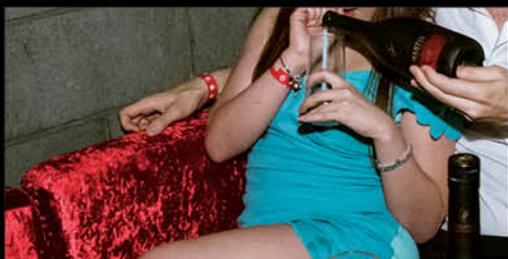




바에는 강렬한 레드와 옐로우의 칵테일이 쌍둥이 빌딩처럼 우뚝 서 있었다. 바텐더에게 "저게 대체 뭐냐"고 말을 건넸다. "레미소다"라고 했다. 그는 "내가 한 잔 사겠다"며 얼음잔에다 키타우루스가 그려져 있는 프랑스 대표 꼬냑인 레미마틴에 토닉워터를 1:3 비율로 따랐다. 이게 바로 레미소다의 제조방법이라고 했다. 소맥이나 고진감래주를 만드는 남자보다 훨씬 있어 보였다. '음, 스멜~' 코에 갖다 대니 은은한 사과향이 났다. 마셔보니 톡 쏘면서도 달달했다. 스파클링 와인 같은 느낌이었다. 오, 이거 괜찮은데?



미공개컷  
더 보기



애프터 클럽답게 새벽 세 시가 넘어가니 이미 다른 곳에서 한 잔 하고 온 클러버들로 뿔뿔이 들어찼다. 달달한 레미소다를 몇 잔인지 기억할 수도 없을 때만큼 마실 때쯤 분위기에 취해 멍달아 무이지경에 빠졌다. 아, 혹시 그거 아냐?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갈나가는 샴페인을 권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여자들은 그냥 따라주는 술보다는 술을 맛있게 잘 섞는 남자에게도 반한다. 약간의 손재주와 정성만으로 그녀를 당신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거대! 술을 섞고 숨결을 섞는 즐거움을 선사해준 레미소다와 함께 토요일의 뜨거운 밤은 그렇게 또 지나가고 있었다. 🍷



# Party DJ of the Month #3

소속: Ellui  
장르: Progressive House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하우스의 박자 구조를 지키면서 더브 (dub)한 베이스 라인과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을 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튀고 몽환적이다. 곡이 진행되면서 구성 요소가 천천히 변화하는 게 특징. 이 장르의 주요 아티스트로는 BT, Deadmau 5가 있다.

↓ DJ MAZESTIK

↑ DJ SIONZ

세계 최초로 MAXIM이 유채이탈 디제잉을 포착했다.

## Mazestik&Sionz

셋다마우스가 지목한 이번 달 릴레이 인터뷰의 주인공은? 요즘 클럽씬의 가장 핫한 디제이 듀오 마제스틱 그리고 시온즈. BY 손안나



DJ KOO

5월호



SHUT DA MOUTH

6월호



MAZESTIK&SIONZ

7월호

마제스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인가? '매직스틱'은 아닐 테고!

**마제스틱:** 매직스틱이라네 '위풍당당하다. 장엄하다'라는 뜻의 Majestic에서 J랑 C를 Z랑 K로 바꾼 거다. 우리가 속한 엘루이도 장엄한 클럽이지 않은가. 현재까진 이름 따라 잘 가고 있다.

옆에 있는 시온즈와 MAZESTIK&SIONZ라는 팀을 결성했다고...

**시온즈:** 4월에 첫 싱글을 냈고 다음 싱글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음악은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다. 되게 아름다운 음악이다.

**마제스틱:** 우리가 무슨 김태원이야?(웃음)

**시온즈:** 아름다운 음악 맞다. 대중적이고, 처음에 형과 음악적 색깔이 잘 맞아서 시작하게 됐다. 당시엔

뒤로도 없던 시기였는데, 우리 이후에 따라하는 친구도 많이 생겼다.

**마제스틱:** 뭐, 그 친구들도 잘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어차피 우리는 못 따라와!

**디제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

**마제스틱:** 군 제대 후, 캐나다에서 한 레이블 파티에 가게 됐다. 시외의 한 창고에서 테크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레이저를 쏘는데, 그날의 경험이 내게는 완전히 충격이었다.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다. 그 후로는 일본 유학 중에도 매주 클럽에 안 간 적이 없다. 교통비도 비싸고, 재입장도 안 되니까 일단 10시에 한 번 들어가면 6시까지 물만 마시면서 계속 놀았다. 몇 년을 그러고 살다 보니, 자연스레 '내가 디제이를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시온즈는 원래 힙합을 했었다고.**

**시온즈:** 힙합 디제이의 스크래치를 배우고 싶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클럽 디제이와 일렉트로닉 음악의 매력에 빠지게 됐고, 정신 차려보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마제스틱:** 변절자!

**일렉트로닉 음악이 그렇게 매력적이던가? '단순한 기계음'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마제스틱:** 오히려 그런 기계적인 베이스에 감수성이 섞여서 훌륭한 음악이 나오고 사람들이 중독되는 거다.

**시온즈:** 가끔 일렉 음악이 다른 장르보다 쉽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격이 다른 것뿐이다. 우리는 클럽에서 음악을 트는 사람들이다. 클럽에 최적화된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

**디제이 주변엔 늘 섹시한 미녀들이 함께할 것 같다.**

**마제스틱:** 그렇다고 얘기해야 하나... 이리다가 "저 새끼 여자 엄청 많다"라고 소문나는 거 아냐?

**그게 어때서? 여자에게 인기 많은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법이다.**

**마제스틱:** 음... 있을 만큼 있다.

**시온즈:** 아무래도 환경이 그렇지. 디제이 자체가 클럽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엔터테이너다. 무대, 음악, 퍼포먼스, 의상 등 모든 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디제이는?**

**마제스틱:** 칼 콕스(Carl Cox)가 좋다. 나이가 50이 넘는 흑인 아저씨인데 프로듀싱 능력을 떠나서 디제이로만 본다면, 그는 신이다. 이렇다 할 자기 곡은 없지만 전 세계를 투어하는 몇 안 되는 디제이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디제이는 누구일까?**

**마제스틱:** 6월호에 나를 추천한 셋다마우스의 비제이다.

**비제이도 본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누가 최고인 것 같으냐"는 질문에 조용히 웃으며 "셋다마우스 하겠다"라고 답했다.**

**시온즈:** 디제이라면 자기가 최고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한다. 클럽 씬 1세대에서 지금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는 것도 멋지고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다. 나이도 많은데 젊어 보이지 않나? 자기 관리도 대단히 잘하는 것 같다.

**클럽 엘루이만의 장점이 있다면?**

**마제스틱:** 일단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마제스틱하다!

**시온즈:**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퀄리티도 높다. 광활함에 압도된다.

**마제스틱:** 특히 엘루이에는 음악을 들으러 오는 클러버가 많은 것 같다. 음악을 좀 안다고나 할까?

**클럽에서 미친 듯이 놀고 싶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마제스틱:** 일단 술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옆에서 "액" 하고 소리 지르면 같이 질러라. 그렇게 점점 분위기를 타면 된다.

**MAXIM PARTY도 자주 오지? 다른 파티와 어떤 점이 다르던가?**

**마제스틱:** 무엇보다 여자들의 물이 압도적으로 좋다.

**시온즈:** 아이~ MAXIM도 엘루이에서 파티 한 번 하자고!



디제이 마제스틱이 원기옥을 모으는 모습.

플레이가 살아있네!



Who's Next?  
DJ ARIKAMA  
Coming in August

# Party

## UMF KOREA 2013

해변도 아닌데 비키니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아시아 최대 뮤직 페스티벌 맞네, 맞아



축제 현장  
맞보기



뮤직 페스티벌 중에서도 가장 핫하기로 소문난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이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렸다. 아시아 최대 규모답게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가득 매워 페스티벌의 인기를 증명했다. 음악과 춤을 온몸으로 즐기기 위해서인지 햇빛은 차림의 미녀들이 많아, 눈과 귀가 동시에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이번 UMF에는 전 세계 DJ 랭킹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아프로잭, 아민 반 뷰렌, 아버지, 칼 콕스 등의 유명 DJ들이 대거 등장해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혼을 쏙 빼놓는 그들의 살벌한 디제잉에 페스티벌을 찾은 관객들은 정신줄 놓고 신나게 축제를 즐겼다.



### Benz in UMF KOREA 2013



브랜드에서 마련한 부스 이벤트는 페스티벌의 또 다른 재미.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부스는 세시한 레이싱 모델과 잘빠진 A-Class를 앞세워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메르세데스-벤츠 부스였다. 과감하게 커팅된 A-Class의 차체 디자인(과 핫팬츠에 올린 남자가 여럿이었다. 이날 다양한 이벤트와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벤츠 라운지는 UMF를 단순히 럭셔리한 파티로 업그레이드 했다.

BY 김소영 PHOTOGRAPHY 김세형 COOPERATION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www.mercedes-benz.co.kr, 02-6456-2500)

남편 오늘부터  
마감이야



## 형법 제241조 (간통)

‘법이 이불 속에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이런 말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불 속 문제를 규제하는 두 가지 법조문이 있었다.



By Devil's Advocate  
대한민국의 현직 변호사로서,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6년간 MAXIM을 구독하던 중, 2013년부터 MAXIM 객원 에디터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위헌,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2009. 11. 26, 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1 혼인빙자 간음죄

‘법이 이불 속에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이런 말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불 속 문제를 규제하는 두 가지 법조문이 있었다.

그 중 하나였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게 성립하는 범죄다. 쉽게 말하자면 결혼 드립치고 먹버하면(통역: 먹고 버리면) 처벌하겠다는 거다. 이것도 웃기는데 그 대상이 더 웃긴다.

###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라니. 한 마디로 말해 평소 건강한 섹스 생활을 즐기는 여성은 ‘상습적으로 음행을 일삼는 부녀’라는 얘기고, 그런 여자는 혼인을 빙자해서 따먹어도 죄가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셈이다. 이것 때문에 여자로부터 혼인빙자간음죄 고소가 들어오면 고소한 여자가 지금까지 딱친 이력을 조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곤 했다.

다행히 이 미친 제도는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아 없어지게 되었다. 없어졌으니 말이지만 이 혼인빙자 간음죄 제도는 폐지되기 전까지 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격렬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 혼인빙자 간음죄의 조문을 곰씹어보면 ‘여자들이란 남자가 결혼해 줄 것 같으면 몸을 내줄 가능성이 많다’는 전제를 깔고 있을 뿐 아니라, ‘여자는 결혼을 전제로만 섹스를 해야 한다’는 전제, ‘남자의 결혼드립이 구라였을 때 여자는 처녀성을 잃게 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이니 여자 정조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제도였다. 뿐만 아니라 ‘음행의 상습이 있는 여자(섹스 좀 해본 여자)는 이미 정조를 잃었으니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 아니라, 여자의 자율 섹스에 혐의를 풍기며, 이런 여자는 결혼 드립으로 속여서 따먹질을 좀 해도 된다는 식의 위앙스까지 풍기고 있었다. 거의 이 제도의 보호 대상은 ‘여성’보다도 ‘정조’였던 셈.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뒷목 잡을 법이 2009년까지 살아있었다.

### 명사의 한 마디

역시 대인배는 뭐가 달라도 달라

“허리 아래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



아시아에 따르면, 고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이 정적의 여자 문제에 대해 말하면, “허리 아래 문제는 거론하지 말라”고 단호히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견 정치인들 사이에서나 통용되는 일이었던 모양이다. 간통죄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7년 상반기 간통 혐의로 구속된 비율은 6.9%, 1심 기준 실형률은 5.4% 인데, 1997년만 해도 구속 비율이 71.6%, 실형률은 24.1%나 되었다.

1997년 71.6%

2007년 6.8%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구속 수사를 받은 비율>

1997년 24.1%

2007년 5.4%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비율>

## 이중 간통

옆에 읽고 오심. 간통에도 순서가 있음



이중 간통이라고 하니 스와핑이나 스리섬을 생각했나? 이중 간통이라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 유부라는 걸 알면서 댁을 치면? 이때는 2개의 간통죄가 성립한다. 한 번의 섹스로 간통죄를 두 번이나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다. 한 번 했는데 왜 간통죄 두 번이나고? 섹스는 한 판 했지만 그 한 번의 섹스로 당신은 배우자에게 간통죄를 한 번 저질렀고, 동시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간통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법률 용어로 '2개의 간통죄가 상상적으로 경합한다' 라고 말하는데 일타 쌍피라고 생각해라. 또 나중에 명칭하게 경찰서에서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하면서 울지 말고.

### 형법 제241조 (간통)

-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중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2 간통죄

그런데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호색가들을 떨게 만드는 제도가 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간통죄다. 지금 여친(남친)도 없는데, 결혼도 맺었고, 간통은 내게 너무나 먼 얘기라고? 간통하면 공밥 먹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간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럼 이번 주말에 북한산에 한번 가보자. 구기동, 불광동, 송추 등 주요 등산로 인근 모텔 주차장에 차량이 꽉꽉 차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을 거다. 나는 한 여자(남자)만 죽도록 사랑하니까 나랑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그래 그래, 송고한 자세야. 꼭 그렇게 하도록 해. 하지만 간통은 당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고, 당신의 여친(남친)도 그러하지는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이성을 만나 살췐이 한번 했는데, 미혼인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정말 몰랐으면 간통은 아니지만, 하다가 갑자기 그 남자의 마누라 들이닥치면 차분하고 조리있게 자신은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겠어? 자자, 간통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증거**

마지막으로 간통죄가 유죄로 처벌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수사기관에서 “네, 간통했습니다”고 굳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증거가 제대로 잡혀서 간통죄로 처벌되는 유형은 대충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이다. 첫 번째는 배우자나 상대 배우자의 집요한 추궁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그래 씨발 했다 어쩔래?” 이리다가 녹취되는 경우, 두 번째는 지들끼리 신나서 찍어놓은 섹스비디오가 통으로 걸리는 경우, 녹화방송인 셈이다. 세 번째는 현장을 급습당한 경우다. 라이브다.

**1. 배우자 있는 자**

자 이제부터 어려운 말이 난무하는데 하나씩 살펴 보자. 배우자 있는 자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법률적 유부를 의미한다.

**2. 간통한 때에는**

간통은 한 번이라도 성기를 삽입까지 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월을 달도록 하더라도 존손만 넣지 않으면 간통은 아니다. 가끔 ‘삽입은 했지만 사정은 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입수를 너무 많이 닦았나보다. 삽입하는 순간 간통죄의 기수가 된다.

**3. 상간한 자도 같다**

상간한 자란 유부랑 딱친 상대방을 말한다. 그 중에도 ‘유부라는 걸 알면서’ 딱친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도 별개의 간통죄다. 상대가 유부남이거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간통죄를 범할 고의가 없으니 당연히 무죄다. (아, 물론 네가 미혼일 때만 무죄겠지. 아무리 상대방이 유부인 줄 모르고 쳤다해도 니가 마늘 있는 몸이라면 마늘에 대한 간통죄가 되지. 당연하잖아?)

**4.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2항을 보면 이것도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임을 알 수 있다(친고죄를 잘 모르면 지난 호를 보라).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해야한다.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결혼생활을 종내야 한다는 말이다.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혼 좀 내주려고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이혼했다가 다시 그 배우자와 혼인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걸로 간주한다.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간통죄 고소도 함께 했다가 이혼소송을 취소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5. 배우자가 간통을 중용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해라 해, 딴 놀이랑 섹스해라.” 중용은 배우자한테 간통해도 상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내가 다른 남자랑 해도 고소할 수 없다. “니가 해도 된다면서” 같은 거다. 통상적으로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중용이 있는 것으로 본다.

**6. 배우자가 간통을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용서해줄게. 앞으로 잘 해.” 유서는 이미 간통을 저지른 걸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생각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용서해 주는 거다.

**증거 수집의 방법 - 현장급습**

현장급습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간통을 자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동영상을 찍어 놓고 핸드폰을 방치할 만큼 보안의식이 결여된 사람도 많지는 않다. 결국 현장에서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고, 흥신소가 먹고 사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이다. 그럼 어떤 증거가 나와야 할까? 통상 같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거나 동침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만 가지고는 간통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현장급습에서 확보되는 증거 중에 가장 증거가치가 높은 것은 사진이나 휴지다. 물론 휴지를 가지고 핸드플레이의 산물이라고 빠득빠득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장을 걸린 마당에 그 정도 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리고 판례 중에는 남녀가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함께 있었다면 성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도 있다. 현장을 때려 잡을 정도의 정성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현장급습이 쉽지가 않다. 과거에는 경찰관을 동행시키면 어지간한 모텔 주인은 쉽게 보조키를 내 주었는데, 요새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키를 안 내주는 주인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경찰관도 문을 때려 부술 정도의 성의를 보여 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도 노크를 해주시곤 하는데, 그쯤 되면 두 불륜남녀는 평소에도 보기 드문 정숙한 모습으로 침구까지 정돈한 채 맞아주실 거다.

## 이중 간통 심화 학습 문제

자 이제 리걸 마인드 좀 있고 수학 좀 되는 사람은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다. 이거 풀면 당신은 꽤 똑똑한 거임. 자 다음의 각 상황에서 당신은 몇 번의 간통죄를 범했는지 맞춰보라. 여성 독자들도 많으니 주인공은 여성으로 상정하겠다.

1. 당신은 두 명의 미혼 남자와 2:1로 했다. 당신은 남편이 있다. ( )개의 간통죄
2. 당신은 두 명의 기혼 남자와 2:1로 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다. ( )개의 간통죄
3. 당신은 두 명의 기혼 남자와 2:1로 했다. 당신은 남편이 있다. ( )개의 간통죄
4. 당신은 한 명의 기혼남, 한 명의 미혼남과 2:1로 했다. 당신은 남편이 있다. ( )개의 간통죄
5. 당신은 한 명의 기혼남, 한 명의 미혼남과 2:1로 했다. 당신은 남편이 없다. ( )개의 간통죄

위의 정답을 5문제의 정답을 자신있게 맞출수 있다면 MAXIM 페북에 와서 친구 신청을 해라. 기사를 하나 올려놓을테니 댓글로 정답을 시원하게 쓰기 바란다.

그래서 역시 현장급습하면 집이다. 모텔의 경우 주인이 괜한 책임을 지게 될까봐 안 열어주면 방법이 없는데, 집은 내 집인 이상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방출장 등으로 합정수사를 벌여 때려잡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때로는 현장급습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소위 '에어장 사건' 이라고 알려져있는데, 일간지를 통해 인천의 한 교회 목사 장 모씨가 간통 현장을 들기자 9층에서 창밖 에어콘에 매달려있다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교단 쪽은 과로사였음을 주장하며 위의 보도가 이단의 음모라 했다. 에어장 사건은 웹상에서 수많은 패러디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 처벌

이쯤 살펴 보면 간통이란 걸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낄 것이다. 키스나 단순 동침만으로는 성립도 안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도 할

수 없으며, 그나마 중용이나 유서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부정행위가 걸린 사람 중에 간통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그 비율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처벌 받는 비율이 미미함에도 그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나이를 먹어도 딱에 대한 욕구는 여전하다는 것이지. 간통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단순 폭행죄도 2년 이하의 징역인 걸 보면 법정형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간통죄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거다. 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지간히 심한 폭행이 아니면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는데, 간통죄는 아무리 용을 써도 죄가 인정되는 이상 징역형이다. 과거 간통죄는 6개월 내지 10개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유예만 받아도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 받은 경우의 타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 간통죄 폐지 주장

이 때문에 간통죄의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간통까지 한 경우 어차피 이혼소송에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될 텐데 굳이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것이다. 간통은 벌써 4번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는데 모두 합헌결정을 받았다. 마지막 심판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진 배우 옥소리씨의 간통죄 위헌제청 사건인데,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의견 5인, 합헌의견 4인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6인 이상이 되어야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6인에는 미치지 못해 또다시 간통죄가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위헌이 과반수를 넘었었다. 그런데 최근 김진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재판관들은 9인 중 7인이 폐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에서 또 다시 간통죄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5번째 심판을 앞 두고 있고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간통죄의 위헌 논리는 비교적 심플하다. 법적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딱칠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거다. 강간이냐 내 자유를 실현하는 대신 남의 자유를 침해하니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간통은 두 사람이 각자 딱칠 자유를 실현한 건데 이걸 왜 형사처벌까지 하느냐는 거다. 현재 간통죄 규정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혼을 해 주지 않는 이상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이랑 1번이라도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결혼이 마치 딱을 봉쇄하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지나친 억압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를 노력 일부러 상대를 엿먹이려고 결혼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해주는 이도 적지 않다.

### 간통죄 존치론

반면, 간통죄를 유지하지는 쪽은 간통죄가 없어지면 부부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섹스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간통죄가 그 동안 가정생활을 지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 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없어지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한다. 필자 생각에 대한민국은 이미 섹스공화국이다. 필자가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0여 개국 정도 여행을 해 보았는데 대한민국처럼 도처에 모텔이 널려 있는 곳은 보지 못했다. 현실과 제도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꾸 헌법재판소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리할 단계가 아닌가 싶다. 원가 상당히 진지해졌는데, 결론은 딱 짓하지 말고, 딱 짓 할 거면 걸리지 말고 행복한 가정생활 하시라는 거다. 내 가정은 남의 가정은 순간의 욕구 때문에 파탄내지 말고 정 성욕을 주체할 수 없으면 투박 형님의 말씀을 따라라. 아래 사진의 카메라 렌즈를 보니 정신이 아찔해지지 않나? 📷



©2013 Interactive Life Forms, LLC. All rights reserved.  
Fleshlight and all associated logos and designs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Steve Shiblin, used under license.



모바일 기기에 [bururu.com](http://bururu.com)



# U Are Not Alone

부르르 접속 후, 쿠폰번호를 등록하시면

## 명랑완구 25% 할인!

※ 일부상품은 할인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쿠폰번호 : MX02-C5CE-41A6-F5E8



백만가지 어덜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bururu**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른들만을 위한 명랑완구 전문점  
**bururu.com**

친절 전화상담 | 부르르 고객센터 : 1661-7725

*Sexy Blondie*

# **Milanya Maria**

금발의 미녀와 데이트를 마치고 침실까지 직행하는 법이 궁금해?  
시크한 금발 미녀 밀라나 마리아가 말하는 이상적인 데이트 스킬을 참고하라!





그녀의  
다른 화보가  
궁금해?





## Milanya Maria

생일: 2월 25일

태어난 곳: 미국 캘리포니아 주

좋아하는 농구팀: LA 레이커스

좋아하는 스타: 데이비드 베컴

좋아하는 술: 레드 와인

밝히기 부끄러운 음악 취향:

푸시캣 돌스의 'Don't Cha'

PHOTOGRAPH MICHAEL VINCENT PRODUCE TAL B HAJEK  
WARDROBE DREAMGIRL STYLING ALICIA BROCKWELL HAIR NATYSSA MARIE TARAS MAKEUP ASHLEY CANNON LOCATION THE MONDERIAN SUNSET BOOKED IMAGE GROUP PR



“

데이트가 끝나면, 당신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주겠다.

”

**화보가 정말 작살난다.**

항상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애쓴다.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야 한다. 주눅 들면 그게 다 사진에 나타난다니까?

**당신을 유혹하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눈빛 교환이 중요하다. 나와 눈을 마주쳐라. 내가 알아채고 계속 돌아본다면 다가와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뒤 술 한잔 사주면 된다.

**어떤 남자가 섹시해 보이냐?**

이왕이면 식스팩이 있으면 좋겠지. 몸에 타투를 새긴 남자도 정말 섹시하더라!

**절대 데이트하고 싶지 않은 남자는?**

진부한 농담 따먹기나 하는 남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농담 있지 않나. 매너가 광인 남자도 정말 싫다. 문을 열어준다든지, 의자를 빼주는 그런 사소한 기사도에 여자는 감동한다고! 그리고 날 웃게 만드는

남자가 좋다.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날 편하게 만들어주는 남자가 최고다.

**당신에게 데이트 약속을 받아낸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이 하늘을 뚫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내가 첫 데이트에서 당신과 섹스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다. 서두르지 말라고!

**첫 데이트 때 웃은 어떻게 입어야 당신 맘에 들 수 있지?**

남자는 잘 갖춰 입어야 멋있는 것 같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 보이거든. 그 안에 짐승 같은 야성미를 숨겨놓았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당신의 집 앞까지 데리러 갈까? 아니면 그냥 약속 장소에서 만날까?**

데리러 오는 게 좋다.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 제안이라도 해달라!

**남자가 어떤 차를 모는지도 보나?**

차는 그 남자의 안목과 재정 상태를 보여주니까. 그렇다고 능력에 넘치는 과한 차는 타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을 어떤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면 좋겠나?**

스시를 완전 사랑한다. 만약 나를 분위기 좋은 스시집에 데려간다면 그 남자가 더 멋져 보일 것 같다.

**자, 이제 당신과 분위기 좋은 스시집에 왔다. 식사 자리에서 남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술을 많이 권하지 말길. 한두 잔은 괜찮다. 그런데 첫 데이트에서 나를 취하게 만들어 어떻게 해볼 심산이라면 빨리 접는 게 좋을 거야.

**데이트가 끝나고 굿바이 키스를 해줄 건가?**

데이트가 인상적이었다면 물론! ☺



엘리사 커스버트 / 정우혁 120th 2013. 05

시우리 / 유지 119th 2013. 04

이민후지스 송승아 118th 2013. 03

곽연화 / 이원종 117th 2013. 02



아리아나 그란데 / 정두홍 116th 2013. 01

곽지민 / 오광록 115th 2012. 12

바 레파엘리 114th 2012. 11

113th 특별 한정판 MISS MAXIM 4강 B컷 모음집

강예민 112th 2012. 10



아리아나 그란데 111th 2012. 09

말린 아커먼 110th 2012. 08

아이쇼윈 / 김기범 109th 2012. 07

에이드리언 팔리키 / 유카스 등호 108th 2012. 06

113th 특별 한정판 MISS MAXIM 4강 B컷 모음집

달사렛 지을 106th 2012. 04



달사렛 이영 / 유오성 106th 2012. 04

나인뮤지스 세라 / 다이나리 류우 105th 2012. 03

애비 엘리엇 104th 2012. 02

라니아 타이 / 정찬성 103th 2012. 01

카메론 디아즈 102th 2011. 12



제시카 고메즈 101th 2011. 11

메이비 99th 2011. 09

포지 현명원 휘틀리 98th 2011. 08

나르샤 / 강병만 97th 2011. 07

미셸 트리너버그 96th 2011. 06

켈리 데이 유라 95th 2011. 05



켈스데이 민아 95th 2011. 05

차유림 94th 2011. 04

에이브리얼 라빈 / 김동현 93th 2011. 03

김민아 / 송지선 92th 2011. 02

이슬아 / 유종신 91th 2011. 01



VNT 유미 / 추성훈 90th 2010. 12

앤나 쿠리니코바 89th 2010. 11

린제이 로인 88th 2010. 10

켈리 브룩 87th 2010. 09

나타샤 일람 86th 2010. 08

켈리 브룩 85th 2010. 07

칼리 무오리 83th 2010. 05

\* 흑백처리된 커버의 월호는 품질을 의미합니다.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자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속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에서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래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질되기 전에 어서 쟁취하시길!  
 \*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님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키 / 김보성 121th 2013. 06

# MAXIM BUYER'S EDGE



## 흔한 밀맥주가 싫증난다면 산토리로 색다른 휴가

낮선 여행지에서 즐기는 한여름 밤의 낭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맥주.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만 나는 밀맥주가 지겹다면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 맥주는 어떨까? 프리미엄 몰츠 맥주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는 맥아 100%와 지하 심층수를 사용하여 품격을 높인 맥주. 깊고 진한 맛에 풍성한 크림 거품을 더해 휴가지에서 먹는 음식들과 안성맞춤 맥주가 될 것이다.

OB맥주(080-022-3277)



## 카멜, 100년의 순간을 담은 컬렉션으로 재탄생

JTI의 대표 담배 브랜드 카멜이 제품 출시 100주년을 맞아 한정판 컬렉션을 출시했다. 이번 컬렉션은 카멜의 탄생과 진화, 역대 유명 광고 카피 등의 각기 다른 컨셉을 모티브로 8가지 종류로 출시되었다. 카멜은 100년에 거쳐 좋은 품질과 부드러운 맛을 카멜만의 독특한 창의적 스타일로 표현하여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의 아이콘이 된 브랜드, 100주년 한정판의 8가지 종류를 모으는 것도 또 하나의 큰 재미가 될 것이다.

2,500원(타르 8mg/6mg 2종 모두)



## 시원하고 가볍게 여름나기, 스웨거 바디 스프레이

땀나기 쉬운 여름, 운동이나 샤워 후에 번번히 향수를 뿌리기는 부담스럽고 몸에서 악취는 풍기긴 싫다면 스웨거 바디 스프레이가 한 가지 대안이 될 것이다. 남성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스웨거가 출시한 바디 스프레이는 향수보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가볍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ACH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취 방지 기능 효과가 크다. 150ml 한 병이 15,000원으로 향수보다 부담 없는 가격에 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제품 라인업은 향에 따라 3가지로 구성되었다.

15,000원, 스웨거([www.swagger.kr](http://www.swagger.kr))



## 닥터스 펩티-토닉 시리즈로 확실한 두피 관리!

탈모에 대한 고민이 부쩍 늘어난 요즘 닥터스의 두피 전용 제품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 펩티-토닉 시리즈는 머리카락과 두피의 성장 및 회복을 촉진하는 EGF(성장인자 단백질)와 고기능 트리트먼트 성분인 QCP 속성 미네랄이 함유되어 모발 굵기의 강화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방지한다. 샴푸 후에 두피에 직접 뿌리는 방식으로 두피 타입에 맞춰 지루성, 건성, 민감성, 가는 모발의 4가지로 출시된다. 자신의 모발, 두피 상태에 맞춰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예방이 치료보다 나을 수 있으니 어서 관리를 시작하자.

닥터스(1599-5875, [www.doctors.pe.kr](http://www.doctors.pe.kr))



## 예한의원 방문하고 아로마 족욕 받아보자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한다면 이제 전문가를 만나보자. 예한의원의 독자적인 흉터재생술인 SL흉터재생술은 1회 시술만으로도 여드름 흉터에 새살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 번 상담만 받아 보고 싶어도 O.K! 방문시 피부 상담은 물론이며 아로마로 족욕을 할 수 있는 시원한 서비스까지 마련해 놓았다. 믿지 못할 여드름 흉터 치료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다면 이제 예한의원 SL흉터재생술을 만나보자.

예한의원(02-564-2060, [www.ye2060.co.kr](http://www.ye2060.co.kr))



### 신개념 에너지 음료 웨이킹 4종 출시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국산 1급 A등급 원유에 양질의 우유 농축 단백질(MPC)을 함유한 에너지 음료 웨이킹을 출시하였다. 일반 우유 대비 단백질 함량이 1.5배~2배가 높아 운동 전후에 효과 증진과 신체 구성에 도움을 준다. 스위트 포테이토, 딸기&바나나, 카카오, 카페오레 맛의 4가지 맛으로 취향에 맞게 골라 마실 수 있다.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나 타우린, 비타민 D3가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함유 되어 그 자체로도 건강한 느낌이 드는 음료. 먹기 전에 10초 정도 흔들면 부드러운 거품까지 즐길 수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www.seoulmilk.co.kr)



### 수퍼액션

UFC 162, 또 한 번 전설에 도전하는 격투의 신 앤더슨 실바  
UFC 미들급 챔피언이자 역사상 최다 타이틀 방어 기록의 앤더슨 실바 선수가 오는 7월 7일 UFC 162 대회에서 타이틀 방어전 기록 경신에 도전한다. 상대는 무패의 막강한 신예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다. 앤더슨 실바 선수의 방어전 성공이 가능할지 아니면 크리스 와이드먼 선수가 새로운 챔피언이 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코리안 쏘비 정창성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 앤서니 페티스 선수 대신 8월 4일 한국인 최초 조제 알도 선수의 상대로 UFC 챔피언전에 도전한다. UFC 162는 7월 7일 채널 수퍼액션을 통해 생중계 된다.

수퍼액션(080-080-0780)



# 나도 데이트 할수있다!

### 바닷가 멜로의 완성은 서울밝은안과와 함께

한여름 바닷가에서 격렬한 사랑을 기대하는 안경남은 먼저 이 글을 읽자. 지난 몇 개월 동안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복근과 구릿빛 피부를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런데 잠깐! 뭔가 빠진 게 있지 않나? 바로 무거운 안경과 렌즈 트러블! 서울밝은안과에서는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 3시간이면 가능한 원데이리식, 라섹 시력 교정술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제공하고 있다. 변신의 화룡점정을 찍고 싶다면 지금 방문해보자.

서울밝은안과(1566-0838, www.yourlasi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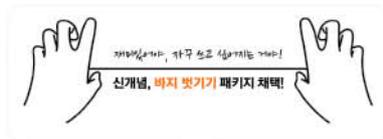


### 쿨가이의 선택! 도루코 페이스 웨이빙젤

습기가 많은 여름, 상쾌한 면도를 그리다면 도루코 페이스 웨이빙젤을 만나보자. 여름철 건조한 남성들의 피부에 촉촉함을 더하고 피부 보습 효과까지 겸비했다. 특히 식물성 아보카도 오일을 함유하여 비타민을 공급하고 진정, 영양 공급, 마사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넣었다. 패키지 디자인을 리뉴얼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느낌의 도루코 페이스 웨이빙 젤.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인 올여름 필수 아이템이다.

6,900원, 도루코(080-022-3211)

명랑 안전제일!  
ZINI SAFE  
condoms



### 드디어 탄생!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콘돔, ZINI!

(주)엠에스하모니의 ZINI CONDOMS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콘돔 브랜드. 한국인 사이즈에 맞춘 획기적인 콘돔으로 우수한 착용감은 물론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한다. 무자극성 고급 윤활제가 도포되어 부드러움을 선사하며 업그레이드된 탄력성과 신축성으로 사용할 때 마치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이질감이 없는 것이 특징. 한국인의 사이즈와 패턴을 연구해 불편함을 없앴다. ZINI CONDOMS는 성인들을 위한 명랑 완구 전문점 부르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부르르(1661-7725, www.bururu.com)

진짜로 이런 전역 선물을 나라에서 준다면 참 좋을 텐데...

# 전역자 우대 MAXIM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대대가 까마득한 전국 군바리의 부러움을 사고 싶지 않나? 민간인으로 복귀한 후 사바세계를 즐기는 티를 팍팍 내고 싶은가? MAXIM에 전역 신고 하면 정기 구독을 평생 30% 할인 받고, 후임들에게 MAXIM 1년치를 선물할 수 있다. 덤으로 멋진 시계를 받는 행운까지 누리보자. 어서 신청하러!

간첩 신고는 113,  
전역 신고는  
MAXIM으로!

### 신청 자격

전역 후 3개월 이내의 꿈과 의욕 충만한 예비역

### 신청 방법

1. www.maximkorea.net 접속
2. Board에서 '전역 인증 게시판' 클릭
3. 본인의 전역증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4. 전역증 확인 후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특별우대권'이 발급된다!

※ 자세한 사항은 '전역 인증 게시판 이용 안내'를 참고하도록!

홈페이지  
전역 인증  
게시판



오직  
전역자만을  
위한  
대박 혜택 3

# 30%

**하나.** 정기 구독 평생 30% 할인!  
당신 할아버지가 월남 참전 용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국가유공자급  
혜택이 주어진다.



**둘.** 군 생활 까마득한 자대 후임들을 위해  
당신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준다!  
당신이 머물던 자대 내무실로  
MAXIM 과월호 12권을 무료로 쏜다!



**셋.** 전역 자랑질이 뛰어난 신청자 2명에게  
멋진 '헬다이버' 손목시계를 증정한다!  
아오, 손목에서 간지가 막 그냥 폭발하네!  
(~2013년 7월 20일까지)

# 전역자랑겔

네가 재벌 2세라도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국가를 위해 2년을 희생한 진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유공자급 평생 멤버십!



**최자혁** 평생 30%

안 끝날 것 같은 군 생활이 드디어 끝나고 다시 이등병으로 돌아왔네요. 상병 때 침대 밑에 숨겨둔 MAXIM 두 권을 내무검사 때 우연히 들춰본 중대장님한테 걸려 진술서도 쓰고 ^^; 그래도 잘생기고 재미있고 착한 후임들 있어서 군 생활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곧 예초도 할 텐데 다들 다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564탄약중대 화이팅! 니들이 짱이다. ^^ PS. 말년까지 근무 세운 행복관님 미워요. 많아요.



**김봉규** 평생 30%

운전병인 내가 밖에 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하면서 다달이 MAXIM 업데이트해줬는데 한방에 싸들게~ 잘 보고 한 페이지씩 볼 때마다 나한테 감사하도록. ㅋㅋ



**홍락기** 평생 30%

23개월 동안 참수리도 타고, 의무대에도 있고, 분부대에도 있으면서 솔직히 사이드 많이 갖지. ㅋㅋ 내 댄에는 힘들기도 했고 내가 저지르고 다닌 일을 뒤처리해줘서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 아... 아직 전역한 게 실감이 안 남. 아직 긴 휴가 나온 기분이다. ㅋㅋ 23개월 동안 꿀 잘 빨고 간다. 고맙다. 특히 81기 고맙다. 제대 잘해라.



**안호성** 평생 30%

하워. 내가 컴맹이라 두 번이나 쓴다. 보이냐! 너희 MAXIM 선물 주려는 나의 노력이! 너희 혹시 이거 보고 형 할 일 없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 형은 돈이 다 떨어져서 쉬어가는 단계야. 재충전할 힘이 없네. 이만 줄일게. 급우울하다.



**유승재** 평생 30%

군 시절 내 소원이 MAXIM에 나온 QR 코드 찍어보는 거였다. 너희도 얼른 전역하고 MAXIM을 동영성으로도 즐기 바란다. 벌써 여름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작업과 근무에 시달리고 있겠구나. 힘든 만큼 사이좋게 지내고 남은 군 생활 보람 있게 채워나가라. 고생은 너희들이 다 하는 거 안다. 힘내라. ㅋㅋ



**김종수** 평생 30%

안녕 짜짜들! 그동안 부대에서 MAXIM 보다가 맨날 전역 인증 내가 올린다고, 올린다고 했는데 문득 생각나서 지금 올리려다. 요즘 군대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니들 고생하고 병사는 조금만 더 뺏아치고 간부는 허... 답이 없다. ㅋㅋ 나와서 보니까 뭘 해도 기분이 좋아. 정말 거리가 나았어도 군대 생활보다는 좋아.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가올 극락세계를 향해 참고 또 참아라. 내가 전역하고 생긴 건 부처 같은 자비로움이다. 정말로 내 몸을 해부하면 사리가 나올 정도로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았다. 특히 말년에. 사랑하는 분부 영선들, 사회에 나와서 좀 더 큰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



**김성현** 평생 30%

우리 아이들!! 내가 꼭 전역 인증 해준다고 했지? 이로써 난 MAXIM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같다. ㅎㅎ 두고 봐. 2~3년 후에는 MAXIM에 입사했다고 자랑할 테니까! 교육기간이라 많이 힘들겠지만 이거 보면서 힘내고, 내 생각이 많이 하고, 국방부 시계는 멈추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고 힘내라. 난 또 놀러 간다잉!



**신승호** 평생 30%

서른 살인데, 서른두 살 전역으로 간부님들과 모든 선·후임 병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신 병장이야! 전역과 동시에 MAXIM 평생 회원 가입과 평생 정기 구독을 신청하려고 한다. 너희들보다 열 살(심지어 띠 동갑)이나 많은 선임을 둔 덕에 어른들의 세상에 일찍 눈을 뜨게 해준 은혜(?) 절대 잊지 말고, 언젠대 뜨거운 강남의 밤을 느끼고 싶거든 주저하지 말고 형에게 연락해라! (형이랑 휴가 같이 나와 본 사람은 다 알 거다) 형은 강남 아가씨들 만나러 가느라 바빠서 이만 줄인다. ^^



**이장훈** 평생 30%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냐? 여름인데 고생이 정말 많다. 애들아, 특히 막내 민수는 곧 있으면 후인병 들어온다며? 내가 벌써 전역한 지가 3개월이 다 됐구나. 국방부 시간은 그렇게 안 가더니 밖에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바로 칼북학 하느라 너희 얼굴도 못 봐서 미안해 죽겠다.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니까 너희 좋아하는 사제 음식 들고 면회 가마, 잘 지내고 있어라.



**정지훈** 평생 30%

애들아, 안 그래도 고생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도발하니까 안타깝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활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지내는 것 참 즐거워.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너희들 모두 남은 기간 동안 몸 건강히 보람 있게 군 생활 잘하고 즐겨서 마음으로 전역하기 바랄게. 파이팅!



**광형진** 평생 30%

형이 MAXIM에 인증한다고 했지? 눈은 워낙 작아서 수정해도 소용없더라. 전역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남은 전역자가 11월이래! 너흰 아직도 까마득하구나. 전역모에 '아동 보는 기쁨쟁이'라고 적어줘서 고맙다. 엄마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 하하, 글썄요 어머니. 휴가 나오면 형이 맛있는 짬뽕집 데려가줄 테니까 연락해라. 맞후임 녀석은 그거 먹고 미미(美味)를 외쳤단다. 다들 수고하고 형이 조만간 찾아갈게. PS. 대닝 뽀! 대닝 뽀! 단영 사!!! 팬이예요!!! 사랑해요!!!



**박성용** 평생 30%

정말 2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대에서 생활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 추억도 정말 많아. 아직도 제대할 것이 실감이 안 난다. 솔직히 제대는 제대니까. ^^ 내가 분대장일 때 너희들 건드려지도 않고 편하게 해줬잖아! 그런데 집에 갈 때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거니! 아무튼, 힘들 때 힘이 되어 준 MAXIM!! 전역하고 나서도 잊지 못해 이렇게 인증하게 되었군. 그럼 더 고생해라. 애들아, 안녕~ 7월쯤에 면회 한 번 가마. ^^

취 12명을 비롯한 총 200명의 용사들이 MAXIM에 전역을 신고하고 정기구독 평생 30% VVIP가 되었다.

# Unpicked

## 이 달의 몹(못)쓸 사진

동생 반 잘라 준 쌍쌍바만큼 아까운 사진들



이 달의 못 쓴 설정 1

구지성 화보(p.132)



**안 쓴 이유** 미스테리하다...는 느낌보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같다. 아니면 마트에 일찍 와서 애처롭게 문 열리길 기다리는 아낙 같기도..



이 달의 못 쓴 설정 2

캡슐 담배 해부 실습기(p.42)



**안 쓴 이유** 과한 설정으로 담배를 피로 적셨더니 도저히 못 봐줄 비주얼이 나왔다. 호러 특집의 부담감이 낡은 과도한 콘셉트질의 결과물.



이 달의 못 쓴 설정 3



이달의 DJ 인터뷰 Mazestik&Sionz(p.158)

**안 쓴 이유** 잔상 효과를 위해 뒤에서 열심히 형광봉을 돌리던 스테프가 걸렸다.



이 달의 묘한 표정 1

공서영 아나운서 화보(p.100)



**안 쓴 이유** 몹시 피곤했을 거다. 아마 묘한 순간에 캡처된 모양인데, 저런 표정으로도 예쁠 수 있구나!

# Unpicked



이달의 몸쓸 사진 1

MAXIM 시승기 JEEP WRANGLER SAHARA(p.78)

**안 쓴 이유** 모델 뺨치는 포스의 손안나 에디터. 다 좋은데 어딜 보니? 땅에 오백원짜리라도 떨어졌니?



이달의 묘한 표정 2

남랑특집 (무서운 이야기의 10가지 유형)(p.123)

**안 쓴 이유** 항상 메이크업을 도맡아 남 얼굴만 다듬던 뷰티 에디터 장혜민 씨가 오늘은 신이 나서 귀신이 되었다. 저렇게까지 안 좋아해도 되는데 좀 부담스러웠다.



이달의 몸쓸 사진 2

STUFF (당신의 여름휴가를 위한 제품들)(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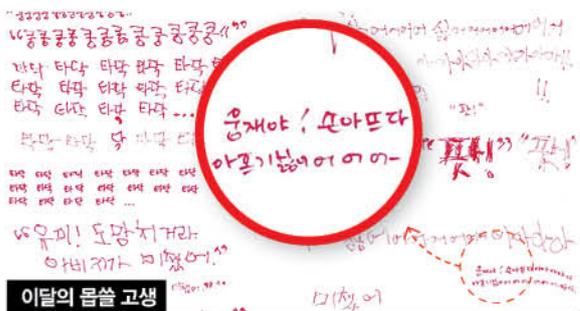
**안 쓴 이유** 타지마힐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정말로 쓰고 싶었던 사진인데, 어딜 보고 있어 단영



이달의 몸쓸 사진 3

MISS MAXIM 이아영(p.88)

**안 쓴 이유** 기억지가 훌륭해 뒤편도 멋지게 나왔는데, 오묘한 위치의 손과 사진 처리가 아쉽다.



이달의 몸쓸 고생

남랑특집 (무서운 이야기의 10가지 유형)(p.123)

**안 쓴 이유** 무서운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손글씨를 사용했다. 그렇게 손글씨를 모으던 중 '이야이'만 계속 쓰던 편집장님의 단말마만이 남아 있었다.



# KOREAN ZOMBIE



**UFC** 163

UFC 페더급 세계 챔피언전  
조제 알도 VS 정찬성

# HE IS BACK

8월 4일 (일) 오전 10시 30분 슈퍼액션 독점 생중계

**SUPER ACTION**

★ The

# MAXIM

Party ★★

## DJ LINE-UP

THE KILLAHZ  
S2  
MOON5150  
ROEM  
JIEUN  
INSERT COIN  
ERIC  
FUKKEUL  
T.SCOTT

MAXIM

**2013.07.13**

**SEXY  
MARINE  
PARTY**

**@Puffins Bay  
with J.K Corporation**



그녀의 정체는?



**PLACE** 청평 마리나 클럽&리조트 퍼핀스베이 **VJ LINE-UP** VIM /SSUN /QUEEN  
**MORE INFO**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 [facebook.com/editors.maxim](https://facebook.com/editors.maxim)

# MAXIM

KOREA

## PARTY

에디터의 뉴욕 원정 밀러뮤직투어 MMT

다 벗고 놀더라 2013 UMF

7월의 음악 잘 트는 형들

DJ 마제스틱&시온즈

## HOW TO

구지성에게 배우는

스타로 사는 법

직장 생활의 달인

화장실에서 잘하면 인턴 라이프 쫘

## MOTOR

상도덕 상실: 람보르기니 SUV 선언

MISS MAXIM 끝판왕 단영의

NAUGHTY-BIKE

목숨이 열 개라도 모자란 빨간소의

DIRTY-BIKE

테스트 드라이브 대결

FORD vs. JEEP

JULY 2013



2013  
MISS MAXIM

# TOP 16

마지막으로 16강에 합류한 독자 모델 4인방  
첫 촬영부터 경쟁자 올킬 화보로 승부수  
극강미모 & 위험수위로 촬영장은 거의 4강 분위기

## KOREAN ZOMBIE 정찬성 vs. 끝판왕

MAXIM 표지 모델이자 UFC 탑 파이터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세계타이틀전이 확정됐다  
절대 강자 조제 알도의 허점 그리고 필승전략

## ICON

### 거포(巨砲) 류현진

슬러거, 베이브 룬스, 타격 천재, 고속캠 선구안  
다저스의 타격 코치 마크 맥과이어가  
도대체 류둥에게 뭘 가르친 거지?  
청룡기 고교 타자가 8년 쉬다 메이저리그 가서  
3루타 치고 다니는 허무한 이야기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